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 결과발표회 |

2023.02.16.(목) 오전 10-1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1연수실

사회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사회는 한국 교회와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교회는 신뢰받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수행기관 (주)지앤컴리서치 후원 분당샘물교회, 삼일교회, 우리들교회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행일_ 2023년 2월 14일(화)

발행인_ 백종국

편집인_ 신동식

편 집_ 김현아

발행처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02-794-6200 cemk@hanmail.net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회

2023.02.16.(목) 오전 10-1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1연수실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사회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사회는 한국 교회와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교회는 신뢰받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순서


인사말 **조성돈** 기윤실 공동대표, 실천신대원 교수

분석발제 **정재영** 책임연구원, 실천신대원 교수

주제발제1 **김진양** 지앤컴리서치 부대표

주제발제2 **신하영** 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질의응답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의 김현아 사무국장(02-794-6200, cemk@hanmail.net)

주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수행기관** (주)지앤컴리서치 **후원** 분당샘물교회, 삼일교회, 우리들교회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

■ 사 회 - 신 동 식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 인사말 - 조 성 돈 (기윤실 공동대표)	
■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6
■ 여론조사 질문지	80
■ 분석발제 - 정 재 영 (실천신대 종교사회학 교수, 본 여론조사 책임연구원)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90
■ 주제발제 1 - 김 진 양 (지앤컴리서치 부대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114
■ 주제발제 2 - 신 하 영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우리의 믿음을 넘어, 우리를 향한 믿음으로	124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검토위원회 / 조사 진행일정 / 수행기관 / 후원	131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 보고서

(주) 지앤컴리서치



차 례

제 1 장. 조사 개요	1
1. 조사목적	2
2. 조사차수	2
3. 조사 설계	2
4. 응답자 특성	3
제 2 장. 조사 결과	4
1. 한국교회의 신뢰도	5
1-1. 전반적 신뢰도	5
1-2. 구성원별 신뢰도	8
2. 종교별 비교 인식	13
2-1. 가장 신뢰하는 종교	13
2-2.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15
2-3. 가장 호감 가는 종교	17
3. 종교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종교별 비교 인식	19
3-1.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19
3-2.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21
3-3. 한국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	23
4. 한국교회 평가	25
4-1. 한국교회의 교회 밖 비판 수용 준비 정도	25
4-2.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27
4-3.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	29
4-4.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40
4-5. 한국교회의 이미지(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42
5. 한국교회의 과제	44
5-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44
5-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47
5-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50
5-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53
6. 교회와 정치	56
6-1.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56
6-2.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58
6-3.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60
6-4. 대통령/특정 정치인 초청 기도회에 대한 생각	62
6-5. 기독교인 국회의원 인지율	64
6-6. 기독교인 국회의원 평가	66
6-7. 종교별 정치적 이념 이미지 평가	68
7. 종교 중요도	72

제 1 장 .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지난 2008년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여섯 번째로 진행되는 추적 조사 연구로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파악 및 교회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차수

1차 2008년	2차 2009년	3차 2010년	4차 2013년
	5차 2017년	6차 2020년	7차(본조사) 2023년

3.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방법	●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 총 1,000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근거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로 분석함
조사 기간	● 2023년 1월 11일 ~ 15일(5일간)
조사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4.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8)	49.8
	여성	(502)	50.2
연령	20대	(159)	15.9
	30대	(149)	14.9
	40대	(186)	18.6
	50대	(197)	19.7
	60대 이상	(309)	30.9
	지역	서울	(188)
	인천/경기	(319)	31.9
	대전/충청/세종	(108)	10.8
	광주/전라	(96)	9.6
	대구/경북	(150)	15.0
	부산/경남/울산	(98)	9.8
	강원/제주	(41)	4.1
지역 크기	대도시	(597)	59.7
	중소도시	(321)	32.1
	읍/면	(82)	8.2
직업	자영업	(150)	15.0
	블루칼라	(293)	29.3
	화이트칼라	(246)	24.6
	가정주부	(185)	18.5
	학생	(53)	5.3
	무직/기타/무응답	(73)	7.3
소득수준	상	(96)	9.6
	중	(374)	37.4
	하	(507)	50.7
	무응답	(23)	2.3
이념성향	보수	(255)	25.5
	중도	(469)	46.9
	진보	(233)	23.3
	잘 모르겠음	(43)	4.3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8.6
	천주교(가톨릭)	(108)	10.8
	불교	(128)	12.8
	기타 종교	(32)	3.2
	종교 없음	(547)	54.7
신앙심 정도	깊음	(208)	45.8
	보통	(167)	36.8
	깊지 않음	(79)	17.4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21.0
	신뢰하지 않음	(740)	74.0
	잘 모르겠음	(51)	5.1

제 2 장 . 조사 결과 분석



1. 한국교회의 신뢰도

1-1. 전반적 신뢰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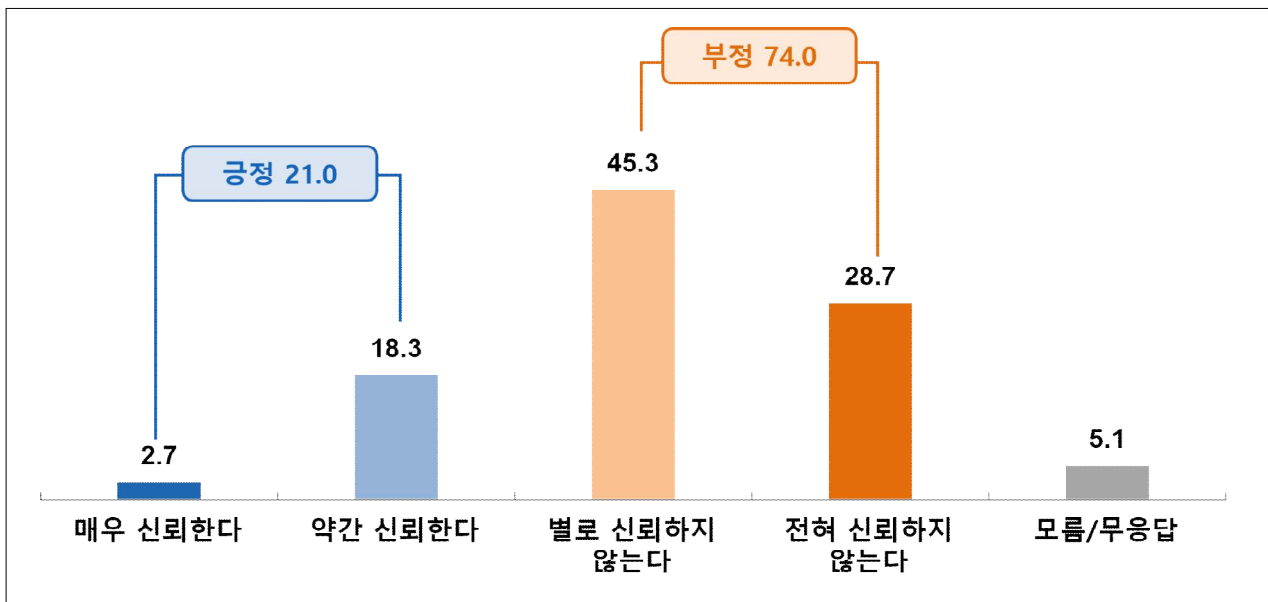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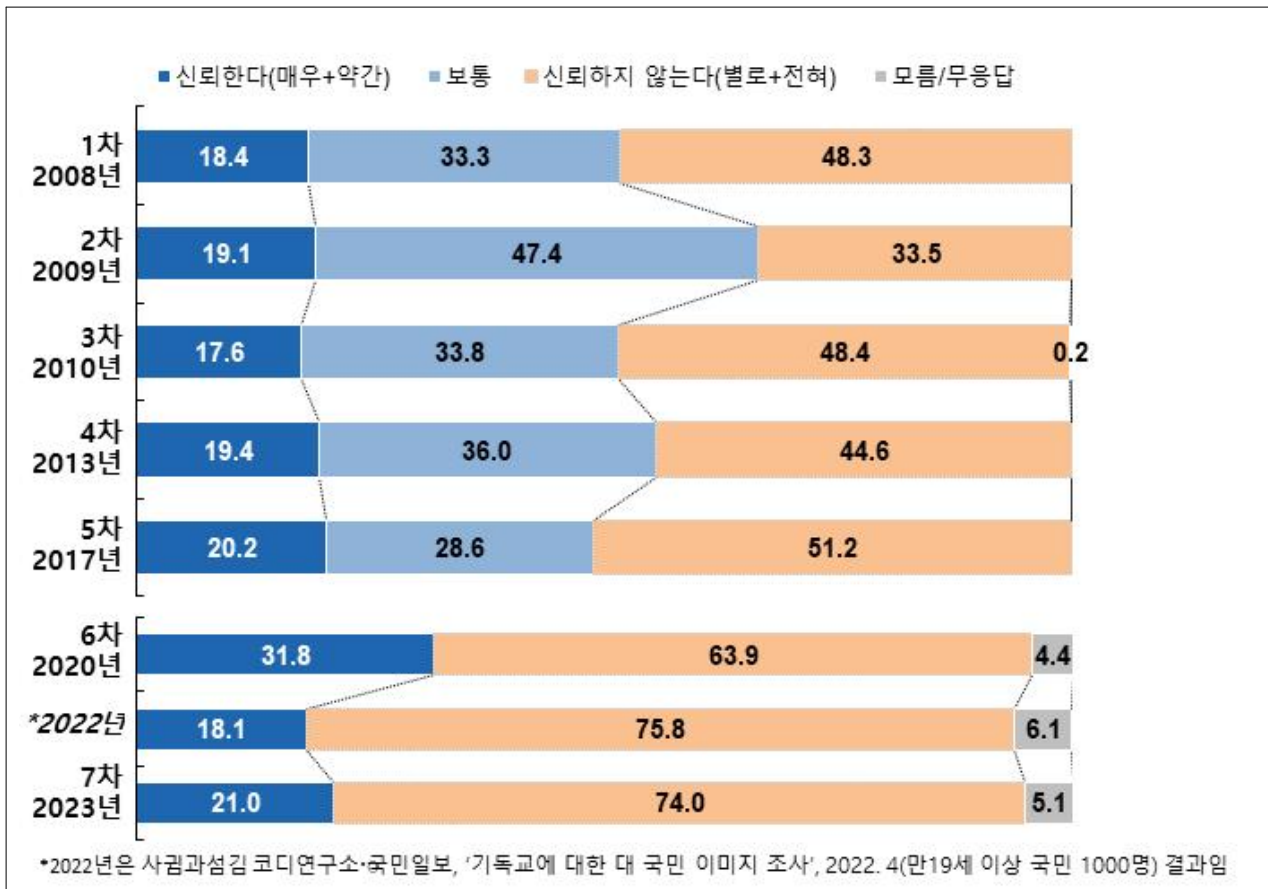
-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질문하였다. 신뢰한다(매우+약간) 21.0%,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74.0%로, 국민의 5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반적 신뢰도

(N=1000, %)



- 이는 6차 조사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가 10.8%p 정도 낮아진 것이다. 6차 조사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1월에 조사된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교회의 대응 등이 한국교회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는 2008년 이후 이번 조사까지 총 7차례 조사했는데, 5차까지는 본 문항에 대해 '보통'이 포함된 5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2020년도 조사부터는 '보통'을 제외한 4점 척도로 질문하였기에 과거 차수와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22년 4월에 사림과섬김 코디연구소·국민일보가 의뢰하여 지앤컴리서치에서 조사한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18.1%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7차 조사에서는 2.9%p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기독교가 관련되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급락하였는데 2022년 들어 코로나19 확산과 한국교회와의 관련성이 잠잠해지면서 신뢰도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 특히 무종교자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2022년 4월 조사에서는 6.6%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0.6%로 4.0%p 증가하여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았을 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긍정의 인식보다 부정의 인식이 높았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응답자가 신뢰도가 높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볼 수 있다.



[표] 전반적 신뢰도(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7	18.3	45.3	28.7	21.0	74.0	5.1	100.0
성별	남성	(498)	3.2	19.0	45.5	29.4	22.2	74.9	2.9	100.0
	여성	(502)	2.3	17.6	45.0	28.0	19.8	73.0	7.2	100.0
연령	20대	(159)	2.0	19.8	41.3	24.3	21.8	65.5	12.7	100.0
	30대	(149)	0.5	13.8	52.6	28.7	14.4	81.3	4.4	100.0
	40대	(186)	0.8	20.3	46.8	26.8	21.0	73.5	5.4	100.0
	50대	(197)	3.4	13.4	46.3	34.2	16.8	80.5	2.7	100.0
	60대 이상	(309)	4.9	21.5	42.3	28.5	26.4	70.9	2.7	100.0
지역	서울	(188)	1.4	31.3	39.6	24.9	32.7	64.5	2.7	100.0
	인천/경기	(319)	3.2	15.6	48.1	27.8	18.8	76.0	5.2	100.0
	대전/충청/세종	(108)	0.2	14.8	42.8	36.6	15.0	79.5	5.5	100.0
	광주/전라	(96)	4.1	19.5	48.1	20.6	23.5	68.7	7.8	100.0
	대구/경북	(150)	2.4	16.1	52.5	24.2	18.5	76.7	4.8	100.0
	부산/경남/울산	(98)	3.3	8.8	39.3	45.1	12.1	84.4	3.5	100.0
	강원/제주	(41)	8.1	16.3	36.8	27.4	24.4	64.2	11.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3	21.1	46.6	25.5	23.4	72.0	4.6	100.0
	중소도시	(321)	3.5	13.1	43.6	33.7	16.5	77.3	6.2	100.0
	읍/면	(82)	2.9	18.2	42.6	32.3	21.1	74.9	4.0	100.0
직업	자영업	(150)	1.2	23.8	50.7	21.5	25.0	72.3	2.7	100.0
	블루칼라	(293)	4.4	19.8	46.2	24.0	24.2	70.2	5.6	100.0
	화이트칼라	(246)	2.0	16.5	41.0	37.4	18.5	78.4	3.2	100.0
	가정주부	(185)	3.1	14.8	45.9	29.9	17.9	75.9	6.3	100.0
	학생	(53)	3.4	18.3	46.0	20.8	21.6	66.8	11.6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0.0	15.7	42.6	35.4	15.7	78.0	6.3	100.0
소득수준	상	(96)	2.9	21.5	39.5	34.9	24.4	74.4	1.2	100.0
	중	(374)	2.0	20.9	46.0	25.8	22.9	71.7	5.3	100.0
	하	(507)	3.3	16.5	45.6	30.6	19.9	76.1	4.0	100.0
	무응답	(23)	0.0	0.0	52.0	8.2	0.0	60.3	39.7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6.2	34.9	35.8	20.5	41.1	56.3	2.6	100.0
	중도	(469)	1.4	14.8	50.0	27.3	16.2	77.3	6.5	100.0
	진보	(233)	1.3	10.5	44.8	42.1	11.8	86.9	1.3	100.0
	잘 모르겠음	(43)	4.1	0.0	52.1	19.8	4.1	71.9	24.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1.6	48.6	31.0	6.0	60.2	37.0	2.8	100.0
	천주교(가톨릭)	(108)	4.4	20.0	55.4	19.9	24.4	75.3	0.3	100.0
	불교	(128)	0.0	6.9	57.1	30.5	6.9	87.7	5.4	100.0
	기타 종교	(32)	0.0	37.8	25.5	36.7	37.8	62.2	0.0	100.0
	종교 없음	(547)	0.1	10.5	45.2	37.5	10.6	82.7	6.7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2.9	87.1	0.0	0.0	100.0	0.0	0.0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0	0.0	61.2	38.8	0.0	100.0	0.0	100.0
	잘 모르겠음	(5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2 구성원별 신뢰도

(1)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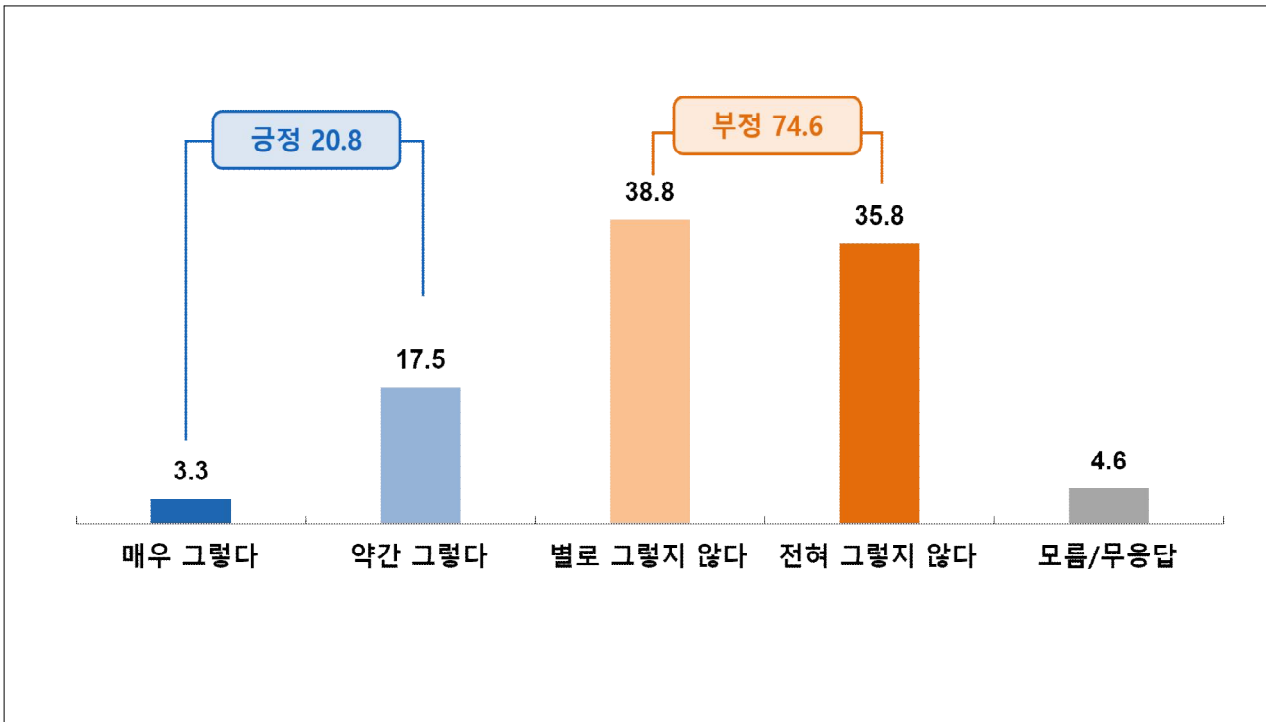
-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 목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물었다.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매우+약간) 20.8%,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74.0%로 전반적인 기독교 신뢰도와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들 전체가 기독교 목사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응답자들 중 20.7%는 목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념성향이 '보수'에 가까울수록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진보'에 가까울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림] 구성원별 신뢰도_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N=1000, %)



[표] 구성원별 신뢰도_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3	17.5	38.8	35.8	20.8	74.6	4.6	100.0
성별	남성	(498)	3.9	15.8	37.9	38.3	19.7	76.2	4.1	100.0
	여성	(502)	2.8	19.1	39.7	33.3	21.9	73.0	5.2	100.0
연령	20대	(159)	1.1	18.6	37.2	32.1	19.7	69.4	10.9	100.0
	30대	(149)	3.1	9.7	41.2	41.3	12.8	82.5	4.7	100.0
	40대	(186)	3.1	17.8	37.0	36.4	20.9	73.4	5.7	100.0
	50대	(197)	2.8	16.8	36.5	41.2	19.6	77.8	2.6	100.0
	60대 이상	(309)	5.1	20.8	41.0	31.2	25.9	72.2	2.0	100.0
지역	서울	(188)	3.6	30.1	36.8	27.2	33.7	64.0	2.3	100.0
	인천/경기	(319)	1.6	15.8	41.1	35.3	17.4	76.4	6.2	100.0
	대전/충청/세종	(108)	0.2	14.7	32.9	43.5	14.9	76.4	8.7	100.0
	광주/전라	(96)	6.2	16.6	42.1	30.1	22.8	72.3	5.0	100.0
	대구/경북	(150)	5.8	13.7	41.5	37.3	19.5	78.8	1.7	100.0
	부산/경남/울산	(98)	3.6	9.2	35.7	49.3	12.8	85.0	2.3	100.0
	강원/제주	(41)	8.1	15.0	35.6	33.8	23.1	69.5	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3.4	19.5	40.4	32.8	22.9	73.2	3.9	100.0
	중소도시	(321)	3.3	13.7	39.7	38.6	17.0	78.3	4.7	100.0
	읍/면	(82)	2.9	17.0	23.7	46.8	19.9	70.5	9.6	100.0
직업	자영업	(150)	0.0	19.4	48.1	31.3	19.4	79.4	1.2	100.0
	블루칼라	(293)	6.4	16.9	37.0	33.9	23.3	70.9	5.8	100.0
	화이트칼라	(246)	3.0	17.1	32.8	45.0	20.1	77.8	2.1	100.0
	가정주부	(185)	2.3	17.4	43.1	32.5	19.8	75.6	4.7	100.0
	학생	(53)	3.4	23.0	36.2	21.1	26.3	57.3	16.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1.5	13.1	38.0	40.8	14.5	78.8	6.6	100.0
소득수준	상	(96)	1.2	20.1	31.6	44.8	21.3	76.4	2.3	100.0
	중	(374)	2.9	21.7	38.4	32.9	24.6	71.3	4.1	100.0
	하	(507)	4.2	14.5	39.8	37.1	18.7	77.0	4.3	100.0
	무응답	(23)	0.0	2.3	53.5	14.4	2.3	67.8	29.8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8.4	27.6	36.0	26.1	36.0	62.1	1.9	100.0
	중도	(469)	1.7	15.4	42.3	35.0	17.2	77.3	5.5	100.0
	진보	(233)	0.9	12.8	36.0	47.5	13.7	83.5	2.9	100.0
	잘 모르겠음	(43)	4.1	4.8	32.3	38.9	8.9	71.2	19.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5.0	46.3	30.9	6.2	61.2	37.1	1.6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7	22.2	44.6	30.5	24.0	75.1	0.9	100.0
	불교	(128)	0.0	8.2	49.4	35.4	8.2	84.8	6.9	100.0
	기타 종교	(32)	0.0	46.3	1.3	52.4	46.3	53.7	0.0	100.0
	종교 없음	(547)	0.7	8.8	38.0	46.7	9.5	84.7	5.8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5.5	63.8	18.9	1.7	79.3	20.7	0.0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1	4.9	44.8	47.4	5.0	92.2	2.8	100.0
	잘 모르겠음	(51)	0.0	8.7	33.0	7.8	8.7	40.8	50.5	100.0

1-2. 구성원별 신뢰도

(2)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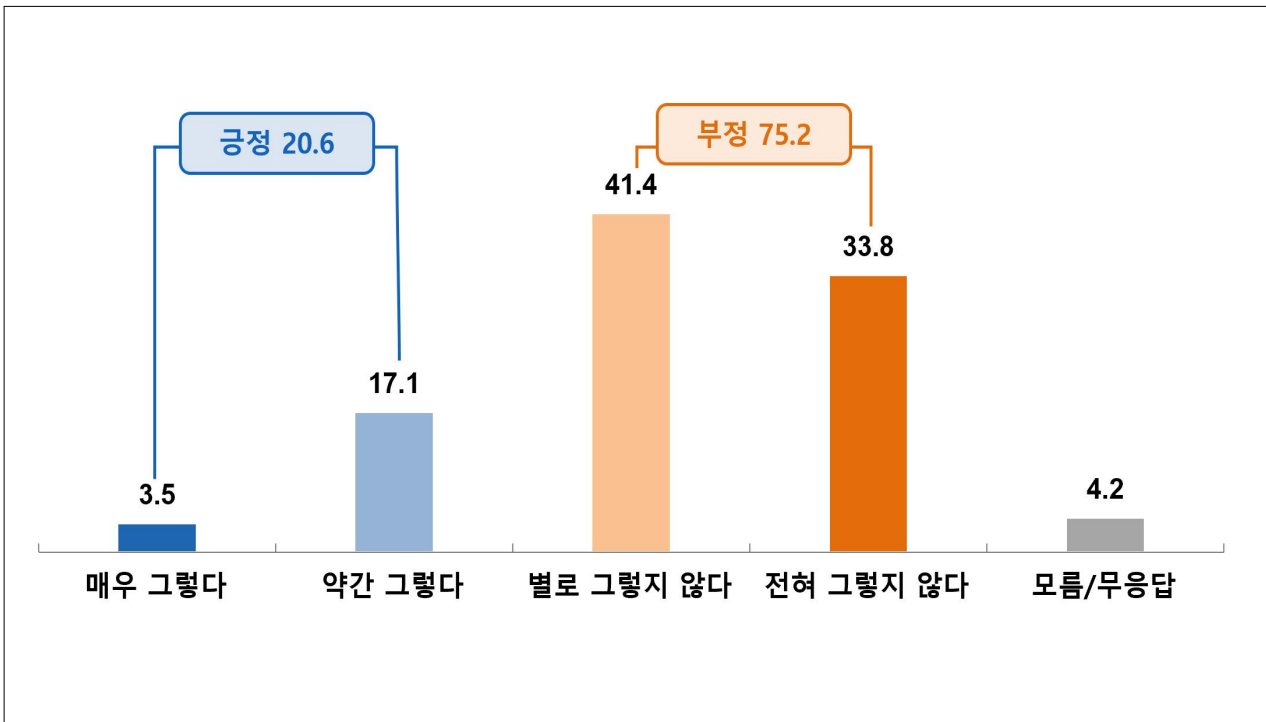
-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 그렇다면 국민들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신뢰한다'(매우+약간) 20.6%,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75.2%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 목사 신뢰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목사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인'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28.1%는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계층별로는 앞선 기독교 목회자 신뢰도와 거의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41.7%는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의 목사 신뢰도와 비교하여 4.6%p 높은 부정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인들은 목사보다 같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2020년과 6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 목사/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약 10%p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긍정률 기준). 그러나 2022년 4월 조사한 사림과섬김 코디연구소·국민일보 조사와 비교하면 기독교 목회자 신뢰도는 하락이 멈추었으며, 기독교인 신뢰도는 하락에서 소폭 반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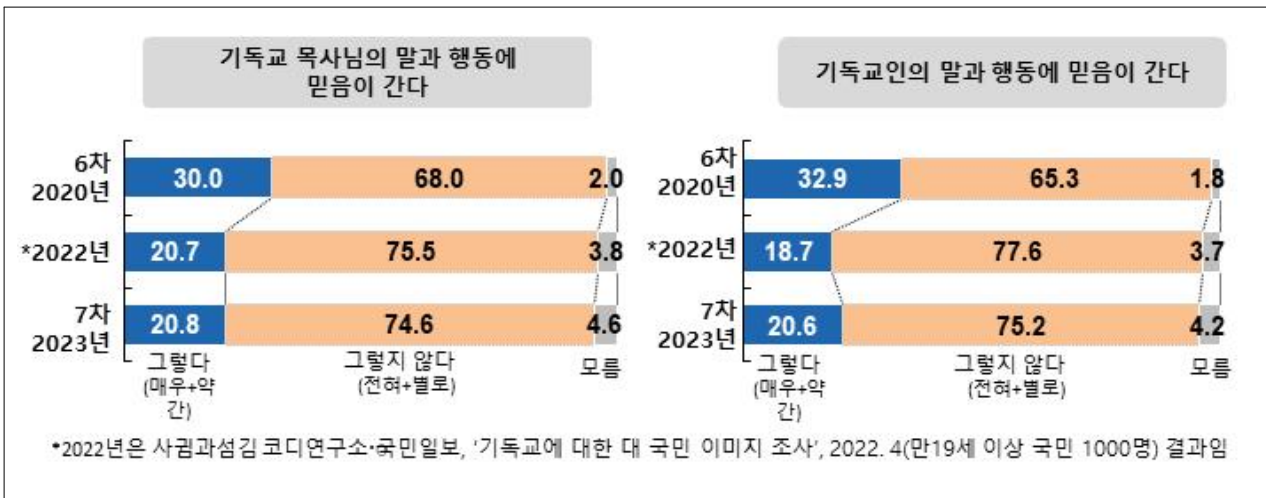
[그림] 구성원별 신뢰도_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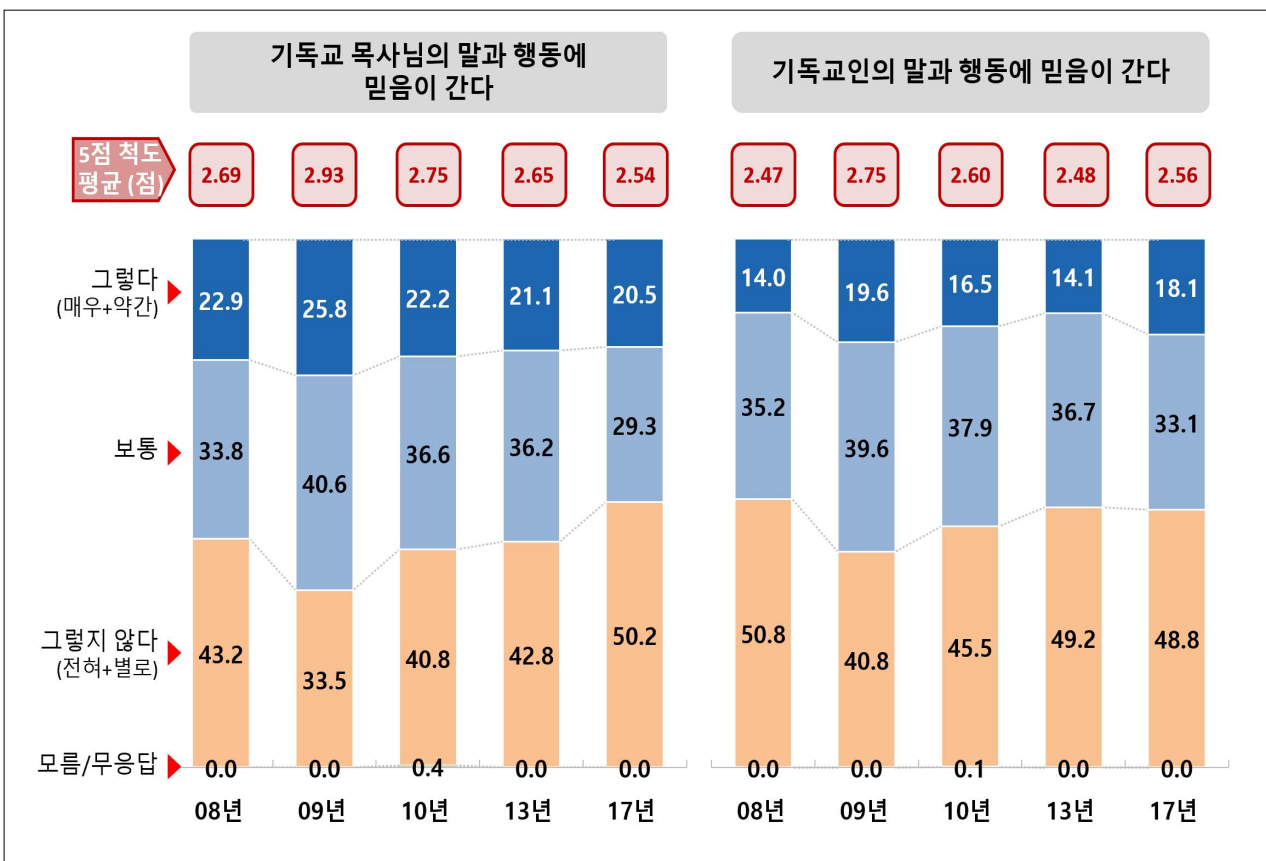
[참고] 2020년/2023년 속성별 신뢰도 비교

(N=1000, %)



[참고] 과거 차수의 속성별 신뢰도 (2)

(N=1000, %)



* 속성별 신뢰도 조사는 2008년 이후 이번 조사까지 총 7차례 조사했는데, 5차까지는 본 문항에 대해 '보통'이 포함된 5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2020년도 조사부터는 '보통'을 제외한 4점 척도로 질문하였기에 과거 차수와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음.

[표] 구성원별 신뢰도_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5	17.1	41.4	33.8	20.6	75.2	4.2	100.0
성별	남성	(498)	4.2	16.8	42.4	33.2	21.0	75.6	3.4	100.0
	여성	(502)	2.7	17.5	40.5	34.3	20.2	74.8	4.9	100.0
연령	20대	(159)	3.8	13.2	44.5	29.1	17.0	73.6	9.4	100.0
	30대	(149)	0.8	13.3	42.0	38.5	14.1	80.5	5.3	100.0
	40대	(186)	5.8	15.8	42.4	32.5	21.6	74.9	3.5	100.0
	50대	(197)	2.9	16.9	38.9	38.0	19.8	76.9	3.3	100.0
	60대 이상	(309)	3.6	22.0	40.6	32.0	25.5	72.6	1.9	100.0
지역	서울	(188)	5.4	23.4	37.8	29.9	28.7	67.7	3.5	100.0
	인천/경기	(319)	2.5	17.3	43.7	30.9	19.8	74.5	5.7	100.0
	대전/충청/세종	(108)	0.2	15.7	35.4	43.9	15.8	79.3	4.9	100.0
	광주/전라	(96)	4.4	15.9	46.7	26.8	20.4	73.5	6.2	100.0
	대구/경북	(150)	5.1	16.2	42.4	33.9	21.3	76.3	2.4	100.0
	부산/경남/울산	(98)	3.3	10.9	35.7	47.8	14.2	83.6	2.3	100.0
	강원/제주	(41)	2.9	12.9	54.5	29.8	15.7	84.3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3.9	18.3	40.8	33.3	22.2	74.1	3.7	100.0
	중소도시	(321)	2.8	16.5	43.2	33.5	19.3	76.8	4.0	100.0
	읍/면	(82)	2.9	11.2	39.0	38.2	14.1	77.2	8.7	100.0
직업	자영업	(150)	1.4	30.7	39.0	27.7	32.1	66.7	1.2	100.0
	블루칼라	(293)	4.8	17.9	35.6	37.3	22.7	72.9	4.4	100.0
	화이트칼라	(246)	2.5	15.1	40.2	39.2	17.6	79.4	3.0	100.0
	가정주부	(185)	4.0	12.9	47.5	31.5	16.9	79.0	4.1	100.0
	학생	(53)	7.5	1.9	58.4	15.9	9.4	74.2	16.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1.2	14.7	46.6	32.8	15.9	79.4	4.7	100.0
소득수준	상	(96)	4.2	22.0	33.2	38.4	26.2	71.6	2.3	100.0
	중	(374)	3.9	17.4	44.1	30.5	21.3	74.6	4.1	100.0
	하	(507)	3.2	16.6	40.2	36.3	19.8	76.5	3.7	100.0
	무응답	(23)	0.0	4.4	61.5	10.6	4.4	72.1	23.5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6.5	24.6	43.3	24.2	31.2	67.5	1.3	100.0
	중도	(469)	2.4	15.9	41.7	35.1	18.3	76.8	4.9	100.0
	진보	(233)	2.2	12.5	41.8	40.3	14.7	82.1	3.2	100.0
	잘 모르겠음	(43)	4.1	11.0	25.4	41.6	15.1	67.0	17.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3.5	43.8	34.6	7.0	57.4	41.7	1.0	100.0
	천주교(가톨릭)	(108)	4.3	20.5	41.9	32.4	24.8	74.3	0.8	100.0
	불교	(128)	0.6	12.9	47.2	31.9	13.5	79.2	7.3	100.0
	기타 종교	(32)	0.0	46.3	22.7	31.0	46.3	53.7	0.0	100.0
	종교 없음	(547)	0.7	8.1	42.4	43.7	8.8	86.0	5.1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4.7	55.9	25.4	2.7	70.6	28.1	1.2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5	7.0	46.9	43.7	7.5	90.5	1.9	100.0
	잘 모르겠음	(51)	0.0	4.4	28.6	17.7	4.4	46.4	49.2	100.0

2. 종교별 비교 인식

2-1. 가장 신뢰하는 종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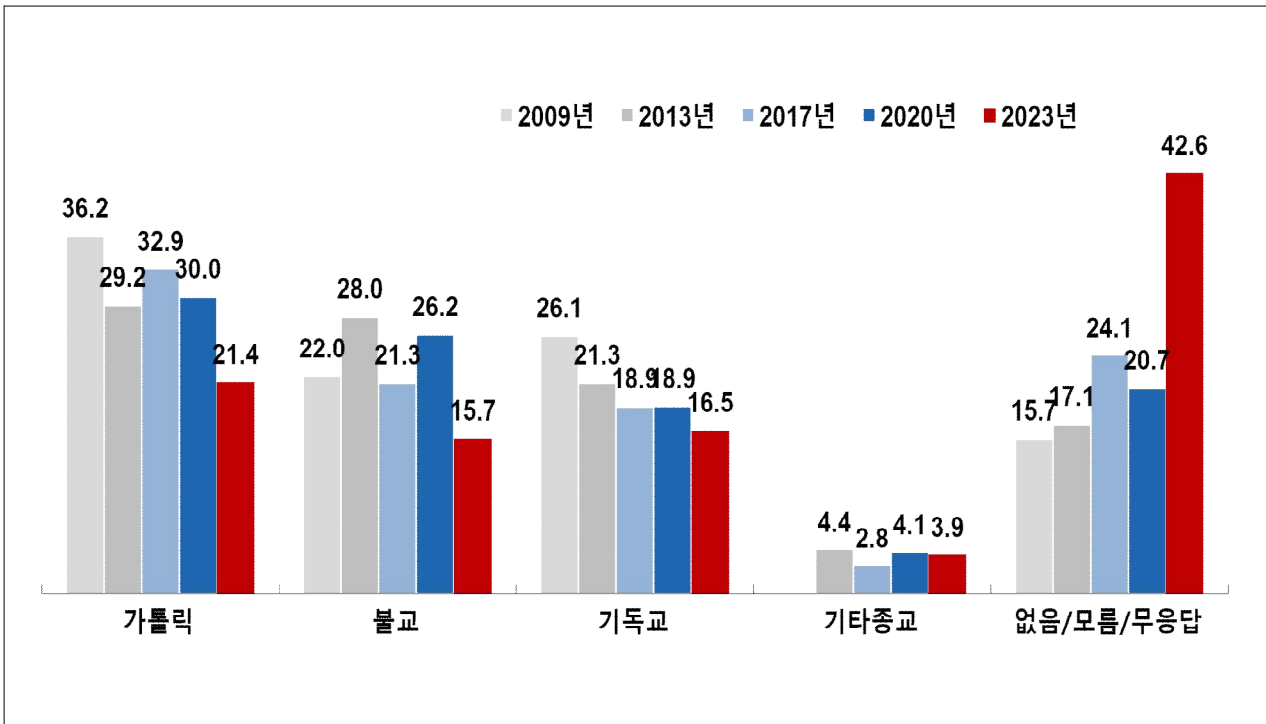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 기독교와 함께 가톨릭, 불교, 기타 종교간에 상대적인 신뢰도 측정을 실시했다. 현재 종교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21.4%)>개신교(16.5%)>불교(15.7%)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가톨릭>불교>기독교였는데 기독교가 불교를 꺾고 2위로 올라섰다.
- 2020년과 대비하여 가톨릭, 불교, 기독교 3대 종교 모두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신뢰하는 종교가 '없음', '잘 모르겠다'의 비율은 42.6%로 2020년보다 21.9%p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없다'에 대한 응답이 34.6%였다.
- 종교인은 자기 종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무종교인들은 가톨릭 17.5%, 불교 12.2%의 신뢰를 보였고, 기독교는 불교보다 한참 낮은 3.2%의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 소득수준 '상'에서는 가톨릭을, '하'에서는 기독교를 1위로 꼽았으며,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은 기독교, 중도층은 가톨릭을 각각 1위로 꼽았으며, 진보층은 불교와 가톨릭을 비슷하게 신뢰하였다.

[그림] 가장 신뢰하는 종교

(N=1000, %)



[표] 가장 신뢰하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가톨릭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1.4	15.7	16.5	1.7	1.7	0.5	34.6	8.0	100.0
성별	남성	(498)	21.0	15.2	17.9	1.7	3.0	0.6	33.8	6.8	100.0
	여성	(502)	21.8	16.2	15.1	1.8	0.4	0.3	35.3	9.2	100.0
연령	20대	(159)	9.0	17.1	15.0	2.2	2.8	2.0	41.8	10.2	100.0
	30대	(149)	9.3	12.9	16.7	2.7	1.5	1.0	46.6	9.2	100.0
	40대	(186)	10.6	13.0	21.6	0.7	2.8	0.0	43.2	8.1	100.0
	50대	(197)	31.9	18.3	14.5	0.5	1.6	0.0	24.2	9.0	100.0
	60대 이상	(309)	33.4	16.3	15.3	2.5	0.5	0.0	26.4	5.5	100.0
지역	서울	(188)	25.7	17.3	22.7	0.7	0.4	0.0	25.0	8.1	100.0
	인천/경기	(319)	22.3	10.4	13.4	2.2	3.7	0.3	40.3	7.3	100.0
	대전/충청/세종	(108)	19.7	16.4	16.5	5.1	2.0	0.9	31.8	7.6	100.0
	광주/전라	(96)	21.9	27.1	11.2	2.2	1.5	1.5	26.6	8.0	100.0
	대구/경북	(150)	14.9	20.1	20.2	0.0	0.0	0.8	35.6	8.3	100.0
	부산/경남/울산	(98)	26.1	6.1	12.8	1.3	0.5	0.0	44.8	8.3	100.0
	강원/제주	(41)	10.5	28.5	18.9	0.0	0.0	0.0	30.7	11.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3.3	14.7	18.0	2.0	1.7	0.8	32.4	7.1	100.0
	중소도시	(321)	20.4	17.9	13.0	1.3	1.1	0.0	37.6	8.6	100.0
	읍/면	(82)	11.1	14.9	18.5	1.7	3.5	0.0	38.0	12.3	100.0
직업	자영업	(150)	23.0	15.9	19.8	3.5	0.0	0.0	29.7	8.1	100.0
	블루칼라	(293)	19.0	14.3	19.7	1.6	2.8	0.4	33.4	8.7	100.0
	화이트칼라	(246)	19.9	17.8	14.1	1.7	1.0	0.7	37.7	7.0	100.0
	가정주부	(185)	26.7	14.4	16.8	1.6	0.5	0.0	34.0	5.9	100.0
	학생	(53)	15.9	20.5	9.4	0.0	8.3	2.8	30.6	12.6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3.2	13.7	8.6	0.4	0.9	0.4	43.0	9.8	100.0
소득수준	상	(96)	34.1	16.9	11.5	0.0	3.6	0.0	27.1	6.7	100.0
	중	(374)	26.4	17.2	17.0	3.3	0.7	1.2	28.6	5.6	100.0
	하	(507)	16.2	15.1	17.5	1.0	2.1	0.0	40.3	7.9	100.0
	무응답	(23)	1.0	1.0	6.1	0.0	0.0	0.0	36.0	55.8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4.3	15.1	26.3	0.9	1.8	0.0	24.3	7.3	100.0
	중도	(469)	21.9	14.6	12.9	2.1	0.7	0.3	39.6	7.8	100.0
	진보	(233)	19.8	20.1	14.6	2.2	3.7	1.4	32.8	5.3	100.0
	잘 모르겠음	(43)	7.2	7.5	8.0	0.0	0.0	0.0	49.1	28.2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9.0	2.9	73.8	0.0	0.0	0.5	6.5	7.3	100.0
	천주교(가톨릭)	(108)	78.8	3.3	2.0	2.5	0.0	0.0	8.2	5.1	100.0
	불교	(128)	8.3	54.0	4.5	7.0	3.5	1.9	10.9	10.0	100.0
	기타 종교	(32)	46.3	0.0	12.7	0.0	41.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547)	17.5	12.2	3.2	0.8	1.4	0.2	56.4	8.4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9.9	17.8	47.4	1.0	0.0	0.8	7.5	5.7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22.6	15.4	8.2	2.1	2.3	0.4	41.8	7.3	100.0
	잘 모르겠음	(51)	10.2	12.2	8.8	0.0	0.0	0.0	40.8	28.0	100.0

2-2.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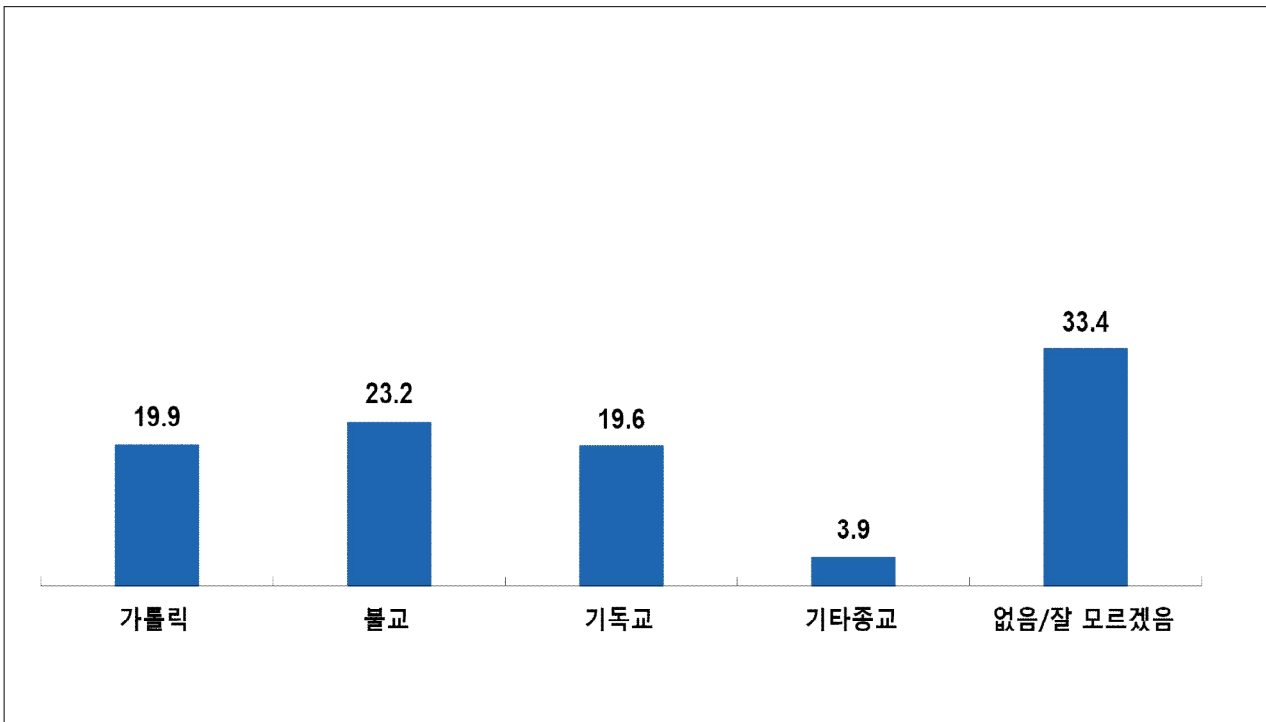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친근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감이 있는 종교를 물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와는 다르게 불교(23.2%)>가톨릭(19.9%), 기독교(19.6%) 순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와 가톨릭은 0.3%p 차이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 하지만 무종교인만을 놓고 보면 불교(20.4%)>가톨릭(16.6%)>기독교(4.2%) 순으로 2위 가톨릭과 큰 격차를 보였다.
- 연령대별로는 기독교는 '40대'에서, 불교는 40대를 제외한 '20~50대', '60대'에서는 가톨릭에 가장 높은 친근감을 보였다. 이념적 성향으로 보았을 때,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인 응답자들은 '기독교'에 가장 높은 친근감을 보였다.

[그림]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가톨릭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19.9	23.2	19.6	0.9	2.0	1.0	29.8	3.6	100.0
성별	남성	(498)	18.4	20.8	21.4	1.4	3.0	0.4	31.7	2.8	100.0
	여성	(502)	21.4	25.6	17.7	0.5	0.9	1.6	27.9	4.4	100.0
연령	20대	(159)	8.2	22.0	18.7	1.4	0.4	1.2	40.1	8.1	100.0
	30대	(149)	10.9	23.1	15.0	1.0	6.1	2.0	39.8	2.2	100.0
	40대	(186)	11.6	22.1	23.1	0.0	2.5	0.9	33.6	6.2	100.0
	50대	(197)	24.3	27.0	19.0	1.9	1.6	1.5	21.1	3.5	100.0
	60대 이상	(309)	32.5	22.2	20.4	0.7	0.7	0.2	22.7	0.5	100.0
지역	서울	(188)	20.5	21.6	26.6	1.4	2.5	0.9	22.6	3.9	100.0
	인천/경기	(319)	19.0	20.4	14.8	1.3	3.1	1.7	36.6	3.2	100.0
	대전/충청/세종	(108)	19.2	25.7	18.2	1.3	3.0	0.2	27.6	4.9	100.0
	광주/전라	(96)	22.4	32.7	16.6	1.5	1.5	0.0	19.7	5.7	100.0
	대구/경북	(150)	15.8	29.2	20.4	0.0	0.0	0.8	29.5	4.4	100.0
	부산/경남/울산	(98)	28.3	15.5	22.3	0.0	0.5	1.8	30.6	0.8	100.0
강원/제주	(41)	15.3	20.8	25.4	0.0	0.0	0.0	38.1	0.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2.2	21.7	19.8	1.3	2.6	0.9	28.8	2.7	100.0
	중소도시	(321)	18.3	26.7	18.6	0.0	0.4	1.5	29.4	5.0	100.0
	읍/면	(82)	9.9	20.3	21.5	1.7	3.5	0.0	38.0	5.1	100.0
직업	자영업	(150)	22.3	20.9	28.3	0.9	0.0	1.1	24.2	2.2	100.0
	블루칼라	(293)	17.3	21.3	19.8	1.5	4.4	2.0	30.6	3.1	100.0
	화이트칼라	(246)	20.1	25.1	15.8	0.2	1.9	0.6	32.3	4.1	100.0
	가정주부	(185)	23.9	25.6	18.9	0.5	0.9	0.4	27.4	2.3	100.0
	학생	(53)	11.7	24.5	18.9	4.1	0.0	0.0	31.6	9.2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1.1	22.4	15.4	0.4	0.9	0.4	33.5	6.0	100.0
소득수준	상	(96)	25.5	27.2	14.4	0.0	3.6	0.0	25.8	3.5	100.0
	중	(374)	23.0	23.1	20.7	1.1	0.6	1.4	26.6	3.5	100.0
	하	(507)	17.5	23.5	20.2	1.0	2.7	0.9	32.3	1.8	100.0
	무응답	(23)	0.0	2.1	7.8	0.0	2.3	0.0	42.4	45.4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0.9	19.4	32.7	0.8	3.4	0.2	20.7	1.8	100.0
	중도	(469)	20.6	22.0	14.6	0.0	1.8	1.0	36.8	3.2	100.0
	진보	(233)	18.8	33.0	16.0	3.1	1.1	2.2	23.3	2.5	100.0
	잘 모르겠음	(43)	12.6	6.8	14.8	0.0	0.0	0.0	41.0	24.8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3.4	0.0	89.9	1.2	0.9	0.4	1.6	2.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89.3	3.3	3.1	0.0	0.0	0.0	3.9	0.4	100.0
	불교	(128)	3.7	75.7	1.1	4.8	6.9	0.6	3.6	3.5	100.0
	기타 종교	(32)	0.0	37.8	8.5	0.0	41.0	12.7	0.0	0.0	100.0
	종교 없음	(547)	16.6	20.4	4.2	0.0	0.7	1.3	52.1	4.7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5.6	19.1	56.1	0.2	0.0	0.6	6.6	1.8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21.9	24.6	9.9	1.2	2.7	1.2	35.1	3.4	100.0
	잘 모르겠음	(51)	8.1	21.0	9.2	0.0	0.0	0.0	48.0	13.6	100.0

2-3. 가장 호감 가는 종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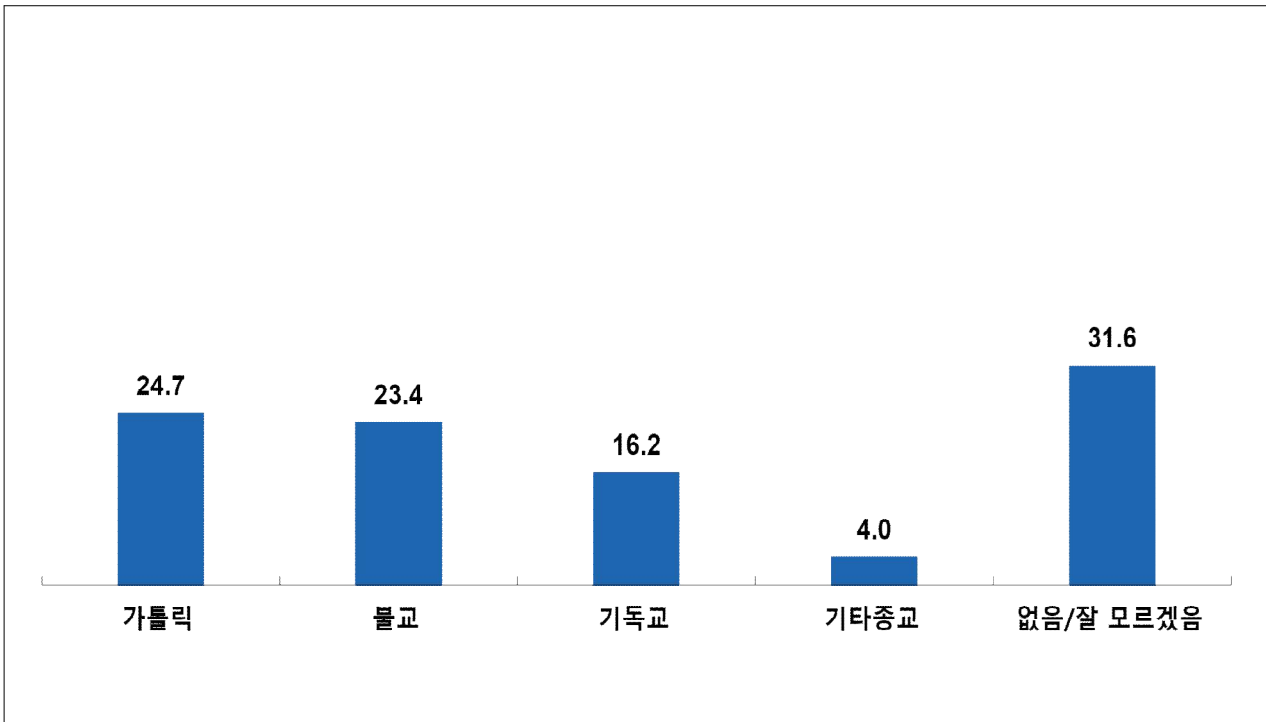
다음의 종교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 종교별로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물었다. 그 결과, 가톨릭(24.7%)>불교(23.4%)>기독교(16.2%)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톨릭과 불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기독교는 두 종교와 큰 차이를 보였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가톨릭은 소득 수준 '상'과 '중'에서, 기독교는 '중'과 '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호감을 보였다.
- 이념성향이 보수적인 응답자들은 28.2%로 기독교에 가장 호감이 있었으며 반대로, 중도,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3대 종교 중, 기독교에 가장 호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장 호감 가는 종교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가장 호감 가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가톨릭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4.7	23.4	16.2	1.2	1.5	1.3	27.3	4.3	100.0
성별	남성	(498)	23.6	22.2	18.2	2.1	2.3	2.1	26.8	2.6	100.0
	여성	(502)	25.8	24.6	14.2	0.3	0.8	0.5	27.8	5.9	100.0
연령	20대	(159)	9.9	22.7	16.4	0.8	1.5	2.2	38.3	8.2	100.0
	30대	(149)	14.4	27.0	16.1	0.0	2.9	0.8	31.8	7.0	100.0
	40대	(186)	15.5	20.7	18.6	0.9	0.6	4.0	33.4	6.2	100.0
	50대	(197)	27.7	28.4	18.4	2.0	2.0	0.0	18.7	2.8	100.0
	60대 이상	(309)	41.0	20.6	13.3	1.6	1.2	0.2	21.3	0.7	100.0
지역	서울	(188)	29.2	21.3	22.1	0.0	0.4	2.3	20.4	4.2	100.0
	인천/경기	(319)	23.0	18.5	14.9	2.0	2.3	2.0	33.1	4.3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0.2	26.7	17.3	1.6	3.2	0.0	25.7	5.2	100.0
	광주/전라	(96)	25.0	36.1	9.8	0.8	3.0	0.0	20.1	5.1	100.0
	대구/경북	(150)	23.5	26.8	14.4	2.1	0.0	1.4	26.7	5.0	100.0
	부산/경남/울산	(98)	32.5	19.6	14.5	0.0	0.7	0.0	31.2	1.6	100.0
강원/제주	(41)	15.2	30.5	21.6	0.0	0.0	0.0	28.4	4.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6.5	21.1	16.1	1.5	0.9	2.2	28.1	3.6	100.0
	중소도시	(321)	23.7	26.9	14.7	0.9	2.1	0.0	26.2	5.3	100.0
	읍/면	(82)	15.8	26.7	22.8	0.0	3.5	0.0	25.7	5.5	100.0
직업	자영업	(150)	24.9	17.1	25.5	2.3	1.5	0.0	27.5	1.2	100.0
	블루칼라	(293)	25.4	22.4	14.1	2.5	3.0	2.9	23.9	5.8	100.0
	화이트칼라	(246)	21.0	27.5	13.5	0.2	1.6	1.0	31.6	3.6	100.0
	가정주부	(185)	32.3	23.2	16.0	0.0	0.0	0.4	24.5	3.7	100.0
	학생	(53)	18.1	30.5	17.6	0.0	0.0	1.9	26.8	5.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19.8	22.2	14.3	1.1	0.7	0.4	33.8	7.6	100.0
소득수준	상	(96)	32.7	22.2	10.5	0.0	3.9	1.9	25.4	3.5	100.0
	중	(374)	29.6	21.5	16.5	1.8	1.7	0.7	24.8	3.2	100.0
	하	(507)	20.6	26.1	17.4	1.0	1.0	1.5	29.1	3.2	100.0
	무응답	(23)	3.3	2.1	7.8	0.0	0.0	2.3	36.0	48.5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5.5	23.0	28.2	0.0	2.1	1.5	18.7	1.0	100.0
	중도	(469)	25.7	22.0	11.4	1.1	1.0	0.3	33.9	4.7	100.0
	진보	(233)	25.3	28.9	14.1	2.6	2.4	3.2	20.1	3.5	100.0
	잘 모르겠음	(43)	7.1	12.8	9.7	1.8	0.0	0.0	45.1	23.6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9.9	0.0	72.3	0.0	0.1	0.4	5.6	1.8	100.0
	천주교(가톨릭)	(108)	87.0	5.8	0.6	0.0	0.0	0.5	5.3	0.8	100.0
	불교	(128)	10.4	62.1	3.6	4.5	5.6	5.9	4.1	3.8	100.0
	기타 종교	(32)	0.0	37.8	1.3	21.2	36.7	3.0	0.0	0.0	100.0
	종교 없음	(547)	18.4	24.0	4.0	0.6	0.6	0.4	45.9	6.0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27.2	21.7	45.9	0.1	0.3	0.6	2.4	1.8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24.9	24.6	8.3	1.6	2.0	1.6	33.5	3.5	100.0
	잘 모르겠음	(51)	11.7	13.5	8.2	0.0	0.0	0.0	40.0	26.5	100.0

3. 종교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종교별 비교 인식

3-1.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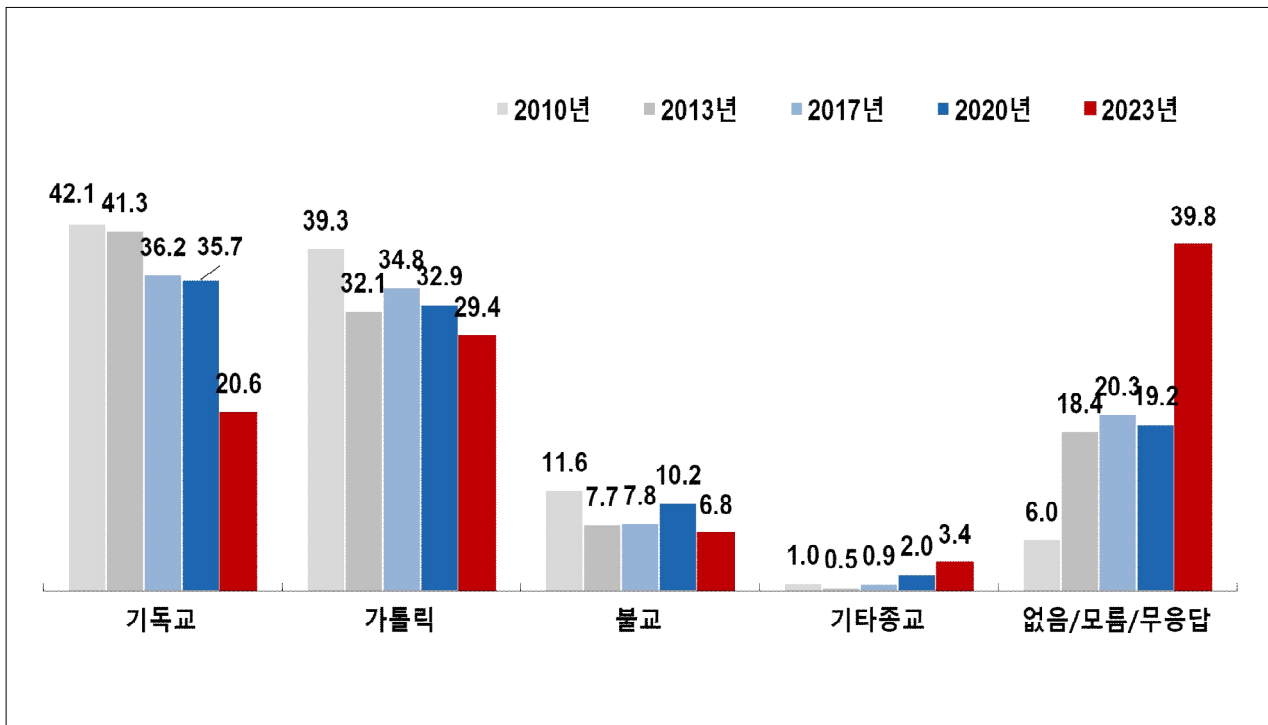
다음 중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양적인 측면에서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질문한 결과, 기독교는 2020년에 35.7%에서 20.6%로 약 15.1%p가량 하락하여 가톨릭에 이어 2순위로 응답 되었다. 기타 종교를 제외한 3대 종교들에 대한 사회봉사 수행 인식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 특이점은 20대는 '기독교'를 가장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 보고 있다.

[그림]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N=1000, %)



[표]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0.6	29.4	6.8	1.3	1.6	0.5	22.4	17.4	100.0
성별	남성	(498)	22.4	28.3	6.7	1.9	2.5	0.8	23.3	14.1	100.0
	여성	(502)	18.7	30.6	6.9	0.7	0.7	0.2	21.5	20.7	100.0
연령	20대	(159)	22.8	14.6	6.2	0.9	2.3	2.5	29.6	21.1	100.0
	30대	(149)	18.2	22.2	5.6	4.2	0.6	0.4	30.3	18.6	100.0
	40대	(186)	22.1	23.9	4.5	0.2	4.5	0.0	30.9	13.8	100.0
	50대	(197)	20.3	38.4	9.2	1.4	0.0	0.0	12.3	18.6	100.0
	60대 이상	(309)	19.8	38.2	7.7	0.6	1.1	0.1	16.2	16.3	100.0
지역	서울	(188)	26.1	27.8	7.1	0.3	3.3	1.4	19.8	14.2	100.0
	인천/경기	(319)	18.7	26.7	6.4	1.6	2.7	0.4	20.9	22.6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4.8	29.4	7.3	3.1	0.0	0.0	25.2	10.2	100.0
	광주/전라	(96)	17.5	36.2	11.3	1.5	1.5	0.0	14.7	17.1	100.0
	대구/경북	(150)	22.0	30.4	3.3	0.7	0.0	0.8	28.3	14.6	100.0
	부산/경남/울산	(98)	14.7	31.9	6.1	1.0	0.0	0.0	27.4	18.8	100.0
	강원/제주	(41)	14.4	33.0	11.1	0.0	0.0	0.0	22.7	18.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1.0	28.2	6.6	1.7	2.7	0.8	23.3	15.6	100.0
	중소도시	(321)	18.4	31.0	8.1	0.2	0.0	0.0	22.5	20.0	100.0
	읍/면	(82)	26.2	32.0	3.5	2.2	0.0	0.0	15.2	20.9	100.0
직업	자영업	(150)	29.3	26.9	1.1	1.4	0.0	0.0	22.7	18.6	100.0
	블루칼라	(293)	20.3	29.9	10.1	1.8	3.6	0.4	19.6	14.3	100.0
	화이트칼라	(246)	20.8	28.2	6.5	1.3	1.4	0.4	25.2	16.2	100.0
	가정주부	(185)	15.4	34.1	8.6	0.0	0.5	0.0	20.5	20.9	100.0
	학생	(53)	26.3	18.5	4.2	2.8	2.8	4.1	21.0	20.3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11.5	33.0	3.7	1.0	0.0	0.9	29.2	20.7	100.0
소득수준	상	(96)	19.8	23.8	9.3	1.5	0.3	0.0	22.3	23.0	100.0
	중	(374)	24.2	32.4	8.1	1.4	1.1	1.2	20.4	11.3	100.0
	하	(507)	18.7	29.4	5.6	1.2	2.3	0.1	24.6	18.2	100.0
	무응답	(23)	4.8	6.8	2.3	0.0	2.3	0.0	7.2	76.6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1.1	32.6	4.1	0.4	3.0	0.0	14.5	14.4	100.0
	중도	(469)	16.4	31.1	5.9	1.7	0.3	0.2	26.1	18.3	100.0
	진보	(233)	19.3	25.6	11.0	1.6	3.1	1.7	21.3	16.3	100.0
	잘 모르겠음	(43)	10.6	13.3	9.9	0.0	0.0	0.0	34.7	31.5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63.3	16.3	0.8	0.5	0.0	1.4	4.0	13.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3.2	62.9	3.4	1.7	4.4	0.0	4.6	9.7	100.0
	불교	(128)	12.1	26.0	22.1	5.6	6.0	1.0	7.6	19.7	100.0
	기타 종교	(32)	0.0	46.3	0.0	0.0	3.0	0.0	18.4	32.3	100.0
	종교 없음	(547)	10.2	27.9	5.4	0.2	0.4	0.2	36.3	19.4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55.3	22.7	7.2	0.5	3.0	0.1	4.0	7.3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11.9	32.1	7.0	1.6	1.4	0.6	26.5	18.9	100.0
	잘 모르겠음	(51)	3.1	18.1	2.4	0.0	0.0	0.0	38.9	37.5	100.0

3-2.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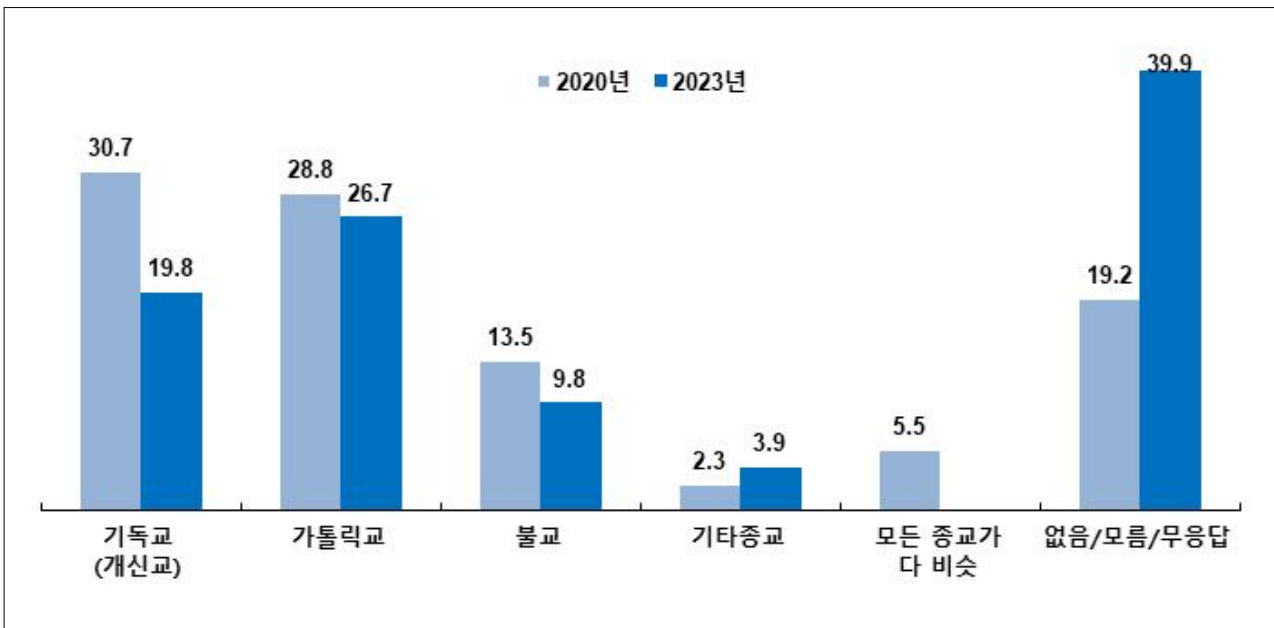
다음 중 어느 종교의 사회봉사활동이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이번에는 봉사의 절대적인 양과 상관없이 질적으로 어떤 종교의 봉사가 가장 한국사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 물었다. 2020년에는 기독교(30.7%)>가톨릭(28.8%)>불교(13.5%) 순으로 응답하였지만, 2023년에는 가톨릭이 기독교를 넘어 가톨릭(26.7%)>기독교(19.8%)>불교(9.8%) 순으로 응답되었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40대'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은 기독교를 가장 도움이 된다고 꼽았다. 반면에, 무종교인들은 '가톨릭'(25.5%)을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8%대로 비슷하게 응답했다.

[그림]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N=1000, %)



*2023년 보기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비슷' 문항을 제외하여 조사하였음.

[표]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19.8	26.7	9.8	2.0	0.9	1.0	20.3	19.5	100.0
성별	남성	(498)	22.5	25.2	8.3	3.0	1.3	1.1	23.1	15.5	100.0
	여성	(502)	17.1	28.2	11.3	1.0	0.4	0.8	17.6	23.6	100.0
연령	20대	(159)	13.8	12.5	12.2	3.3	0.5	2.9	30.3	24.4	100.0
	30대	(149)	19.2	20.5	5.3	3.9	1.0	0.9	28.4	20.7	100.0
	40대	(186)	25.3	19.3	9.3	1.8	0.1	0.0	28.1	16.0	100.0
	50대	(197)	20.5	32.3	11.1	0.7	1.4	1.0	10.5	22.6	100.0
	60대 이상	(309)	19.4	37.9	10.2	1.4	1.1	0.6	12.8	16.7	100.0
지역	서울	(188)	22.5	25.0	14.0	2.1	0.0	0.0	15.7	20.7	100.0
	인천/경기	(319)	15.4	27.9	7.1	3.7	2.5	0.6	19.5	23.3	100.0
	대전/충청/세종	(108)	19.6	31.7	7.9	3.3	0.9	2.5	22.1	11.9	100.0
	광주/전라	(96)	22.4	18.7	22.0	0.8	0.0	3.1	17.4	15.7	100.0
	대구/경북	(150)	25.6	23.4	5.9	0.0	0.0	1.4	25.1	18.6	100.0
	부산/경남/울산	(98)	19.3	31.9	4.8	0.0	0.0	0.0	25.2	18.8	100.0
강원/제주	(41)	15.6	30.4	13.9	0.0	0.0	0.0	20.7	19.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19.7	24.7	11.0	1.9	1.4	1.2	20.4	19.8	100.0
	중소도시	(321)	18.3	29.6	7.8	2.3	0.2	0.8	20.7	20.3	100.0
	읍/면	(82)	26.2	30.0	8.5	1.7	0.0	0.0	18.4	15.2	100.0
직업	자영업	(150)	26.5	26.3	2.9	2.4	0.0	1.2	21.0	19.8	100.0
	블루칼라	(293)	18.1	27.9	13.9	4.0	2.1	0.4	17.2	16.5	100.0
	화이트칼라	(246)	18.6	26.1	7.8	0.7	0.8	0.7	25.5	19.7	100.0
	가정주부	(185)	20.8	29.6	10.6	0.0	0.0	0.5	13.9	24.7	100.0
	학생	(53)	16.9	16.0	19.6	4.2	0.0	5.6	25.2	12.6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16.3	25.4	4.7	1.3	0.9	1.6	26.6	23.2	100.0
소득수준	상	(96)	14.2	25.2	13.1	0.9	0.3	1.5	17.4	27.4	100.0
	중	(374)	23.8	30.0	7.4	2.1	0.5	1.7	20.7	13.9	100.0
	하	(507)	18.6	25.5	11.4	2.3	1.3	0.4	21.1	19.4	100.0
	무응답	(23)	3.7	5.8	0.0	0.0	0.0	0.0	7.2	83.2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0.3	28.1	8.6	1.3	1.3	0.4	14.4	15.6	100.0
	중도	(469)	16.0	27.4	9.8	1.8	0.4	0.4	24.0	20.2	100.0
	진보	(233)	18.3	27.1	11.3	3.4	1.6	2.8	17.0	18.4	100.0
	잘 모르겠음	(43)	6.8	8.7	8.6	1.8	0.0	0.0	32.7	41.4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69.7	13.2	0.6	0.0	0.5	0.0	2.5	13.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7.2	62.1	10.5	0.5	3.1	0.9	3.2	12.4	100.0
	불교	(128)	9.2	21.5	27.6	10.5	2.0	4.6	4.2	20.4	100.0
	기타 종교	(32)	1.3	43.5	0.0	8.5	3.0	0.0	12.7	31.0	100.0
	종교 없음	(547)	8.6	25.5	8.0	0.6	0.2	0.3	34.3	22.6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50.5	21.2	10.5	0.5	1.7	1.2	4.5	9.9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12.1	29.1	9.8	2.6	0.7	1.0	24.9	19.9	100.0
	잘 모르겠음	(51)	4.7	14.4	7.2	0.0	0.0	0.0	18.9	54.8	100.0

3-3. 한국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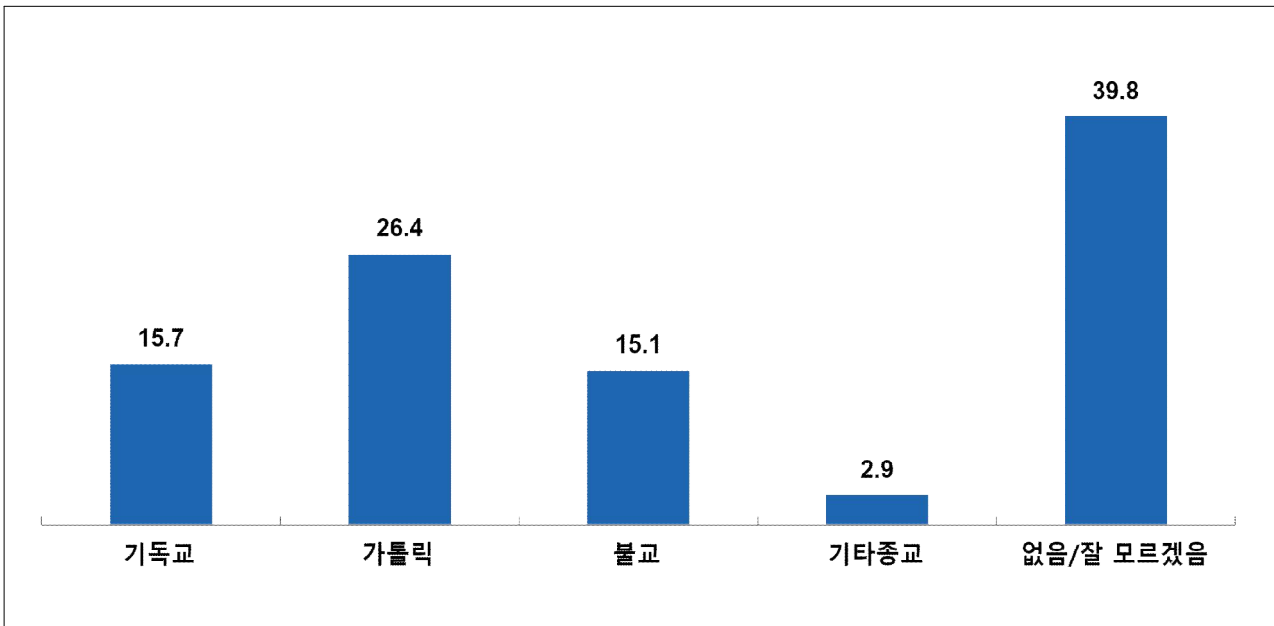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아 한국 사회에 가장 긍정적 기여를 하는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을 통틀어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종교는 어느 종교인지 물었다. 가톨릭이 26.4%로 1순위로 응답 되었고, 기독교 15.7%, 불교 15.1%로 두 종교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 무종교인을 놓고 보면 가톨릭(23.6%)이 가장 높았고, 불교가 14.9%였으며 기독교는 5.1%로 앞의 두 종교 보다 많이 낮았다.

[그림] 한국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15.7	26.4	15.1	0.8	1.0	1.0	24.1	15.7	100.0
성별	남성	(498)	17.6	24.4	15.5	1.1	1.2	1.9	25.7	12.4	100.0
	여성	(502)	13.9	28.4	14.8	0.4	0.9	0.1	22.5	19.1	100.0
연령	20대	(159)	14.5	12.7	14.7	1.5	0.4	2.4	30.2	23.5	100.0
	30대	(149)	15.6	12.1	13.3	0.4	1.2	4.3	34.7	18.5	100.0
	40대	(186)	19.6	24.0	10.1	1.8	1.1	0.0	27.4	15.4	100.0
	50대	(197)	13.5	34.8	18.1	0.1	2.4	0.0	21.0	10.1	100.0
	60대 이상	(309)	15.4	36.4	17.4	0.4	0.4	0.0	15.8	14.2	100.0
지역	서울	(188)	18.2	27.5	17.0	1.9	0.6	1.2	17.9	15.7	100.0
	인천/경기	(319)	16.6	26.8	10.1	0.2	1.9	2.2	24.2	18.1	100.0
	대전/충청/세종	(108)	13.9	24.0	17.6	3.3	0.0	0.0	24.6	15.6	100.0
	광주/전라	(96)	16.6	21.7	27.5	0.0	1.3	0.0	18.6	14.3	100.0
	대구/경북	(150)	12.4	24.7	15.6	0.0	0.0	0.8	32.1	14.4	100.0
	부산/경남/울산	(98)	14.1	34.3	10.9	0.0	2.0	0.0	26.8	12.0	100.0
	강원/제주	(41)	16.6	22.6	18.8	0.0	0.0	0.0	26.9	15.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16.1	27.4	15.8	0.6	1.0	1.7	22.8	14.5	100.0
	중소도시	(321)	13.6	26.3	14.0	0.9	0.4	0.0	25.1	19.4	100.0
	읍/면	(82)	21.5	19.3	14.4	1.7	4.0	0.0	29.1	10.0	100.0
직업	자영업	(150)	19.3	31.0	6.8	2.4	0.0	0.0	23.3	17.2	100.0
	블루칼라	(293)	16.3	24.1	20.6	1.1	1.0	2.2	22.0	12.7	100.0
	화이트칼라	(246)	14.3	23.6	14.3	0.3	1.5	0.5	29.2	15.8	100.0
	가정주부	(185)	15.5	33.5	13.0	0.0	1.2	0.0	17.5	19.3	100.0
	학생	(53)	16.9	15.3	20.5	0.0	0.0	4.1	34.8	8.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10.8	25.4	14.3	0.3	2.1	0.4	25.6	21.1	100.0
소득수준	상	(96)	10.8	32.7	15.3	0.0	4.0	0.6	20.0	16.6	100.0
	중	(374)	18.6	28.6	16.1	1.2	0.6	1.2	21.5	12.2	100.0
	하	(507)	14.9	24.7	15.1	0.6	0.8	1.0	26.8	15.8	100.0
	무응답	(23)	6.1	1.0	0.0	0.0	0.0	0.0	23.1	69.8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2.0	27.7	16.7	1.6	1.3	0.0	18.2	12.5	100.0
	중도	(469)	14.7	24.4	14.1	0.5	0.4	1.3	27.3	17.0	100.0
	진보	(233)	12.5	32.1	18.0	0.6	1.7	1.7	22.4	11.0	100.0
	잘 모르겠음	(43)	7.4	9.5	2.6	0.0	1.8	0.0	32.7	46.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59.5	17.1	1.7	0.0	0.6	1.2	4.2	15.8	100.0
	천주교(가톨릭)	(108)	7.1	65.8	10.4	0.0	1.6	0.0	1.7	13.4	100.0
	불교	(128)	5.3	20.9	36.9	5.0	1.6	4.8	10.3	15.4	100.0
	기타 종교	(32)	37.8	5.7	0.0	0.0	42.5	0.0	12.7	1.3	100.0
	종교 없음	(547)	5.1	23.6	14.9	0.0	0.2	0.2	39.3	16.5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43.0	26.3	15.4	0.3	0.4	0.4	4.0	10.2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8.6	27.4	15.2	1.0	1.3	1.3	29.8	15.4	100.0
	잘 모르겠음	(51)	7.2	11.9	14.0	0.0	0.0	0.0	23.1	43.8	100.0

4. 한국교회 평가

4-1. 한국교회의 교회 밖 비판 수용 준비 정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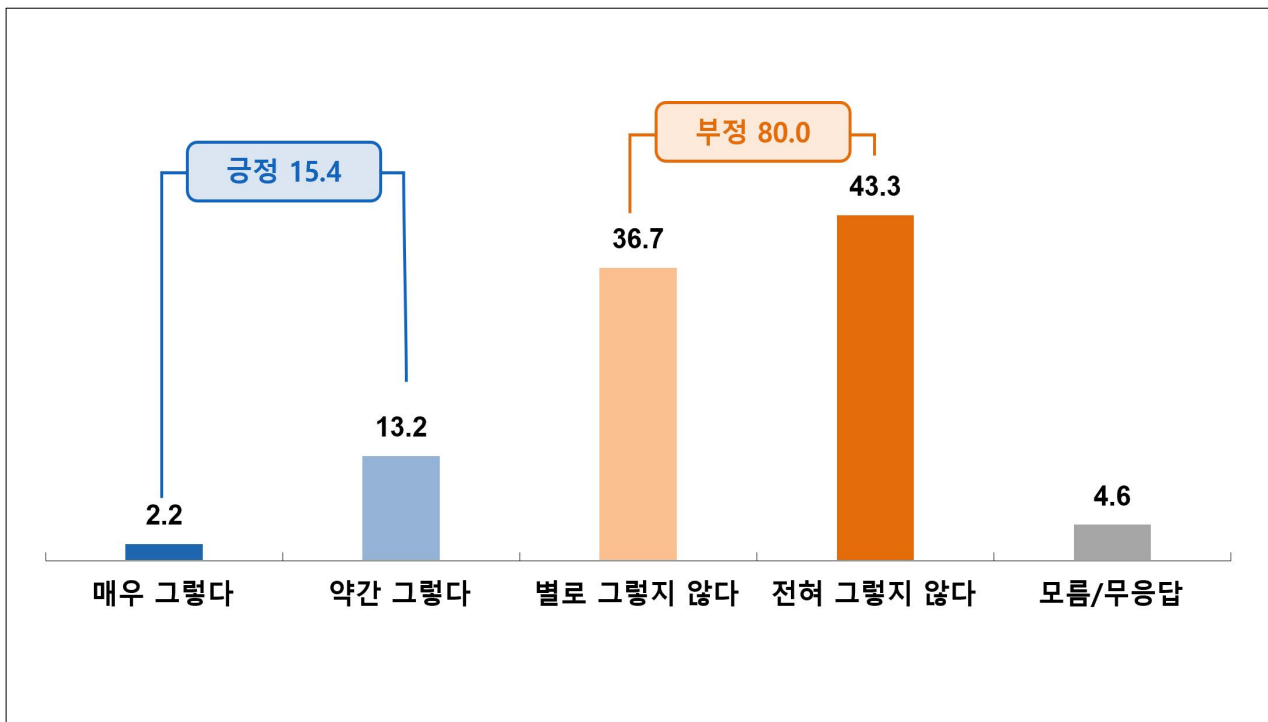
한국교회는 교회 밖의 비판 여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현재 한국교회가 교회 밖 비판 수용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다. '준비되었다(매우+약간) 15.4%', '준비되지 않았다' 80.0%(별로+전혀)로 5명 중 4명은 한국교회가 아직 교회 밖의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이 한국교회가 사회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조차도 과반수 이상(55.3%)이 한국교회가 교회 밖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소득수준 '상'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91.6%로 특히 높았다.

[그림] 한국교회의 교회 밖 비판 수용 준비 정도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교회의 교회 밖 비판 수용 준비 정도(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2	13.2	36.7	43.3	15.4	80.0	4.6	100.0
성별	남성	(498)	3.4	11.9	38.0	44.4	15.4	82.3	2.3	100.0
	여성	(502)	1.0	14.5	35.4	42.2	15.5	77.6	6.8	100.0
연령	20대	(159)	3.1	11.0	44.4	32.2	14.0	76.6	9.4	100.0
	30대	(149)	0.3	13.5	30.7	46.3	13.8	77.1	9.1	100.0
	40대	(186)	2.6	15.0	37.2	43.3	17.6	80.4	1.9	100.0
	50대	(197)	2.8	10.3	31.4	53.9	13.1	85.3	1.7	100.0
	60대 이상	(309)	2.1	15.1	38.7	40.8	17.2	79.5	3.3	100.0
지역	서울	(188)	1.9	21.2	43.0	31.1	23.1	74.1	2.8	100.0
	인천/경기	(319)	3.5	9.8	36.3	43.9	13.3	80.3	6.5	100.0
	대전/충청/세종	(108)	0.0	12.1	33.5	49.8	12.1	83.3	4.6	100.0
	광주/전라	(96)	3.3	18.4	31.1	42.3	21.7	73.3	5.0	100.0
	대구/경북	(150)	1.2	14.5	39.9	43.7	15.7	83.6	0.7	100.0
	부산/경남/울산	(98)	2.3	7.9	24.6	57.9	10.2	82.5	7.3	100.0
	강원/제주	(41)	0.5	2.9	49.6	42.8	3.4	92.4	4.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1	14.5	39.0	40.5	16.6	79.5	3.8	100.0
	중소도시	(321)	2.9	9.7	33.2	49.3	12.6	82.5	4.9	100.0
	읍/면	(82)	0.0	18.0	33.4	39.8	18.0	73.3	8.7	100.0
직업	자영업	(150)	2.2	11.7	41.3	43.0	13.9	84.3	1.8	100.0
	블루칼라	(293)	3.1	16.9	32.1	42.1	20.0	74.3	5.7	100.0
	화이트칼라	(246)	0.9	9.9	35.5	51.2	10.7	86.7	2.5	100.0
	가정주부	(185)	1.8	13.7	36.2	43.8	15.5	80.0	4.5	100.0
	학생	(53)	7.5	17.1	45.1	20.0	24.6	65.0	10.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0.3	8.9	45.1	37.2	9.3	82.4	8.4	100.0
소득수준	상	(96)	1.1	6.1	32.9	58.7	7.2	91.6	1.2	100.0
	중	(374)	2.8	16.3	39.8	36.9	19.1	76.8	4.2	100.0
	하	(507)	2.1	13.0	34.5	46.6	15.0	81.1	3.9	100.0
	무응답	(23)	0.0	0.0	50.6	8.5	0.0	59.1	40.9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2	25.3	38.8	31.3	28.5	70.1	1.4	100.0
	중도	(469)	1.6	9.6	38.8	44.9	11.2	83.7	5.1	100.0
	진보	(233)	2.0	8.9	32.9	54.9	10.9	87.8	1.3	100.0
	잘 모르겠음	(43)	4.1	5.0	22.2	34.1	9.1	56.3	34.6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8.8	33.0	36.4	18.9	41.8	55.3	2.9	100.0
	천주교(가톨릭)	(108)	0.8	17.1	30.7	50.4	17.9	81.1	1.0	100.0
	불교	(128)	0.2	12.2	39.2	45.3	12.4	84.5	3.1	100.0
	기타 종교	(32)	0.0	9.8	40.7	49.4	9.8	90.2	0.0	100.0
	종교 없음	(547)	0.8	6.1	37.2	49.5	6.9	86.7	6.3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8.5	43.2	31.8	15.4	51.7	47.2	1.2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6	5.5	38.3	53.0	6.1	91.3	2.7	100.0
	잘 모르겠음	(51)	0.0	2.1	34.0	17.2	2.1	51.2	46.7	100.0

4-2.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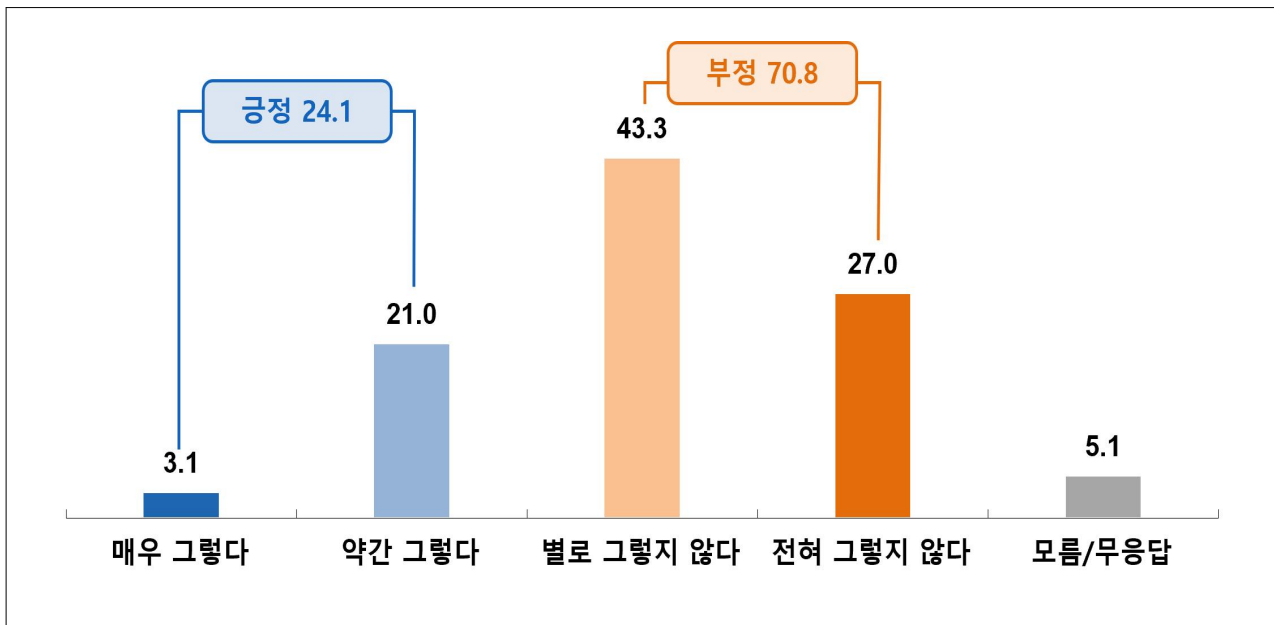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여하고 있다'(매우+약간) 24.1%, '기여하고 있지 않다'(별로+전혀) 70.8%로 응답했다. 긍정적 응답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약 3배 가까이 높았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았을 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의 응답이 높아졌으며,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긍정의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띠었다.
- 부정적 평가가 높은 응답자는 남성(73.3%)이었으며, 이념적 진보층(85.3%)이었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N=1000, %)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임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1	21.0	43.8	27.0	24.1	70.8	5.1	100.0
성별	남성	(498)	3.1	19.9	48.2	25.1	23.0	73.3	3.7	100.0
	여성	(502)	3.1	22.0	39.5	28.9	25.1	68.4	6.5	100.0
연령	20대	(159)	0.4	16.9	50.7	20.8	17.3	71.5	11.2	100.0
	30대	(149)	1.8	15.5	40.4	36.5	17.3	77.0	5.7	100.0
	40대	(186)	2.9	21.7	40.7	30.2	24.5	70.9	4.6	100.0
	50대	(197)	3.8	21.3	44.5	26.9	25.1	71.4	3.5	100.0
	60대 이상	(309)	4.7	25.1	43.4	23.7	29.8	67.1	3.1	100.0
지역	서울	(188)	1.1	23.9	48.4	21.4	24.9	69.8	5.3	100.0
	인천/경기	(319)	3.6	20.4	44.7	25.8	24.0	70.5	5.5	100.0
	대전/충청/세종	(108)	3.4	17.5	40.5	31.5	20.9	71.9	7.1	100.0
	광주/전라	(96)	5.6	23.9	42.6	24.7	29.5	67.3	3.1	100.0
	대구/경북	(150)	0.8	22.2	43.2	31.5	23.0	74.8	2.3	100.0
	부산/경남/울산	(98)	3.7	18.3	39.6	33.2	22.0	72.8	5.2	100.0
	강원/제주	(41)	8.1	16.2	40.2	24.4	24.3	64.7	11.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6	20.4	46.8	26.0	23.0	72.8	4.2	100.0
	중소도시	(321)	3.2	21.2	42.4	28.1	24.4	70.5	5.1	100.0
	읍/면	(82)	6.2	24.3	27.5	30.1	30.6	57.6	11.9	100.0
직업	자영업	(150)	2.4	17.3	47.3	28.5	19.7	75.8	4.5	100.0
	블루칼라	(293)	2.7	21.8	43.0	28.7	24.5	71.7	3.8	100.0
	화이트칼라	(246)	2.9	21.2	43.7	30.4	24.1	74.0	1.9	100.0
	가정주부	(185)	5.2	23.1	37.1	27.5	28.3	64.7	7.0	100.0
	학생	(53)	0.0	21.0	58.5	6.1	21.0	64.6	14.5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3.4	19.3	46.8	19.7	22.6	66.4	10.9	100.0
소득수준	상	(96)	3.3	23.5	36.4	35.6	26.8	72.0	1.2	100.0
	중	(374)	2.7	26.6	42.2	23.5	29.3	65.7	5.0	100.0
	하	(507)	3.4	17.0	47.0	28.7	20.5	75.6	3.9	100.0
	무응답	(23)	0.0	5.6	32.6	10.8	5.6	43.4	51.0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8.8	28.9	38.5	21.3	37.6	59.8	2.6	100.0
	중도	(469)	1.1	22.2	43.1	27.1	23.3	70.2	6.4	100.0
	진보	(233)	1.3	12.2	52.9	32.4	13.5	85.3	1.2	100.0
	잘 모르겠음	(43)	0.0	8.5	33.6	31.2	8.5	64.7	26.8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4.3	44.3	32.5	6.1	58.6	38.6	2.8	100.0
	천주교(가톨릭)	(108)	2.0	28.9	37.3	28.3	31.0	65.6	3.5	100.0
	불교	(128)	0.0	14.9	45.1	32.8	14.9	77.9	7.3	100.0
	기타 종교	(32)	0.0	1.3	29.9	68.8	1.3	98.7	0.0	100.0
	종교 없음	(547)	0.4	13.5	48.8	31.6	13.9	80.4	5.7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4.4	55.0	24.6	5.9	69.3	30.5	0.2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1	11.7	50.9	33.5	11.8	84.4	3.8	100.0
	잘 모르겠음	(51)	0.0	15.7	19.9	19.3	15.7	39.3	45.0	100.0

4-3.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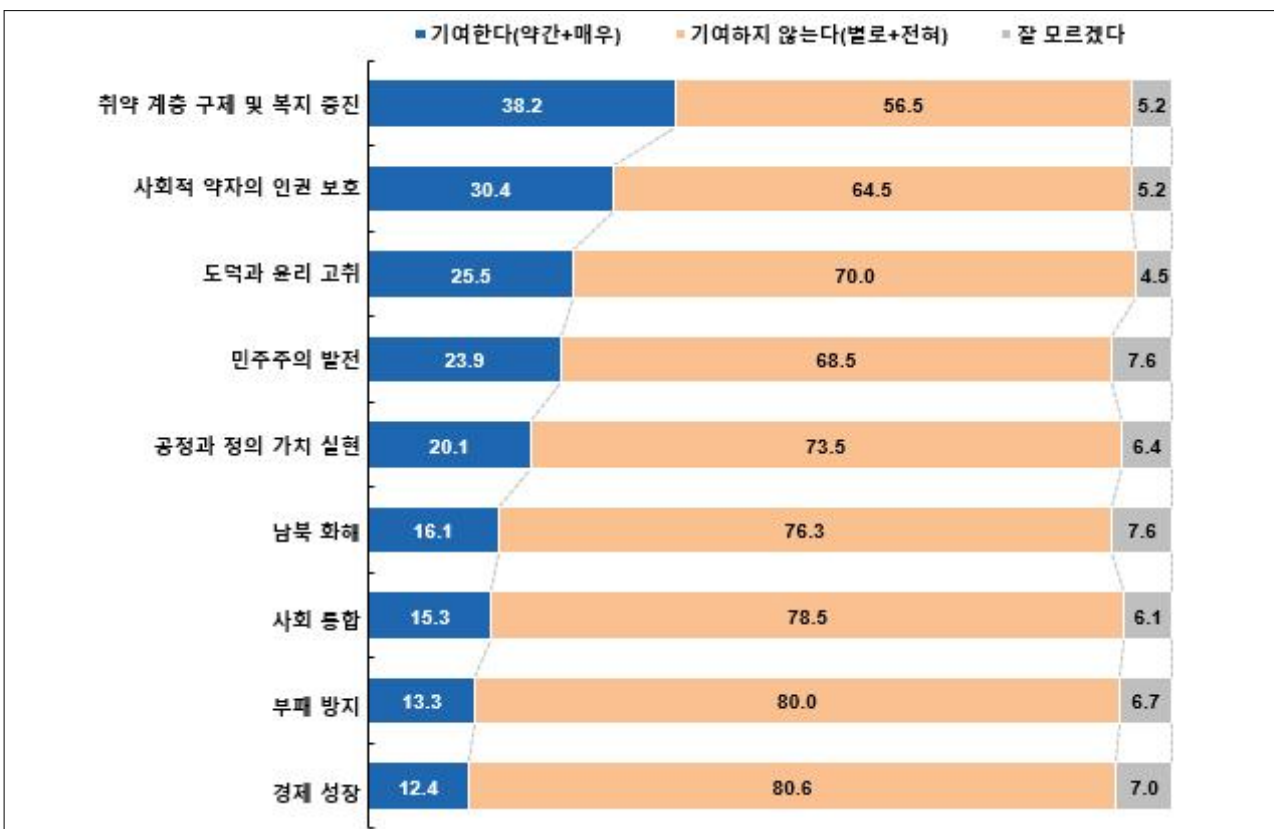
그러면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지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하나만)



-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속성별로 물었다. '취약 계층 구제 및 복지 증진'(38.2%)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30.4%), '도덕과 윤리 고취'(25.5%)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부패 방지'(13.3%), '사회 통합'(15.3%), '남북 화해'(16.1%)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전체적으로는 '기여하지 않는다'(별로+전혀)의 응답이 '기여한다'(약간+매우)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래도, 1순위, 2순위를 종합해보면 복지 및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활동을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부패 방지, 사회 통합 등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

(N=1000, %)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0) 종합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취약 계층 구제/ 복지 증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도덕과 윤리 고취	민주 주의 발전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	남북 화해	사회 통합	부패 방지	경제 성장
전체		(1000)	38.2	30.4	25.5	23.9	20.1	16.1	15.3	13.3	12.4
성별	남성	(498)	38.9	28.9	27.0	29.3	19.8	16.6	15.6	13.1	11.5
	여성	(502)	37.5	31.8	24.0	18.5	20.5	15.7	15.0	13.5	13.3
연령	20대	(159)	27.4	25.4	25.5	26.5	14.9	20.7	20.4	12.6	15.3
	30대	(149)	32.7	22.2	19.9	20.6	17.7	10.1	12.8	12.0	10.3
	40대	(186)	39.3	31.0	22.2	23.3	16.8	15.1	18.5	12.1	16.0
	50대	(197)	36.7	28.5	25.2	22.6	21.0	16.6	12.5	13.7	9.3
	60대 이상	(309)	46.7	37.6	30.4	25.3	25.4	17.0	13.7	14.7	11.7
지역	서울	(188)	41.3	35.8	37.1	26.4	26.2	27.5	20.1	16.8	8.9
	인천/경기	(319)	35.5	27.7	22.0	22.8	15.8	13.4	13.5	8.8	10.4
	대전/충청/세종	(108)	34.0	22.9	19.8	19.3	14.7	13.9	15.0	14.9	14.9
	광주/전라	(96)	46.2	31.9	27.2	29.8	20.3	20.3	16.6	18.5	19.9
	대구/경북	(150)	41.1	35.7	25.8	25.6	24.8	9.8	15.6	16.9	15.2
	부산/경남/울산	(98)	35.8	26.7	15.9	20.8	20.0	13.8	11.2	8.0	10.9
	강원/제주	(41)	33.1	30.8	32.3	19.6	23.5	10.6	14.3	14.7	12.8
지역 크기	대도시	(597)	38.8	29.7	26.4	24.3	22.0	17.7	17.4	13.5	11.7
	중소도시	(321)	38.2	31.0	23.8	23.1	17.3	13.4	11.0	11.3	12.4
	읍/면	(82)	33.8	32.4	25.1	23.9	17.5	16.0	16.6	19.0	17.1
직업	자영업	(150)	36.7	31.1	24.1	29.2	22.4	22.4	16.8	23.0	10.6
	블루칼라	(293)	39.6	32.2	30.4	25.6	22.4	16.5	14.8	9.3	12.3
	화이트칼라	(246)	38.3	31.2	21.7	22.7	18.3	12.0	16.8	13.6	13.7
	가정주부	(185)	38.8	31.6	24.7	18.5	19.7	15.2	11.8	12.9	11.0
	학생	(53)	33.8	18.5	28.6	30.5	20.1	33.7	27.9	12.9	20.2
	무직/기타/무응답	(73)	37.1	24.2	21.1	19.1	13.7	5.5	8.9	9.2	10.0
소득수준	상	(96)	38.7	32.9	27.3	17.1	21.5	12.7	12.6	14.5	12.0
	중	(374)	43.9	34.7	27.8	27.5	24.0	20.3	18.3	17.7	16.8
	하	(507)	35.3	26.5	24.5	23.0	17.9	14.2	14.3	10.2	8.9
	무응답	(23)	5.8	33.9	0.0	12.4	0.0	6.3	0.0	3.7	18.0
이념성향	보수	(255)	47.4	39.2	37.5	39.7	32.3	21.9	31.4	19.5	19.8
	중도	(469)	38.5	29.9	23.4	19.7	17.4	15.1	10.4	10.7	10.6
	진보	(233)	31.3	23.8	19.1	18.2	14.9	14.5	9.9	13.6	8.1
	잘 모르겠음	(43)	18.6	18.9	11.7	6.8	6.8	2.6	3.3	2.6	11.2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75.0	63.1	67.5	55.2	55.7	39.4	44.7	40.2	32.9
	천주교(가톨릭)	(108)	50.2	34.9	26.9	26.8	27.8	26.9	13.3	14.5	13.7
	불교	(128)	25.5	23.2	14.0	20.0	13.8	13.9	8.5	10.9	8.3
	기타 종교	(32)	9.8	1.3	9.8	1.3	1.3	1.3	39.1	1.3	8.5
	종교 없음	(547)	27.3	20.8	14.4	14.1	8.6	7.0	7.2	4.8	6.3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72.1	68.0	74.2	55.4	59.9	46.6	53.0	39.5	32.4
	신뢰하지 않음	(740)	29.7	19.8	12.5	15.7	9.9	8.4	5.4	6.5	6.8
	잘 모르겠음	(51)	21.6	28.2	12.8	13.0	5.1	3.8	4.5	3.3	10.8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1) 취약 계층 구제 및 복지 증진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 한다	약간 기여 한다	별로 기여 한게 없다	전혀 기여 한게없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1.3	35.3	32.8	5.4	38.2	56.5	5.2	100.0
성별	남성	(498)	21.9	34.3	32.5	6.4	38.9	56.2	4.8	100.0
	여성	(502)	20.6	36.3	33.1	4.4	37.5	56.9	5.7	100.0
연령	20대	(159)	25.2	37.5	23.9	3.5	27.4	62.7	9.9	100.0
	30대	(149)	26.8	37.4	30.7	2.0	32.7	64.2	3.0	100.0
	40대	(186)	21.5	34.9	32.1	7.1	39.3	56.4	4.3	100.0
	50대	(197)	24.0	35.9	32.4	4.3	36.7	59.9	3.4	100.0
	60대 이상	(309)	14.6	33.0	39.1	7.6	46.7	47.6	5.7	100.0
지역	서울	(188)	16.4	38.6	37.4	3.9	41.3	55.0	3.7	100.0
	인천/경기	(319)	19.4	38.8	27.9	7.5	35.5	58.2	6.3	100.0
	대전/충청/세종	(108)	32.2	29.5	30.7	3.4	34.0	61.8	4.2	100.0
	광주/전라	(96)	15.3	35.4	41.1	5.1	46.2	50.7	3.1	100.0
	대구/경북	(150)	23.7	31.0	34.7	6.4	41.1	54.6	4.3	100.0
	부산/경남/울산	(98)	25.4	27.3	31.2	4.5	35.8	52.7	11.6	100.0
	강원/제주	(41)	24.1	42.8	33.1	0.0	33.1	66.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18.5	38.2	34.6	4.2	38.8	56.8	4.5	100.0
	중소도시	(321)	22.6	32.0	33.0	5.2	38.2	54.6	7.2	100.0
	읍/면	(82)	35.8	26.9	19.1	14.6	33.8	62.7	3.5	100.0
직업	자영업	(150)	10.4	44.4	34.3	2.4	36.7	54.8	8.5	100.0
	블루칼라	(293)	21.2	35.6	32.1	7.5	39.6	56.8	3.6	100.0
	화이트칼라	(246)	26.5	32.3	34.7	3.6	38.3	58.9	2.9	100.0
	가정주부	(185)	23.3	31.9	31.5	7.3	38.8	55.2	6.0	100.0
	학생	(53)	20.3	39.9	25.5	8.3	33.8	60.2	6.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1.5	30.6	35.1	1.9	37.1	52.1	10.8	100.0
소득수준	상	(96)	23.0	34.1	36.3	2.4	38.7	57.1	4.2	100.0
	중	(374)	21.7	31.2	36.9	7.0	43.9	52.9	3.2	100.0
	하	(507)	20.9	38.5	30.3	5.0	35.3	59.4	5.3	100.0
	무응답	(23)	14.6	36.5	5.8	0.0	5.8	51.1	43.1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11.9	36.7	36.2	11.2	47.4	48.6	4.0	100.0
	중도	(469)	22.9	34.9	34.2	4.3	38.5	57.7	3.8	100.0
	진보	(233)	25.9	37.8	29.0	2.2	31.3	63.7	5.1	100.0
	잘 모르겠음	(43)	33.6	18.4	18.6	0.0	18.6	52.0	29.4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5.6	17.5	51.9	23.1	75.0	23.1	1.9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5.4	31.9	44.2	6.0	50.2	47.3	2.5	100.0
	불교	(128)	29.3	36.0	25.2	0.3	25.5	65.3	9.2	100.0
	기타 종교	(32)	49.4	40.7	9.8	0.0	9.8	90.2	0.0	100.0
	종교 없음	(547)	25.0	41.7	26.6	0.8	27.3	66.7	5.9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9	25.8	49.8	22.3	72.1	27.7	0.2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27.2	38.3	28.8	1.0	29.7	65.5	4.8	100.0
	잘 모르겠음	(51)	14.7	30.3	21.6	0.0	21.6	44.9	33.4	100.0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2) 사회적 약자의 인권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 한다	약간 기여 한다	별로 기여 한게 없다	전혀 기여 한게없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4.1	40.3	25.8	4.6	30.4	64.5	5.2	100.0
성별	남성	(498)	24.0	43.3	24.2	4.7	28.9	67.3	3.8	100.0
	여성	(502)	24.3	37.3	27.3	4.5	31.8	61.7	6.5	100.0
연령	20대	(159)	28.5	39.4	22.6	2.8	25.4	67.9	6.7	100.0
	30대	(149)	31.7	41.6	20.5	1.7	22.2	73.3	4.4	100.0
	40대	(186)	22.2	42.4	25.3	5.7	31.0	64.6	4.4	100.0
	50대	(197)	29.5	38.5	23.3	5.2	28.5	68.0	3.5	100.0
	60대 이상	(309)	16.0	40.1	31.8	5.8	37.6	56.1	6.3	100.0
지역	서울	(188)	21.2	40.2	30.8	5.0	35.8	61.4	2.7	100.0
	인천/경기	(319)	25.8	38.1	22.8	4.9	27.7	63.9	8.4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7.8	44.6	20.3	2.6	22.9	72.4	4.7	100.0
	광주/전라	(96)	14.8	47.2	26.8	5.2	31.9	61.9	6.1	100.0
	대구/경북	(150)	26.7	34.9	33.3	2.4	35.7	61.6	2.7	100.0
	부산/경남/울산	(98)	27.5	42.5	20.6	6.1	26.7	70.0	3.2	100.0
	강원/제주	(41)	20.0	44.8	22.8	8.1	30.8	64.8	4.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3.2	42.5	26.0	3.8	29.7	65.7	4.5	100.0
	중소도시	(321)	22.9	39.3	26.5	4.5	31.0	62.1	6.8	100.0
	읍/면	(82)	35.8	28.3	21.4	11.0	32.4	64.1	3.5	100.0
직업	자영업	(150)	12.9	51.3	30.1	1.0	31.1	64.3	4.7	100.0
	블루칼라	(293)	26.0	34.5	26.1	6.2	32.2	60.6	7.2	100.0
	화이트칼라	(246)	26.0	40.3	26.6	4.6	31.2	66.2	2.6	100.0
	가정주부	(185)	25.8	37.6	24.7	6.8	31.6	63.4	5.0	100.0
	학생	(53)	27.7	51.8	14.4	4.1	18.5	79.6	1.9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6.7	39.5	23.9	0.4	24.2	66.2	9.5	100.0
소득수준	상	(96)	32.0	32.6	29.7	3.2	32.9	64.6	2.6	100.0
	중	(374)	19.9	41.6	29.4	5.3	34.7	61.6	3.7	100.0
	하	(507)	26.4	42.3	22.0	4.5	26.5	68.6	4.9	100.0
	무응답	(23)	10.6	8.0	33.9	0.0	33.9	18.5	47.6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0.5	35.0	27.7	11.6	39.2	55.5	5.3	100.0
	중도	(469)	23.7	42.3	27.7	2.2	29.9	65.9	4.2	100.0
	진보	(233)	28.3	45.9	21.1	2.7	23.8	74.2	2.1	100.0
	잘 모르겠음	(43)	28.1	20.9	18.9	0.0	18.9	49.1	32.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3.8	30.7	43.6	19.5	63.1	34.5	2.4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4.2	49.0	29.5	5.3	34.9	63.3	1.9	100.0
	불교	(128)	21.0	47.8	22.0	1.2	23.2	68.8	8.0	100.0
	기타 종교	(32)	90.0	5.7	1.3	0.0	1.3	95.7	3.0	100.0
	종교 없음	(547)	32.8	40.4	20.4	0.4	20.8	73.1	6.1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9.0	22.9	50.5	17.6	68.0	32.0	0.0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28.8	46.5	18.6	1.2	19.8	75.4	4.8	100.0
	잘 모르겠음	(51)	18.2	21.6	27.7	0.5	28.2	39.8	32.0	100.0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3) 도덕과 윤리 고취(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 한다	약간 기여 한다	별로 기여 한게 없다	전혀 기여 한게없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3.2	36.8	20.8	4.7	25.5	70.0	4.5	100.0
성별	남성	(498)	35.1	34.5	22.0	4.9	27.0	69.6	3.5	100.0
	여성	(502)	31.3	39.1	19.5	4.5	24.0	70.4	5.6	100.0
연령	20대	(159)	24.5	39.8	19.0	6.5	25.5	64.3	10.3	100.0
	30대	(149)	35.0	42.6	16.9	3.0	19.9	77.6	2.5	100.0
	40대	(186)	32.4	41.4	19.1	3.1	22.2	73.8	4.0	100.0
	50대	(197)	39.6	32.8	21.2	4.0	25.2	72.5	2.4	100.0
	60대 이상	(309)	33.1	32.3	24.3	6.1	30.4	65.4	4.3	100.0
지역	서울	(188)	29.3	30.3	29.0	8.1	37.1	59.7	3.3	100.0
	인천/경기	(319)	35.6	36.8	19.2	2.8	22.0	72.4	5.5	100.0
	대전/충청/세종	(108)	34.9	38.4	15.9	3.8	19.8	73.3	6.9	100.0
	광주/전라	(96)	31.3	38.4	22.0	5.1	27.2	69.7	3.1	100.0
	대구/경북	(150)	29.0	42.3	21.4	4.4	25.8	71.3	2.9	100.0
	부산/경남/울산	(98)	41.1	37.2	12.6	3.3	15.9	78.4	5.7	100.0
	강원/제주	(41)	28.3	37.0	21.8	10.5	32.3	65.3	2.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32.6	37.2	21.0	5.4	26.4	69.9	3.7	100.0
	중소도시	(321)	32.9	37.8	20.8	3.0	23.8	70.7	5.5	100.0
	읍/면	(82)	38.2	29.8	18.9	6.2	25.1	68.0	6.9	100.0
직업	자영업	(150)	37.6	37.2	21.9	2.2	24.1	74.8	1.2	100.0
	블루칼라	(293)	31.6	33.9	25.0	5.4	30.4	65.5	4.1	100.0
	화이트칼라	(246)	38.3	37.0	17.3	4.4	21.7	75.2	3.1	100.0
	가정주부	(185)	31.2	39.3	20.2	4.5	24.7	70.6	4.7	100.0
	학생	(53)	14.9	44.2	13.2	15.5	28.6	59.1	12.2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31.4	35.5	20.1	1.1	21.1	67.0	11.9	100.0
소득수준	상	(96)	36.3	34.1	22.2	5.1	27.3	70.4	2.3	100.0
	중	(374)	29.1	39.1	24.6	3.2	27.8	68.2	3.9	100.0
	하	(507)	36.8	34.4	18.6	6.0	24.5	71.2	4.3	100.0
	무응답	(23)	4.5	65.8	0.0	0.0	0.0	70.3	29.7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2.8	25.7	24.0	13.5	37.5	58.5	4.0	100.0
	중도	(469)	33.0	39.6	21.2	2.2	23.4	72.6	4.0	100.0
	진보	(233)	35.3	43.8	18.3	0.8	19.1	79.1	1.8	100.0
	잘 모르겠음	(43)	26.3	34.1	9.9	1.8	11.7	60.4	27.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7.6	21.8	49.7	17.8	67.5	29.5	3.1	100.0
	천주교(가톨릭)	(108)	28.3	43.4	24.6	2.3	26.9	71.7	1.4	100.0
	불교	(128)	37.1	43.0	13.0	1.0	14.0	80.1	5.9	100.0
	기타 종교	(32)	77.5	12.7	1.3	8.5	9.8	90.2	0.0	100.0
	종교 없음	(547)	41.0	39.3	12.7	1.7	14.4	80.3	5.3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9.4	14.7	53.9	20.3	74.2	24.1	1.8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41.0	43.4	11.9	0.6	12.5	84.4	3.0	100.0
	잘 모르겠음	(51)	17.1	32.4	12.8	0.0	12.8	49.5	37.7	100.0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4) 민주주의 발전(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 한다	약간 기여 한다	별로 기여 한게 없다	전혀 기여 한게없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2.0	36.5	20.1	3.8	23.9	68.5	7.6	100.0
성별	남성	(498)	31.2	35.9	24.0	5.2	29.3	67.1	3.6	100.0
	여성	(502)	32.7	37.2	16.1	2.4	18.5	69.9	11.6	100.0
연령	20대	(159)	30.3	31.4	24.8	1.7	26.5	61.7	11.8	100.0
	30대	(149)	31.8	36.6	19.2	1.4	20.6	68.4	11.0	100.0
	40대	(186)	37.0	34.8	17.2	6.1	23.3	71.8	4.9	100.0
	50대	(197)	34.6	35.6	18.5	4.1	22.6	70.3	7.2	100.0
	60대 이상	(309)	28.1	40.8	20.8	4.5	25.3	68.9	5.8	100.0
지역	서울	(188)	26.4	42.8	21.3	5.1	26.4	69.2	4.4	100.0
	인천/경기	(319)	33.5	33.9	18.3	4.5	22.8	67.4	9.8	100.0
	대전/충청/세종	(108)	35.3	36.7	15.2	4.2	19.3	72.0	8.7	100.0
	광주/전라	(96)	30.1	32.6	26.5	3.3	29.8	62.7	7.5	100.0
	대구/경북	(150)	31.4	36.9	25.2	0.4	25.6	68.4	6.0	100.0
	부산/경남/울산	(98)	37.8	32.8	15.2	5.6	20.8	70.6	8.6	100.0
	강원/제주	(41)	29.0	44.6	18.9	0.7	19.6	73.6	6.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31.5	38.4	20.7	3.6	24.3	69.9	5.8	100.0
	중소도시	(321)	32.0	33.7	20.1	3.0	23.1	65.7	11.2	100.0
	읍/면	(82)	35.2	33.7	15.0	8.9	23.9	68.9	7.2	100.0
직업	자영업	(150)	29.5	39.5	24.5	4.8	29.2	69.0	1.8	100.0
	블루칼라	(293)	32.0	30.0	21.4	4.2	25.6	62.0	12.4	100.0
	화이트칼라	(246)	33.9	39.2	19.5	3.2	22.7	73.0	4.3	100.0
	가정주부	(185)	33.0	41.0	14.0	4.5	18.5	74.0	7.5	100.0
	학생	(53)	30.7	30.7	26.3	4.2	30.5	61.4	8.1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8.5	40.8	18.7	0.4	19.1	69.3	11.6	100.0
소득수준	상	(96)	41.3	34.7	16.4	0.7	17.1	76.1	6.8	100.0
	중	(374)	25.3	40.6	22.6	4.9	27.5	65.8	6.7	100.0
	하	(507)	35.7	34.7	19.2	3.8	23.0	70.5	6.5	100.0
	무응답	(23)	18.6	18.1	12.4	0.0	12.4	36.7	50.9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5.4	32.6	31.3	8.4	39.7	58.0	2.3	100.0
	중도	(469)	32.0	39.3	17.2	2.5	19.7	71.4	8.9	100.0
	진보	(233)	38.4	37.3	16.0	2.2	18.2	75.7	6.2	100.0
	잘 모르겠음	(43)	35.3	25.2	6.8	0.0	6.8	60.4	32.8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7.8	31.5	38.2	17.0	55.2	39.3	5.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23.2	46.5	25.9	0.9	26.8	69.7	3.5	100.0
	불교	(128)	25.8	42.8	17.9	2.1	20.0	68.6	11.5	100.0
	기타 종교	(32)	95.7	3.0	1.3	0.0	1.3	98.7	0.0	100.0
	종교 없음	(547)	42.5	35.1	13.7	0.5	14.1	77.6	8.2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1.3	29.3	39.7	15.7	55.4	40.6	4.0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38.4	40.2	15.0	0.7	15.7	78.6	5.7	100.0
	잘 모르겠음	(51)	23.7	13.3	13.0	0.0	13.0	37.0	50.0	100.0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5)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 한다	약간 기여 한다	별로 기여 한게 없다	전혀 기여 한게없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4.2	39.3	15.8	4.4	20.1	73.5	6.4	100.0
성별	남성	(498)	34.1	41.2	14.7	5.0	19.8	75.2	5.0	100.0
	여성	(502)	34.3	37.5	16.8	3.7	20.5	71.8	7.7	100.0
연령	20대	(159)	20.7	49.4	11.0	3.9	14.9	70.1	15.0	100.0
	30대	(149)	43.0	32.5	16.2	1.5	17.7	75.5	6.8	100.0
	40대	(186)	34.4	44.3	13.2	3.7	16.8	78.7	4.5	100.0
	50대	(197)	41.3	33.3	16.5	4.5	21.0	74.5	4.4	100.0
	60대 이상	(309)	32.2	38.4	19.0	6.4	25.4	70.5	4.1	100.0
지역	서울	(188)	32.2	36.6	22.4	3.8	26.2	68.7	5.1	100.0
	인천/경기	(319)	35.8	38.2	12.3	3.4	15.8	74.0	10.2	100.0
	대전/충청/세종	(108)	37.5	40.1	12.0	2.7	14.7	77.6	7.7	100.0
	광주/전라	(96)	29.7	46.9	14.6	5.7	20.3	76.6	3.1	100.0
	대구/경북	(150)	30.4	41.5	16.3	8.5	24.8	71.9	3.4	100.0
	부산/경남/울산	(98)	40.6	36.0	16.7	3.3	20.0	76.6	3.5	100.0
	강원/제주	(41)	30.9	41.2	20.0	3.5	23.5	72.1	4.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31.7	40.6	17.0	5.0	22.0	72.3	5.7	100.0
	중소도시	(321)	36.5	38.7	14.5	2.8	17.3	75.2	7.5	100.0
	읍/면	(82)	43.0	32.6	11.3	6.2	17.5	75.6	6.9	100.0
직업	자영업	(150)	32.4	42.2	18.8	3.6	22.4	74.6	3.0	100.0
	블루칼라	(293)	34.6	32.9	17.4	5.1	22.4	67.5	10.0	100.0
	화이트칼라	(246)	36.8	42.0	14.4	3.9	18.3	78.9	2.9	100.0
	가정주부	(185)	37.3	37.8	14.7	5.0	19.7	75.1	5.2	100.0
	학생	(53)	14.9	52.8	11.8	8.3	20.1	67.6	12.2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32.8	44.1	12.9	0.8	13.7	76.9	9.4	100.0
소득수준	상	(96)	40.7	31.4	16.4	5.1	21.5	72.2	6.3	100.0
	중	(374)	29.5	41.7	19.0	5.0	24.0	71.2	4.8	100.0
	하	(507)	37.7	39.0	13.9	4.0	17.9	76.7	5.4	100.0
	무응답	(23)	4.5	41.6	0.0	0.0	0.0	46.1	53.9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7.1	37.2	21.4	10.9	32.3	64.3	3.4	100.0
	중도	(469)	35.0	41.0	15.2	2.2	17.4	76.0	6.6	100.0
	진보	(233)	41.9	39.4	12.4	2.5	14.9	81.3	3.8	100.0
	잘 모르겠음	(43)	25.3	33.3	6.8	0.0	6.8	58.6	34.6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9.7	31.1	38.3	17.5	55.7	40.8	3.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30.3	40.2	21.9	5.8	27.8	70.5	1.8	100.0
	불교	(128)	36.5	40.0	12.6	1.2	13.8	76.5	9.7	100.0
	기타 종교	(32)	34.0	64.7	1.3	0.0	1.3	98.7	0.0	100.0
	종교 없음	(547)	42.6	41.4	8.0	0.6	8.6	83.9	7.5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7.5	31.3	43.2	16.7	59.9	38.8	1.4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43.0	42.3	8.8	1.1	9.9	85.3	4.8	100.0
	잘 모르겠음	(51)	15.9	29.0	4.1	1.0	5.1	44.8	50.0	100.0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6) 남북화해(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한다	약간 기여한다	별로 기여한게 없다	전혀 기여한게 없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41.0	35.3	13.5	2.7	16.1	76.3	7.6	100.0
성별	남성	(498)	46.1	32.7	13.4	3.2	16.6	78.8	4.6	100.0
	여성	(502)	35.9	37.9	13.6	2.1	15.7	73.8	10.5	100.0
연령	20대	(159)	32.8	34.7	18.7	2.0	20.7	67.4	11.9	100.0
	30대	(149)	50.7	29.6	8.2	1.9	10.1	80.3	9.6	100.0
	40대	(186)	38.8	39.3	9.5	5.6	15.1	78.1	6.8	100.0
	50대	(197)	45.5	35.3	14.7	2.0	16.6	80.9	2.5	100.0
	60대 이상	(309)	38.8	36.0	15.0	2.0	17.0	74.8	8.1	100.0
지역	서울	(188)	34.9	31.8	22.4	5.2	27.5	66.7	5.8	100.0
	인천/경기	(319)	39.0	37.2	10.6	2.8	13.4	76.2	10.4	100.0
	대전/충청/세종	(108)	41.4	36.4	13.9	0.0	13.9	77.8	8.3	100.0
	광주/전라	(96)	47.4	23.5	18.3	2.0	20.3	70.8	8.8	100.0
	대구/경북	(150)	38.7	48.0	7.4	2.3	9.8	86.7	3.5	100.0
	부산/경남/울산	(98)	52.0	28.7	11.3	2.5	13.8	80.7	5.5	100.0
	강원/제주	(41)	49.3	31.4	10.6	0.0	10.6	80.7	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40.2	35.6	14.5	3.2	17.7	75.7	6.6	100.0
	중소도시	(321)	42.6	35.2	12.4	0.9	13.4	77.8	8.9	100.0
	읍/면	(82)	40.4	34.1	10.4	5.6	16.0	74.5	9.5	100.0
직업	자영업	(150)	38.2	36.4	21.0	1.4	22.4	74.7	3.0	100.0
	블루칼라	(293)	39.0	34.1	12.9	3.5	16.5	73.1	10.5	100.0
	화이트칼라	(246)	50.4	33.9	10.1	2.0	12.0	84.3	3.7	100.0
	가정주부	(185)	39.3	37.1	11.6	3.6	15.2	76.4	8.3	100.0
	학생	(53)	22.9	31.2	29.5	4.2	33.7	54.1	12.2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39.9	41.3	5.0	0.5	5.5	81.2	13.3	100.0
소득수준	상	(96)	45.1	38.0	11.5	1.1	12.7	83.1	4.3	100.0
	중	(374)	34.5	38.8	15.4	4.9	20.3	73.3	6.4	100.0
	하	(507)	46.4	32.3	12.8	1.4	14.2	78.6	7.2	100.0
	무응답	(23)	8.2	35.6	6.3	0.0	6.3	43.8	49.9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6.6	35.2	17.6	4.3	21.9	71.8	6.3	100.0
	중도	(469)	41.2	35.5	12.6	2.5	15.1	76.6	8.3	100.0
	진보	(233)	47.4	34.1	12.8	1.7	14.5	81.5	4.0	100.0
	잘 모르겠음	(43)	29.8	40.7	2.6	0.0	2.6	70.5	26.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4.5	40.0	29.6	9.8	39.4	54.5	6.1	100.0
	천주교(가톨릭)	(108)	40.7	28.8	23.2	3.7	26.9	69.5	3.6	100.0
	불교	(128)	40.2	37.4	13.2	0.6	13.9	77.7	8.5	100.0
	기타 종교	(32)	12.7	83.0	1.3	0.0	1.3	95.7	3.0	100.0
	종교 없음	(547)	50.7	33.6	6.4	0.6	7.0	84.3	8.7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2.2	36.9	35.9	10.7	46.6	49.1	4.3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50.4	35.9	7.8	0.6	8.4	86.2	5.4	100.0
	잘 모르겠음	(51)	22.6	20.8	3.8	0.0	3.8	43.4	52.8	100.0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7) 사회통합(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 한다	약간 기여 한다	별로 기여 한게 없다	전혀 기여 한게없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41.2	37.4	12.7	2.6	15.3	78.5	6.1	100.0
성별	남성	(498)	42.3	37.6	13.0	2.6	15.6	79.9	4.5	100.0
	여성	(502)	40.1	37.1	12.4	2.6	15.0	77.2	7.8	100.0
연령	20대	(159)	33.4	33.0	19.5	1.0	20.4	66.3	13.2	100.0
	30대	(149)	50.6	32.6	9.8	3.0	12.8	83.2	4.0	100.0
	40대	(186)	38.3	36.5	15.4	3.1	18.5	74.8	6.7	100.0
	50대	(197)	45.9	38.5	9.8	2.7	12.5	84.4	3.2	100.0
	60대 이상	(309)	39.4	41.7	10.9	2.9	13.7	81.1	5.1	100.0
지역	서울	(188)	32.9	43.0	17.5	2.6	20.1	75.9	4.0	100.0
	인천/경기	(319)	41.2	38.7	10.4	3.1	13.5	79.9	6.6	100.0
	대전/충청/세종	(108)	43.5	31.3	13.6	1.5	15.0	74.8	10.2	100.0
	광주/전라	(96)	41.5	35.7	11.1	5.5	16.6	77.2	6.3	100.0
	대구/경북	(150)	42.3	38.7	14.4	1.2	15.6	81.0	3.4	100.0
	부산/경남/울산	(98)	53.2	27.9	8.7	2.5	11.2	81.1	7.7	100.0
	강원/제주	(41)	39.9	38.4	14.3	0.0	14.3	78.3	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40.1	37.3	14.8	2.7	17.4	77.4	5.2	100.0
	중소도시	(321)	43.1	38.7	9.1	1.9	11.0	81.8	7.1	100.0
	읍/면	(82)	41.9	32.0	11.7	4.9	16.6	73.9	9.5	100.0
직업	자영업	(150)	40.9	37.8	15.8	1.0	16.8	78.7	4.5	100.0
	블루칼라	(293)	42.4	35.7	11.3	3.6	14.8	78.1	7.1	100.0
	화이트칼라	(246)	47.0	34.0	14.3	2.5	16.8	81.0	2.3	100.0
	가정주부	(185)	40.3	41.2	8.0	3.8	11.8	81.6	6.6	100.0
	학생	(53)	19.0	41.6	27.9	0.0	27.9	60.6	11.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35.9	41.4	7.7	1.2	8.9	77.3	13.8	100.0
소득수준	상	(96)	45.7	37.6	10.1	2.6	12.6	83.2	4.1	100.0
	중	(374)	34.2	41.8	15.5	2.8	18.3	76.0	5.7	100.0
	하	(507)	46.4	34.8	11.7	2.5	14.3	81.2	4.5	100.0
	무응답	(23)	21.8	20.5	0.0	0.0	0.0	42.3	57.7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4.5	30.1	25.2	6.2	31.4	64.5	4.1	100.0
	중도	(469)	42.7	40.3	8.7	1.6	10.4	83.0	6.6	100.0
	진보	(233)	44.5	44.3	8.8	1.1	9.9	88.8	1.3	100.0
	잘 모르겠음	(43)	46.6	11.1	3.3	0.0	3.3	57.7	39.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9.3	41.1	33.8	10.9	44.7	50.4	4.9	100.0
	천주교(가톨릭)	(108)	40.5	43.4	11.4	1.9	13.3	83.9	2.8	100.0
	불교	(128)	46.8	39.1	7.6	0.9	8.5	85.9	5.5	100.0
	기타 종교	(32)	52.4	8.5	39.1	0.0	39.1	60.9	0.0	100.0
	종교 없음	(547)	50.4	34.9	6.8	0.4	7.2	85.3	7.5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7.4	36.6	42.4	10.5	53.0	44.0	3.1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51.9	38.5	4.8	0.5	5.4	90.4	4.2	100.0
	잘 모르겠음	(51)	24.3	23.9	4.5	0.0	4.5	48.3	47.3	100.0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8) 부패 방지(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 한다	약간 기여 한다	별로 기여 한게 없다	전혀 기여 한게없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42.3	37.7	10.5	2.8	13.3	80.0	6.7	100.0
성별	남성	(498)	43.4	39.3	9.7	3.4	13.1	82.7	4.3	100.0
	여성	(502)	41.3	36.1	11.3	2.2	13.5	77.4	9.1	100.0
연령	20대	(159)	37.0	39.7	10.0	2.5	12.6	76.7	10.8	100.0
	30대	(149)	48.5	33.2	7.9	4.1	12.0	81.7	6.3	100.0
	40대	(186)	44.6	37.5	10.7	1.4	12.1	82.1	5.8	100.0
	50대	(197)	46.0	35.4	10.5	3.2	13.7	81.4	5.0	100.0
	60대 이상	(309)	38.4	40.4	11.8	2.9	14.7	78.9	6.4	100.0
지역	서울	(188)	38.9	40.6	15.5	1.3	16.8	79.5	3.7	100.0
	인천/경기	(319)	44.6	37.8	5.7	3.1	8.8	82.3	8.9	100.0
	대전/충청/세종	(108)	46.8	32.3	9.8	5.1	14.9	79.1	5.9	100.0
	광주/전라	(96)	36.5	39.0	13.9	4.6	18.5	75.5	6.0	100.0
	대구/경북	(150)	38.3	39.7	15.5	1.4	16.9	78.0	5.1	100.0
	부산/경남/울산	(98)	53.3	27.7	5.5	2.5	8.0	80.9	11.1	100.0
지역 크기	강원/제주	(41)	31.3	51.6	11.9	2.9	14.7	82.8	2.4	100.0
	대도시	(597)	40.5	40.3	11.2	2.3	13.5	80.9	5.6	100.0
	중소도시	(321)	42.2	38.0	9.0	2.3	11.3	80.2	8.5	100.0
직업	읍/면	(82)	56.0	17.4	11.0	8.0	19.0	73.3	7.7	100.0
	자영업	(150)	38.1	36.2	20.9	2.1	23.0	74.3	2.7	100.0
	블루칼라	(293)	40.6	38.9	7.0	2.3	9.3	79.5	11.2	100.0
	화이트칼라	(246)	45.3	37.6	9.7	3.9	13.6	82.9	3.5	100.0
	가정주부	(185)	45.0	36.8	10.0	2.9	12.9	81.8	5.3	100.0
	학생	(53)	41.3	39.7	8.8	4.2	12.9	81.0	6.0	100.0
소득수준	무직/기타/무응답	(73)	42.0	37.3	8.0	1.2	9.2	79.3	11.5	100.0
	상	(96)	41.7	37.5	10.5	3.9	14.5	79.2	6.4	100.0
	중	(374)	35.5	43.3	14.3	3.3	17.7	78.8	3.5	100.0
	하	(507)	48.6	33.7	7.9	2.3	10.2	82.2	7.6	100.0
이념성향	무응답	(23)	18.9	35.5	3.7	0.0	3.7	54.4	41.9	100.0
	보수	(255)	37.9	36.1	12.9	6.6	19.5	73.9	6.6	100.0
	중도	(469)	41.9	41.6	9.2	1.5	10.7	83.5	5.8	100.0
	진보	(233)	48.2	34.1	11.9	1.7	13.6	82.3	4.1	100.0
종교	잘 모르겠음	(43)	41.9	24.7	2.6	0.0	2.6	66.6	30.8	100.0
	기독교(개신교)	(186)	12.3	43.4	30.5	9.6	40.2	55.7	4.2	100.0
	천주교(가톨릭)	(108)	36.0	46.7	11.1	3.3	14.5	82.7	2.9	100.0
	불교	(128)	46.1	33.5	10.6	0.4	10.9	79.5	9.5	100.0
	기타 종교	(32)	39.7	8.5	1.3	0.0	1.3	48.2	50.5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종교 없음	(547)	52.8	35.7	3.7	1.1	4.8	88.4	6.8	100.0
	신뢰	(210)	15.7	39.9	27.4	12.1	39.5	55.6	4.9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50.8	38.2	6.2	0.3	6.5	89.1	4.4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잘 모르겠음	(51)	28.6	20.5	3.3	0.0	3.3	49.1	47.6	100.0

[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_9) 경제 성장(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 한다	약간 기여 한다	별로 기여 한게 없다	전혀 기여 한게없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40.0	40.6	10.2	2.2	12.4	80.6	7.0	100.0
성별	남성	(498)	43.2	38.6	8.7	2.8	11.5	81.8	6.7	100.0
	여성	(502)	36.8	42.5	11.7	1.5	13.3	79.3	7.4	100.0
연령	20대	(159)	31.5	41.5	14.1	1.2	15.3	73.0	11.6	100.0
	30대	(149)	42.3	41.6	8.9	1.4	10.3	83.9	5.8	100.0
	40대	(186)	43.6	34.4	11.7	4.3	16.0	78.0	6.0	100.0
	50대	(197)	47.9	38.7	5.9	3.4	9.3	86.6	4.1	100.0
	60대 이상	(309)	35.9	44.6	10.8	1.0	11.7	80.5	7.8	100.0
지역	서울	(188)	34.5	51.6	4.8	4.1	8.9	86.1	5.0	100.0
	인천/경기	(319)	43.9	39.9	7.8	2.6	10.4	83.8	5.8	100.0
	대전/충청/세종	(108)	44.0	34.7	14.0	0.9	14.9	78.7	6.4	100.0
	광주/전라	(96)	41.1	30.6	16.4	3.5	19.9	71.7	8.4	100.0
	대구/경북	(150)	35.6	45.5	14.4	0.7	15.2	81.1	3.8	100.0
	부산/경남/울산	(98)	40.5	31.4	10.9	0.0	10.9	72.0	17.1	100.0
	강원/제주	(41)	36.1	38.8	12.8	0.0	12.8	74.8	12.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41.3	41.7	9.1	2.6	11.7	83.0	5.3	100.0
	중소도시	(321)	37.1	40.2	10.6	1.8	12.4	77.3	10.3	100.0
	읍/면	(82)	41.5	34.3	17.1	0.0	17.1	75.8	7.2	100.0
직업	자영업	(150)	35.8	50.9	8.2	2.4	10.6	86.7	2.7	100.0
	블루칼라	(293)	44.6	34.3	9.5	2.7	12.3	78.9	8.9	100.0
	화이트칼라	(246)	45.3	37.5	10.7	3.1	13.7	82.8	3.4	100.0
	가정주부	(185)	36.4	44.4	9.7	1.3	11.0	80.8	8.2	100.0
	학생	(53)	16.4	49.2	20.2	0.0	20.2	65.6	14.1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38.3	39.2	10.0	0.0	10.0	77.4	12.6	100.0
소득수준	상	(96)	51.3	34.0	10.6	1.4	12.0	85.3	2.7	100.0
	중	(374)	36.3	41.3	13.0	3.9	16.8	77.5	5.6	100.0
	하	(507)	42.0	41.9	7.8	1.1	8.9	83.9	7.2	100.0
	무응답	(23)	8.2	28.6	18.0	0.0	18.0	36.8	45.2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6.9	38.4	16.4	3.4	19.8	75.3	4.9	100.0
	중도	(469)	40.5	41.8	8.0	2.6	10.6	82.3	7.1	100.0
	진보	(233)	44.9	42.4	7.8	0.4	8.1	87.3	4.5	100.0
	잘 모르겠음	(43)	25.7	31.3	11.2	0.0	11.2	57.0	31.8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1.4	49.1	25.6	7.4	32.9	60.5	6.6	100.0
	천주교(가톨릭)	(108)	39.7	43.2	11.0	2.7	13.7	82.9	3.4	100.0
	불교	(128)	39.1	45.5	7.9	0.3	8.3	84.6	7.1	100.0
	기타 종교	(32)	77.5	14.0	8.5	0.0	8.5	91.5	0.0	100.0
	종교 없음	(547)	49.3	36.3	5.5	0.8	6.3	85.6	8.0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4.2	48.9	22.9	9.5	32.4	63.0	4.6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48.6	39.4	6.6	0.2	6.8	88.0	5.2	100.0
	잘 모르겠음	(51)	21.3	23.2	10.8	0.0	10.8	44.6	44.6	100.0

4-4.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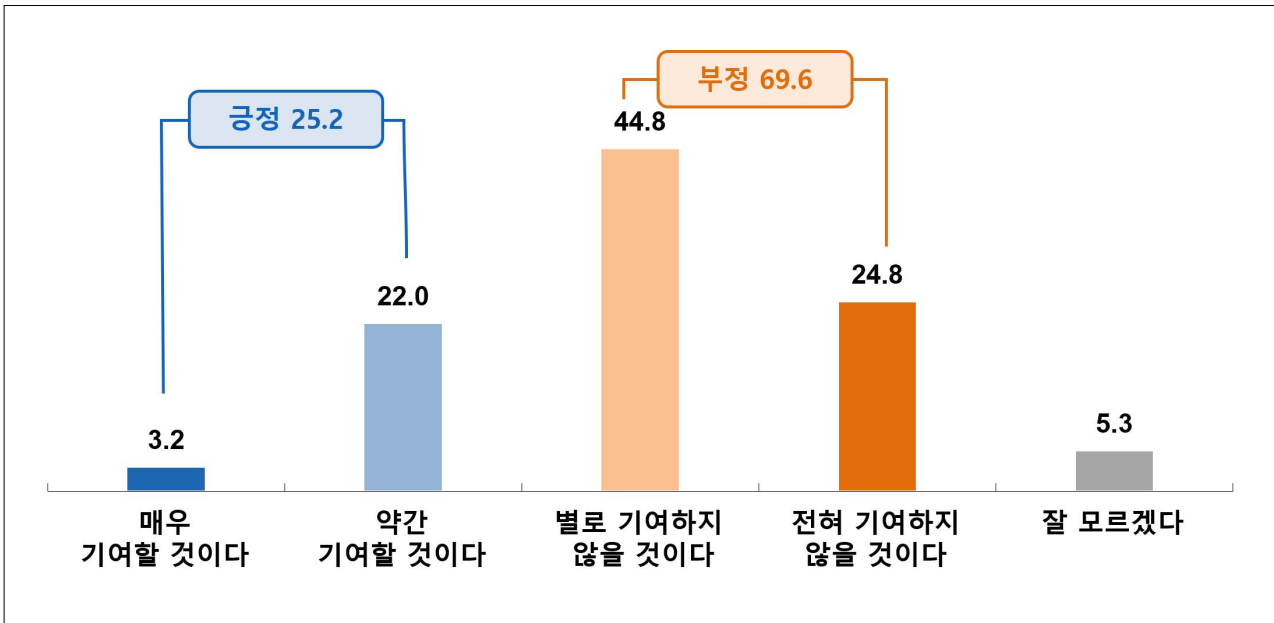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할까? 25.2%의 응답자들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미래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내놓았고, 부정의 응답은 69.6%였다. 즉, 4명 중 1명만이 기여도가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가 긍정 24.1%, 부정 70.8%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응답이다. 즉 앞으로의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교회의 미래 기여도 전망에 긍정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념성향이 보수에 가까울수록 같은 전망을 경향성을 띠고 있다.
- 종교별로는 기독교에서는 64.3%만이 긍정의 응답을 보였지만, 나머지 종교에서는 부정의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마지막으로, 무종교인들은 14.1%만이 한국교회가 미래 사회에 기여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림]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N=1000, %)



[표]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여 할 것이다	약간 기여 할 것이다	별로 기여 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기여 하지 않을 것이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2	22.0	44.8	24.8	25.2	69.6	5.3	100.0
성별	남성	(498)	3.4	21.6	44.6	26.8	25.0	71.5	3.5	100.0
	여성	(502)	3.0	22.4	44.9	22.7	25.4	67.6	7.0	100.0
연령	20대	(159)	2.0	16.1	45.9	29.3	18.1	75.2	6.8	100.0
	30대	(149)	0.5	18.1	45.9	31.8	18.6	77.7	3.7	100.0
	40대	(186)	2.7	20.0	44.5	25.6	22.7	70.2	7.2	100.0
	50대	(197)	4.0	21.8	47.2	23.7	25.8	70.9	3.3	100.0
	60대 이상	(309)	4.8	28.3	42.2	19.2	33.1	61.5	5.4	100.0
지역	서울	(188)	2.0	24.8	53.0	16.7	26.8	69.7	3.5	100.0
	인천/경기	(319)	4.0	19.8	45.5	24.4	23.8	69.9	6.3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9	17.7	41.5	31.5	20.7	73.0	6.3	100.0
	광주/전라	(96)	4.6	23.7	46.8	20.9	28.3	67.8	3.9	100.0
	대구/경북	(150)	1.6	26.1	44.9	25.6	27.7	70.5	1.8	100.0
	부산/경남/울산	(98)	3.3	19.0	34.5	33.3	22.2	67.7	10.0	100.0
	강원/제주	(41)	5.2	25.7	29.4	32.3	30.9	61.7	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8	21.9	50.6	21.1	24.6	71.7	3.7	100.0
	중소도시	(321)	3.2	22.0	38.2	29.1	25.2	67.3	7.5	100.0
	읍/면	(82)	6.2	22.9	28.1	34.7	29.1	62.8	8.1	100.0
직업	자영업	(150)	3.6	20.1	47.3	27.8	23.7	75.1	1.2	100.0
	블루칼라	(293)	2.7	26.6	44.6	20.4	29.2	65.1	5.7	100.0
	화이트칼라	(246)	2.8	20.7	41.9	30.3	23.5	72.2	4.3	100.0
	가정주부	(185)	5.1	21.6	44.4	22.5	26.7	66.9	6.4	100.0
	학생	(53)	3.4	8.8	59.2	22.5	12.2	81.7	6.2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0.4	22.7	40.1	25.1	23.1	65.2	11.7	100.0
소득수준	상	(96)	1.3	31.3	29.5	35.7	32.6	65.2	2.2	100.0
	중	(374)	3.3	25.6	46.2	20.6	28.9	66.8	4.3	100.0
	하	(507)	3.6	18.5	46.2	26.1	22.2	72.4	5.5	100.0
	무응답	(23)	0.0	0.0	53.4	16.9	0.0	70.3	29.7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8.7	28.5	43.8	15.9	37.2	59.8	3.0	100.0
	중도	(469)	1.1	22.6	46.5	24.5	23.7	71.0	5.3	100.0
	진보	(233)	1.1	16.3	44.5	34.2	17.4	78.7	3.9	100.0
	잘 모르겠음	(43)	4.1	7.8	32.3	29.8	11.9	62.1	26.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5.6	48.7	22.8	8.3	64.3	31.1	4.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0.9	26.4	51.0	18.3	27.3	69.3	3.4	100.0
	불교	(128)	0.0	16.6	53.3	24.6	16.6	77.9	5.4	100.0
	기타 종교	(32)	0.0	9.8	43.5	46.7	9.8	90.2	0.0	100.0
	종교 없음	(547)	0.3	13.8	48.6	31.3	14.1	80.0	5.9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4.8	60.5	19.1	4.2	75.3	23.3	1.3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0	11.8	53.3	30.9	11.9	84.2	3.9	100.0
	잘 모르겠음	(51)	1.0	11.1	26.9	20.2	12.1	47.1	40.8	100.0

4-5. 한국교회 이미지 (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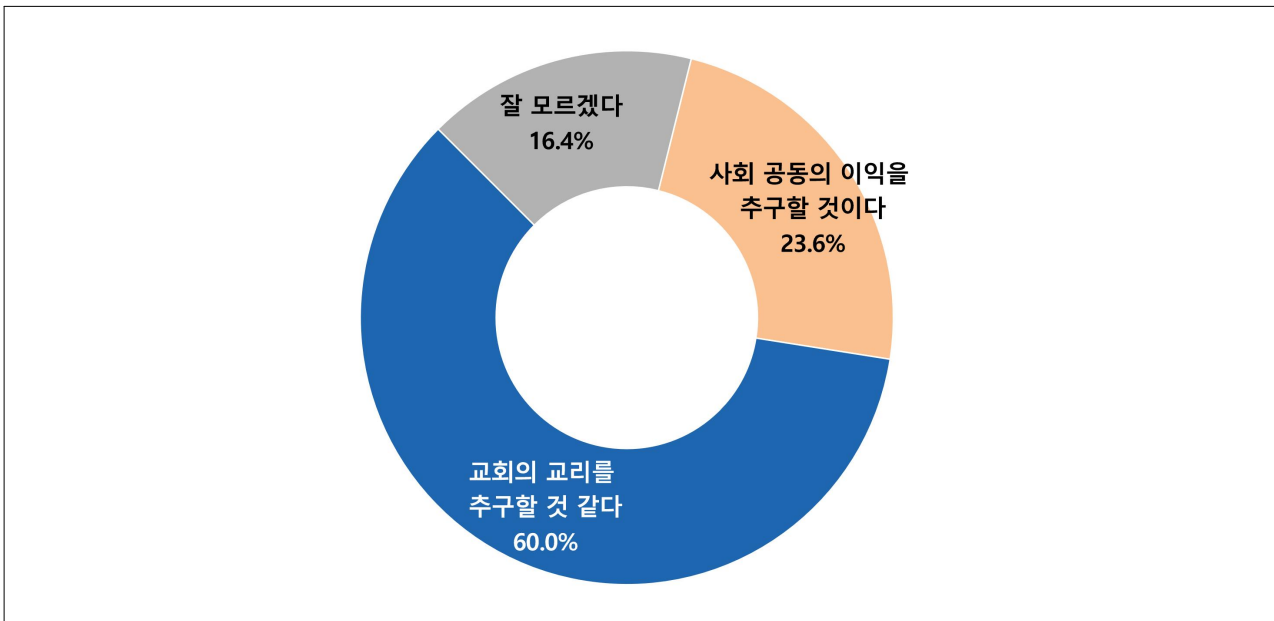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할 것 같습니까?(하나만)



- 응답자들에게 한국교회가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 중 어떤 것을 더 중요시 할 것 같은지 질문했다.
- '교회의 교리를 추구할 것 같다' 60.0%,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23.6% 순으로 응답했다.
- 즉,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는 사회 공동 이익보다는 교리를 추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기독교를 이기적 종교 혹은 사회와 동떨어진 종교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무종교인은 한국교회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6%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한국교회 이미지 (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N=1000, %)



[표] 한국교회 이미지 (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사회 이익을 추구할 이다	이 것 공동의 추구할 이다	교회의 교리를 추구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3.6	60.0	16.4	100.0	
성별	남성	(498)	28.0	60.0	12.0	100.0	
	여성	(502)	19.4	59.9	20.7	100.0	
연령	20대	(159)	24.2	49.0	26.8	100.0	
	30대	(149)	27.9	50.0	22.1	100.0	
	40대	(186)	26.2	56.8	17.0	100.0	
	50대	(197)	21.9	69.9	8.2	100.0	
	60대 이상	(309)	20.8	66.0	13.1	100.0	
지역	서울	(188)	22.4	66.5	11.0	100.0	
	인천/경기	(319)	24.6	56.9	18.5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3.1	56.7	20.1	100.0	
	광주/전라	(96)	17.0	63.2	19.8	100.0	
	대구/경북	(150)	30.8	54.3	14.9	100.0	
	부산/경남/울산	(98)	17.4	67.5	15.1	100.0	
	강원/제주	(41)	27.1	58.1	14.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4.8	59.1	16.1	100.0	
	중소도시	(321)	21.5	61.4	17.2	100.0	
	읍/면	(82)	23.7	60.8	15.5	100.0	
직업	자영업	(150)	30.9	56.6	12.5	100.0	
	블루칼라	(293)	25.0	56.9	18.1	100.0	
	화이트칼라	(246)	20.9	66.3	12.8	100.0	
	가정주부	(185)	19.1	64.6	16.3	100.0	
	학생	(53)	23.2	47.8	29.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4.5	55.2	20.3	100.0	
소득수준	상	(96)	22.3	64.4	13.2	100.0	
	중	(374)	30.2	58.1	11.7	100.0	
	하	(507)	19.9	62.1	17.9	100.0	
	무응답	(23)	4.0	24.1	71.9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7.9	59.7	12.5	100.0	
	중도	(469)	21.4	61.3	17.3	100.0	
	진보	(233)	26.7	62.2	11.1	100.0	
	잘 모르겠음	(43)	7.1	35.8	57.1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37.1	56.2	6.6	100.0	
	천주교(가톨릭)	(108)	24.9	56.6	18.5	100.0	
	불교	(128)	19.3	61.9	18.8	100.0	
	기타 종교	(32)	46.7	53.3	0.0	100.0	
	종교 없음	(547)	19.6	61.5	18.9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38.0	55.1	6.9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20.5	63.5	16.0	100.0	
	잘 모르겠음	(51)	10.7	28.6	60.7	100.0	

5. 한국교회의 과제

5-1.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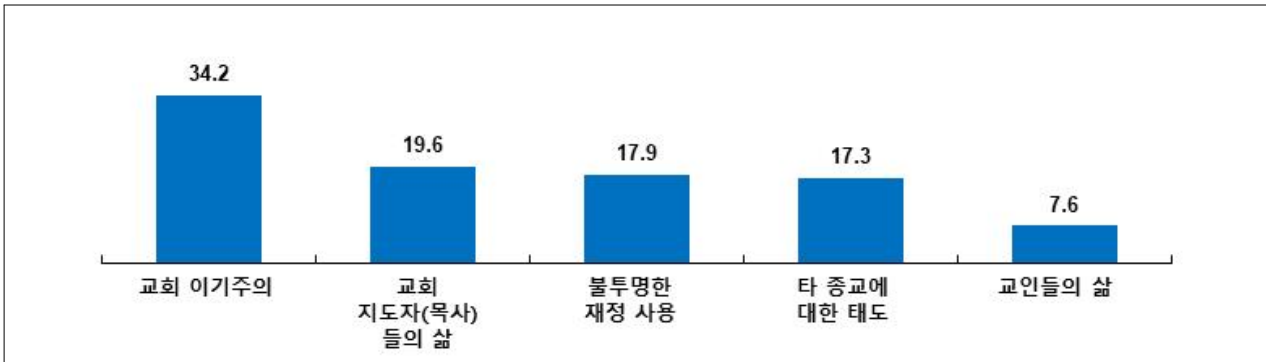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교회 이기주의' 34.2%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삶' 19.6%, '불투명한 재정 사용' 17.9%, '타종교에 대한 태도' 17.3%가 언급되었는데, '교회 이기주의'보다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 교회가 사회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이익 보다는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았을 때, '교회 이기주의'를 가장 많이 택한 응답자들은 무종교인이었다. 반면에,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개선점으로 든 것은 기독교 신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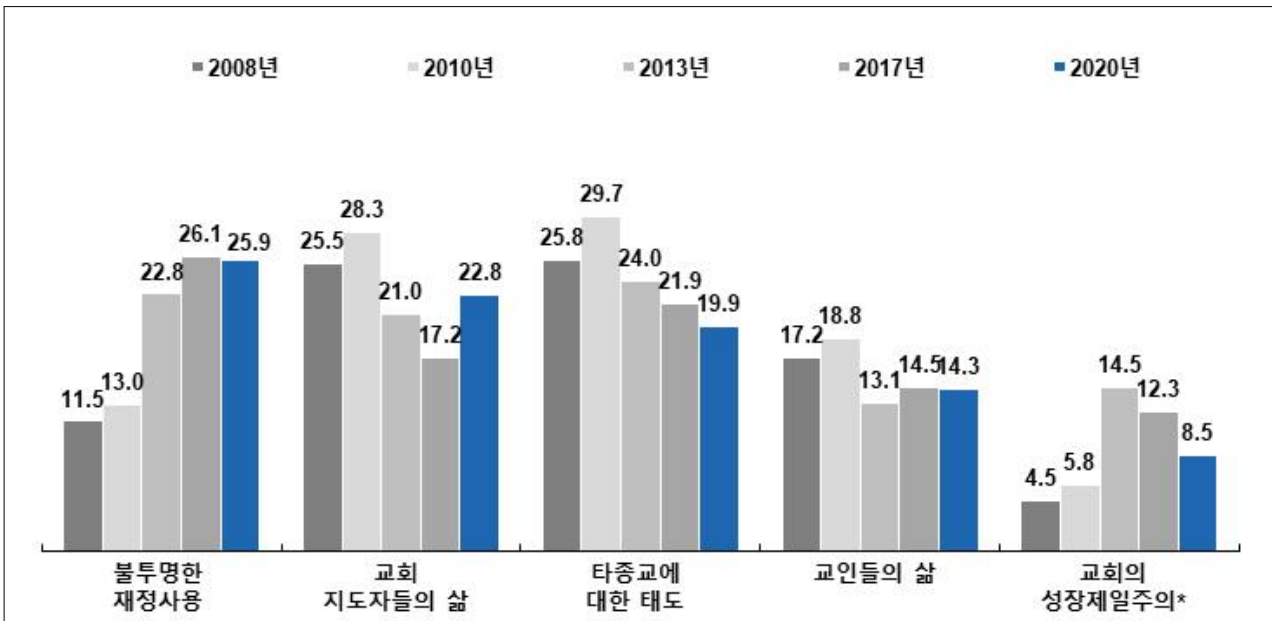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N=1000, %)



[그림] (참고) 과거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N=1000, %)



*2023년 조사부터는 '교회의 성장제일주의' 문항을 제외하고 '교회 이기주의'를 추가해서 조사하여 직접 비교하지 않음.

[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1순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교회 이기주의	교회 지도자 (목사)들의 삶	불투명한 재정 사용	타 종교에 대한 태도	교인들의 삶	잘 기타/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4.2	19.6	17.9	17.3	7.6	3.3	100.0
성별	남성	(498)	36.6	21.8	17.0	16.1	6.3	2.1	100.0
	여성	(502)	31.8	17.5	18.8	18.5	8.9	4.5	100.0
연령	20대	(159)	24.4	14.2	22.7	21.6	7.3	9.9	100.0
	30대	(149)	34.5	17.2	20.4	18.0	8.0	1.9	100.0
	40대	(186)	34.8	20.5	23.7	13.2	7.7	0.0	100.0
	50대	(197)	36.8	19.7	15.1	19.3	6.6	2.6	100.0
	60대 이상	(309)	37.1	23.0	12.6	16.0	8.2	3.1	100.0
지역	서울	(188)	37.8	18.6	15.8	19.4	6.2	2.3	100.0
	인천/경기	(319)	33.9	17.1	22.1	16.0	6.3	4.7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9.5	11.7	21.2	26.5	7.9	3.2	100.0
	광주/전라	(96)	38.3	20.0	9.1	17.6	10.0	5.1	100.0
	대구/경북	(150)	27.0	32.1	17.5	13.5	8.6	1.3	100.0
	부산/경남/울산	(98)	38.7	16.3	18.9	13.3	10.3	2.5	100.0
	강원/제주	(41)	38.8	26.0	7.1	17.4	8.3	2.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33.9	20.3	17.0	17.3	8.7	2.8	100.0
	중소도시	(321)	33.8	18.4	18.0	19.6	5.9	4.3	100.0
	읍/면	(82)	38.5	19.4	24.5	8.4	6.5	2.7	100.0
직업	자영업	(150)	28.6	34.4	18.8	11.2	5.6	1.5	100.0
	블루칼라	(293)	42.2	15.5	15.8	16.7	6.9	2.8	100.0
	화이트칼라	(246)	30.8	17.9	19.9	19.6	9.6	2.1	100.0
	가정주부	(185)	30.7	19.6	18.5	17.4	9.7	4.0	100.0
	학생	(53)	32.2	9.5	21.3	23.1	4.7	9.2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35.4	18.6	13.8	20.2	4.9	7.0	100.0
소득수준	상	(96)	34.1	26.3	14.2	15.6	7.9	1.8	100.0
	중	(374)	30.9	22.1	16.2	19.7	9.7	1.4	100.0
	하	(507)	37.8	17.1	20.6	15.6	6.2	2.7	100.0
	무응답	(23)	9.6	5.1	3.4	23.9	3.7	54.4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5.6	26.4	15.3	11.0	9.4	2.4	100.0
	중도	(469)	35.8	17.3	19.0	17.5	6.6	3.7	100.0
	진보	(233)	29.4	18.3	18.8	23.2	8.7	1.6	100.0
	잘 모르겠음	(43)	34.7	10.8	16.9	21.3	2.3	14.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22.2	32.1	19.7	10.0	13.9	2.1	100.0
	천주교(가톨릭)	(108)	36.9	24.5	16.4	17.2	4.8	0.3	100.0
	불교	(128)	29.8	11.5	18.8	31.6	5.5	2.9	100.0
	기타 종교	(32)	36.7	1.3	3.0	59.0	0.0	0.0	100.0
	종교 없음	(547)	39.0	16.9	17.6	15.2	6.8	4.5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25.2	24.1	19.5	15.1	14.7	1.5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37.5	18.7	18.3	17.9	4.9	2.7	100.0
	잘 모르겠음	(51)	23.0	14.4	6.4	18.5	17.3	20.4	100.0

5-2.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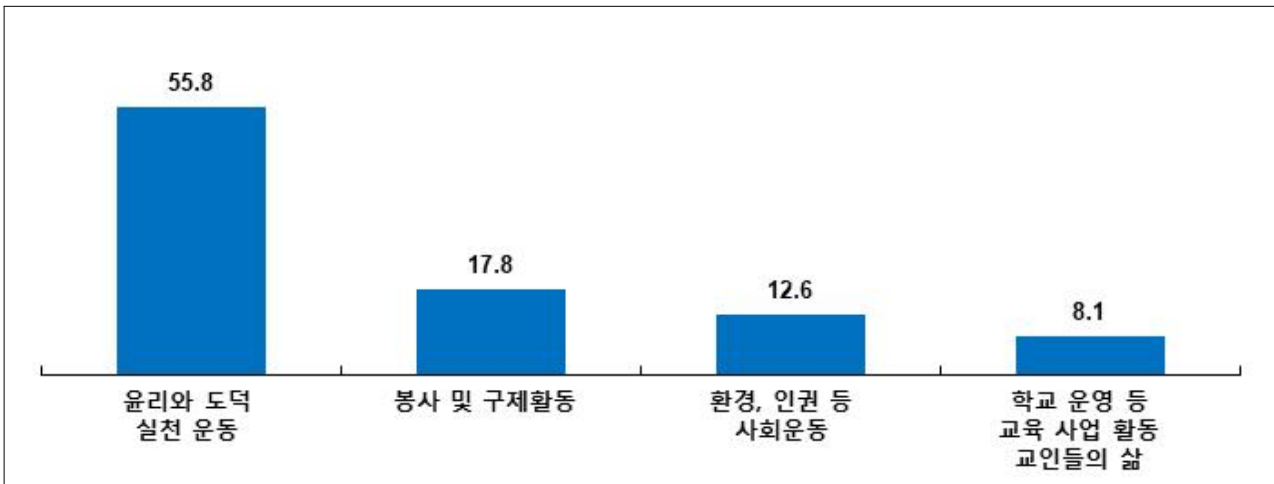
그럼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물었다. 응답자들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55.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이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순위로 응답되고 있다. 두 번째로, '봉사 및 구제활동' 17.8%,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12.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은 50대 이상, 이념적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은 20대와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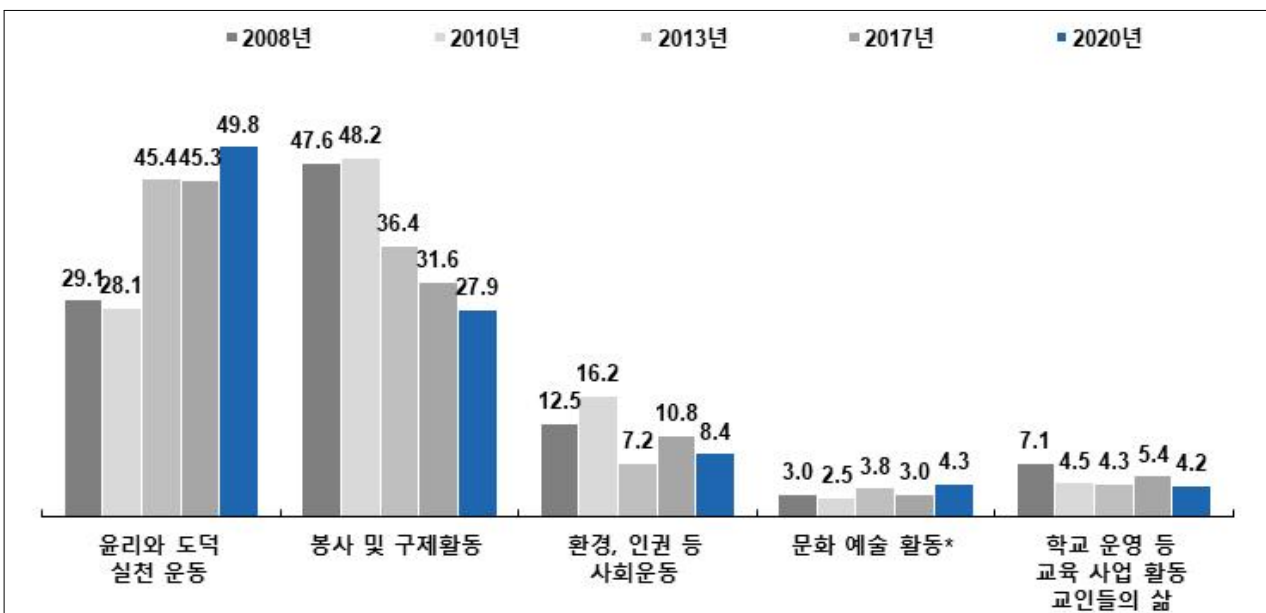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N=1000, %)



[그림] (참고) 과거 차수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N=1000, %)



*2023년 조사부터는 '문화 예술 활동' 문항 제외하고 조사하여 직접 비교하지 않음

[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봉사 및 구제 활동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기타/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55.8	17.8	12.6	8.1	5.6	100.0
성별	남성	(498)	54.1	21.6	10.8	9.0	4.4	100.0
	여성	(502)	57.4	14.0	14.4	7.3	6.9	100.0
연령	20대	(159)	38.0	20.0	19.6	15.1	7.4	100.0
	30대	(149)	50.1	18.3	14.3	13.6	3.8	100.0
	40대	(186)	49.4	17.5	13.7	11.1	8.4	100.0
	50대	(197)	60.5	20.0	11.3	3.1	5.1	100.0
	60대 이상	(309)	68.5	15.2	8.5	3.4	4.4	100.0
지역	서울	(188)	50.2	21.2	13.8	10.2	4.6	100.0
	인천/경기	(319)	52.5	14.7	13.8	11.7	7.4	100.0
	대전/충청/세종	(108)	53.2	23.9	12.0	4.1	7.0	100.0
	광주/전라	(96)	50.4	25.8	13.1	7.1	3.5	100.0
	대구/경북	(150)	69.8	12.1	10.2	6.3	1.7	100.0
	부산/경남/울산	(98)	60.6	15.2	12.9	4.3	7.0	100.0
강원/제주	(41)	63.2	19.0	7.6	.5	9.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54.5	16.5	12.7	11.6	4.6	100.0
	중소도시	(321)	59.6	17.3	12.2	3.4	7.5	100.0
	읍/면	(82)	49.6	29.1	14.1	1.4	5.8	100.0
직업	자영업	(150)	56.6	15.7	9.6	11.6	6.5	100.0
	블루칼라	(293)	52.6	15.9	16.3	9.6	5.6	100.0
	화이트칼라	(246)	58.3	19.2	11.0	6.5	5.0	100.0
	가정주부	(185)	64.2	17.0	8.6	5.3	5.0	100.0
	학생	(53)	31.8	23.9	28.8	10.5	5.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54.2	22.7	8.4	6.5	8.3	100.0
소득수준	상	(96)	57.8	18.5	8.8	11.8	3.1	100.0
	중	(374)	54.5	20.7	13.8	8.0	3.0	100.0
	하	(507)	57.6	16.2	12.1	7.6	6.5	100.0
	무응답	(23)	27.0	3.7	20.9	7.4	41.0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60.5	20.0	11.8	4.4	3.3	100.0
	중도	(469)	58.7	18.7	10.0	6.8	5.9	100.0
	진보	(233)	48.7	14.2	17.0	14.8	5.4	100.0
	잘 모르겠음	(43)	34.6	15.2	23.5	8.9	17.7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48.4	25.3	13.1	9.0	4.3	100.0
	천주교(가톨릭)	(108)	67.4	14.8	11.8	5.1	1.0	100.0
	불교	(128)	43.5	17.7	16.4	17.6	4.8	100.0
	기타 종교	(32)	19.7	42.5	37.8	0.0	0.0	100.0
	종교 없음	(547)	59.9	15.5	11.2	6.0	7.4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43.4	27.6	19.1	7.4	2.6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59.7	15.0	10.9	8.7	5.7	100.0
	잘 모르겠음	(51)	49.7	18.7	11.0	2.7	17.9	100.0

5-3.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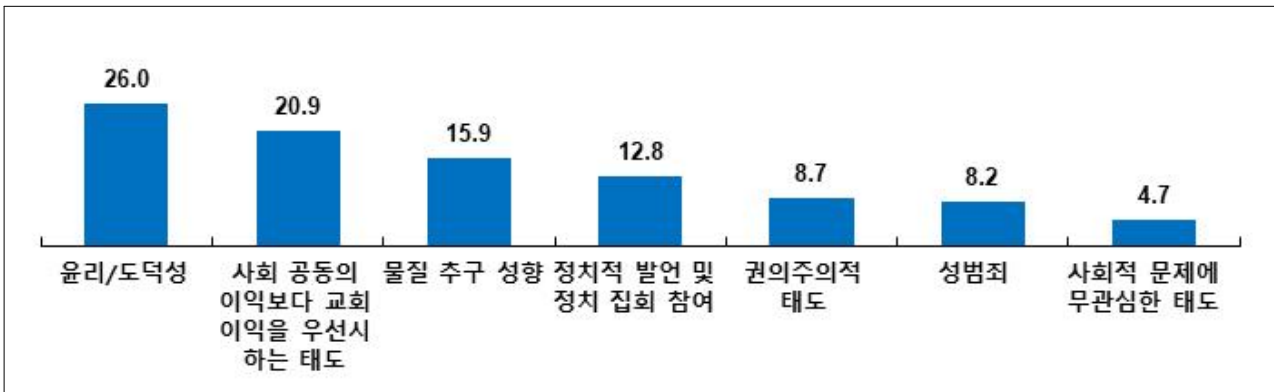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교회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이번에는 목회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윤리/도덕성' 26.0%을 가장 많이 응답해서 목회자의 윤리성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그 다음으로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20.9%, '물질 추구 성향' 15.9%,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집회 참여' 12.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다양한 요인이 크지 않은 차이로 응답해서 목회자 신뢰도 개선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과거 차수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보기 항목에 변경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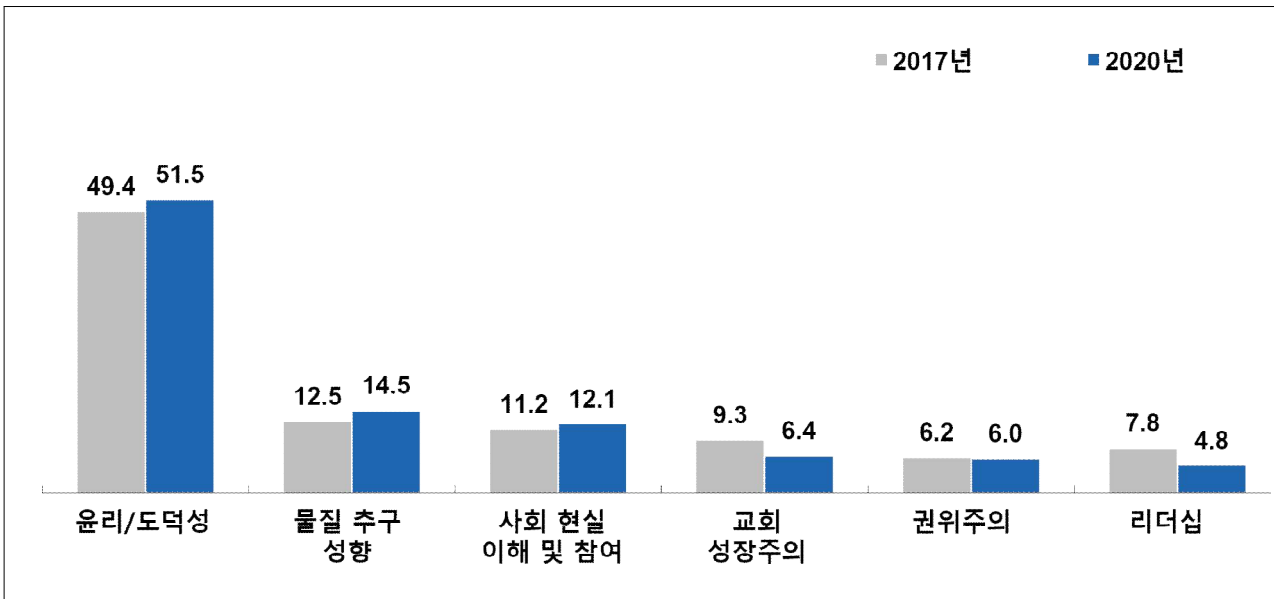
[그림]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그림] 참고 과거 차수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 2017, 2020년 조사와 보기문항이 많이 변경되어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음

[표]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윤리 /도덕성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키는 태도	물질 추구 성향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참여	권익주의 적 태도	성범죄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	기타/잘 모르겠음	계	
전체	(1000)	26.0	20.9	15.9	12.8	8.7	8.2	4.7	2.7	100.0	
성별	남성	(498)	25.1	20.5	15.6	15.5	9.7	7.0	5.5	1.0	100.0
	여성	(502)	26.9	21.3	16.2	10.2	7.8	9.3	4.0	4.3	100.0
연령	20대	(159)	22.0	15.9	14.5	11.8	9.5	12.9	6.7	6.9	100.0
	30대	(149)	16.8	16.7	10.1	14.1	14.0	18.5	7.8	2.0	100.0
	40대	(186)	26.3	17.7	22.5	7.2	10.7	10.2	4.5	1.0	100.0
	50대	(197)	25.4	28.6	19.7	13.1	6.2	2.7	3.7	0.6	100.0
	60대 이상	(309)	32.9	22.6	13.1	16.0	6.3	3.0	3.0	3.1	100.0
지역	서울	(188)	20.2	24.6	19.3	9.5	11.5	8.0	4.5	2.5	100.0
	인천/경기	(319)	24.7	20.3	17.3	12.4	6.8	7.2	8.2	3.0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0.6	25.2	16.0	9.4	12.6	7.6	1.9	6.6	100.0
	광주/전라	(96)	31.7	19.1	12.8	18.1	5.0	9.9	1.4	2.1	100.0
	대구/경북	(150)	36.0	21.9	13.5	8.6	6.0	7.7	5.7	0.6	100.0
	부산/경남/울산	(98)	31.8	13.8	12.7	18.3	10.4	11.0	1.0	1.0	100.0
	강원/제주	(41)	14.2	14.4	13.2	31.1	15.4	8.6	0.0	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4.6	21.2	16.7	13.2	7.9	8.9	5.3	2.1	100.0
	중소도시	(321)	29.2	21.1	14.6	12.0	9.0	6.5	4.6	2.9	100.0
	읍/면	(82)	23.8	17.9	15.3	14.0	13.5	8.7	1.3	5.4	100.0
직업	자영업	(150)	31.4	16.8	22.7	14.8	6.9	4.4	2.5	0.5	100.0
	블루칼라	(293)	24.7	23.6	17.0	9.5	10.7	7.1	5.9	1.4	100.0
	화이트칼라	(246)	24.7	23.7	11.6	12.5	6.6	13.1	4.6	3.2	100.0
	가정주부	(185)	29.6	19.8	16.3	14.9	9.8	3.8	3.0	2.9	100.0
	학생	(53)	12.4	11.1	14.5	15.8	8.1	19.6	13.5	5.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5.7	19.4	12.1	15.6	9.6	6.3	3.1	8.2	100.0
소득수준	상	(96)	26.7	21.0	21.3	7.3	9.2	10.4	2.5	1.5	100.0
	중	(374)	26.8	19.6	15.7	15.4	9.2	6.2	5.9	1.2	100.0
	하	(507)	25.9	22.3	14.9	12.1	8.7	9.3	4.2	2.6	100.0
	무응답	(23)	13.5	11.7	18.3	11.3	0.0	4.8	6.3	34.0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5.2	19.4	15.6	11.0	7.8	7.1	2.6	1.3	100.0
	중도	(469)	23.4	22.3	14.8	12.2	9.9	8.9	5.6	2.8	100.0
	진보	(233)	22.2	19.7	18.8	15.8	8.3	7.9	5.9	1.3	100.0
	잘 모르겠음	(43)	21.3	20.9	13.7	15.0	4.2	7.0	2.1	15.8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28.3	12.8	14.4	16.1	12.8	8.4	4.5	2.6	100.0
	천주교(가톨릭)	(108)	23.4	30.6	7.8	15.9	10.6	4.2	6.9	0.5	100.0
	불교	(128)	23.4	15.5	19.0	18.1	10.0	5.8	7.9	0.3	100.0
	기타 종교	(32)	1.3	0.0	68.8	0.0	5.7	15.7	8.5	0.0	100.0
	종교 없음	(547)	26.9	23.6	16.3	9.9	6.7	9.4	3.4	3.8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32.8	14.5	16.5	9.3	10.9	9.1	6.0	1.1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24.7	23.0	15.8	14.3	8.2	7.2	4.5	2.4	100.0
	잘 모르겠음	(51)	18.2	17.4	15.2	6.5	7.3	18.9	2.8	13.7	100.0

5-4.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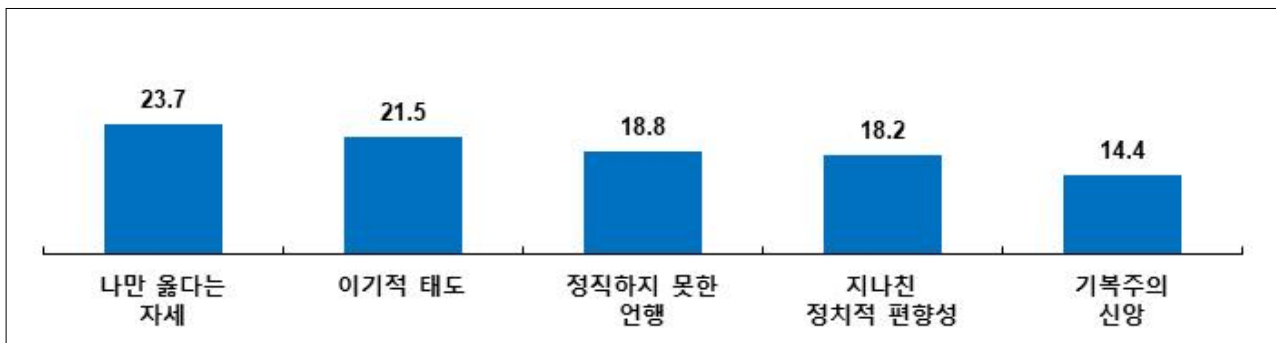
그럼, 기독교인(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개신교인이 신뢰받기 위해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나만 옳다는 자세' 23.7%, '이기적 태도' 21.5%, '정직하지 못한 언행' 18.8%,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18.2%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응답했다. 그만큼 다양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았을 때, 30대는 '이기적 태도'를, 60대 이상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무종교인들은 '나만 옳다는 자세'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종교인들보다 높았으며, 기독교인들과 가톨릭교인들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 개선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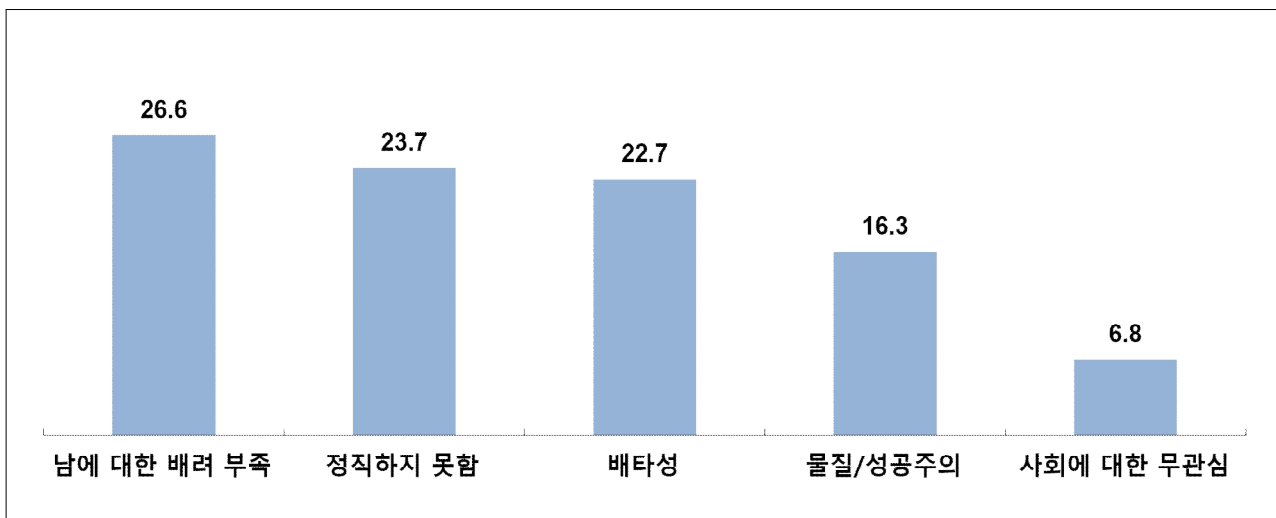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참고] 2020년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 2020년 조사와 보기 문항이 많이 변경되어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음

[표]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나만 옳다 는 자세	이기적 태도	정직하지 못 한 언행	지나친 정치 적 편향성	기복주의 신앙	기타/잘 모르겠음	계
전체		(1000)	23.7	21.5	18.8	18.2	14.4	3.4	100.0
성별	남성	(498)	28.2	21.9	16.3	18.2	13.8	1.6	100.0
	여성	(502)	19.3	21.2	21.2	18.1	15.0	5.2	100.0
연령	20대	(159)	23.8	22.2	13.0	15.5	17.8	7.6	100.0
	30대	(149)	23.7	25.4	11.2	20.0	17.6	2.1	100.0
	40대	(186)	27.0	24.6	23.7	11.8	10.8	2.1	100.0
	50대	(197)	25.3	18.8	16.4	20.7	15.5	3.2	100.0
	60대 이상	(309)	20.7	19.2	23.9	20.8	12.6	2.8	100.0
지역	서울	(188)	16.4	28.8	20.3	20.2	12.3	2.1	100.0
	인천/경기	(319)	24.7	21.4	22.0	12.9	14.6	4.2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7.0	16.5	23.2	9.9	18.0	5.3	100.0
	광주/전라	(96)	22.0	14.0	17.6	24.9	17.0	4.4	100.0
	대구/경북	(150)	26.4	20.5	14.7	21.2	15.8	1.4	100.0
	부산/경남/울산	(98)	28.3	20.1	10.2	30.3	9.2	1.9	100.0
강원/제주	(41)	24.3	27.1	12.3	15.5	14.0	6.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19.3	24.6	19.7	19.4	14.1	3.0	100.0
	중소도시	(321)	31.9	15.1	19.7	15.3	13.7	4.3	100.0
	읍/면	(82)	24.2	24.6	8.3	20.8	19.2	2.9	100.0
직업	자영업	(150)	30.0	15.8	17.8	21.3	15.0	0.0	100.0
	블루칼라	(293)	23.5	24.2	19.2	14.7	15.9	2.6	100.0
	화이트칼라	(246)	23.8	23.9	17.4	17.0	14.4	3.6	100.0
	가정주부	(185)	20.2	18.1	23.1	23.5	11.0	4.1	100.0
	학생	(53)	16.6	22.4	8.3	25.1	20.7	6.9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5.9	23.1	20.1	11.2	11.0	8.8	100.0
소득수준	상	(96)	23.6	25.2	21.7	9.8	15.3	4.4	100.0
	중	(374)	25.9	19.9	18.5	20.4	13.9	1.4	100.0
	하	(507)	22.1	22.3	18.9	18.5	15.1	3.2	100.0
	무응답	(23)	24.1	17.3	6.4	9.7	4.0	38.4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18.9	23.5	25.0	17.3	13.1	2.1	100.0
	중도	(469)	27.1	22.8	15.2	15.8	15.6	3.5	100.0
	진보	(233)	23.8	15.7	19.7	23.7	15.1	2.0	100.0
	잘 모르겠음	(43)	15.2	27.3	15.9	19.3	4.4	18.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3.3	17.8	24.1	20.1	21.0	3.7	100.0
	천주교(가톨릭)	(108)	22.2	17.7	24.7	19.6	15.8	0.0	100.0
	불교	(128)	24.8	20.8	14.7	24.3	14.2	1.2	100.0
	기타 종교	(32)	0.0	71.7	9.8	0.0	18.4	0.0	100.0
	종교 없음	(547)	27.7	22.9	17.0	15.9	11.8	4.7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8.8	23.7	26.2	14.2	15.1	2.0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24.4	21.3	17.5	20.1	13.8	2.9	100.0
	잘 모르겠음	(51)	34.3	16.6	7.0	6.0	19.5	16.7	100.0

6. 교회와 정치

6-1.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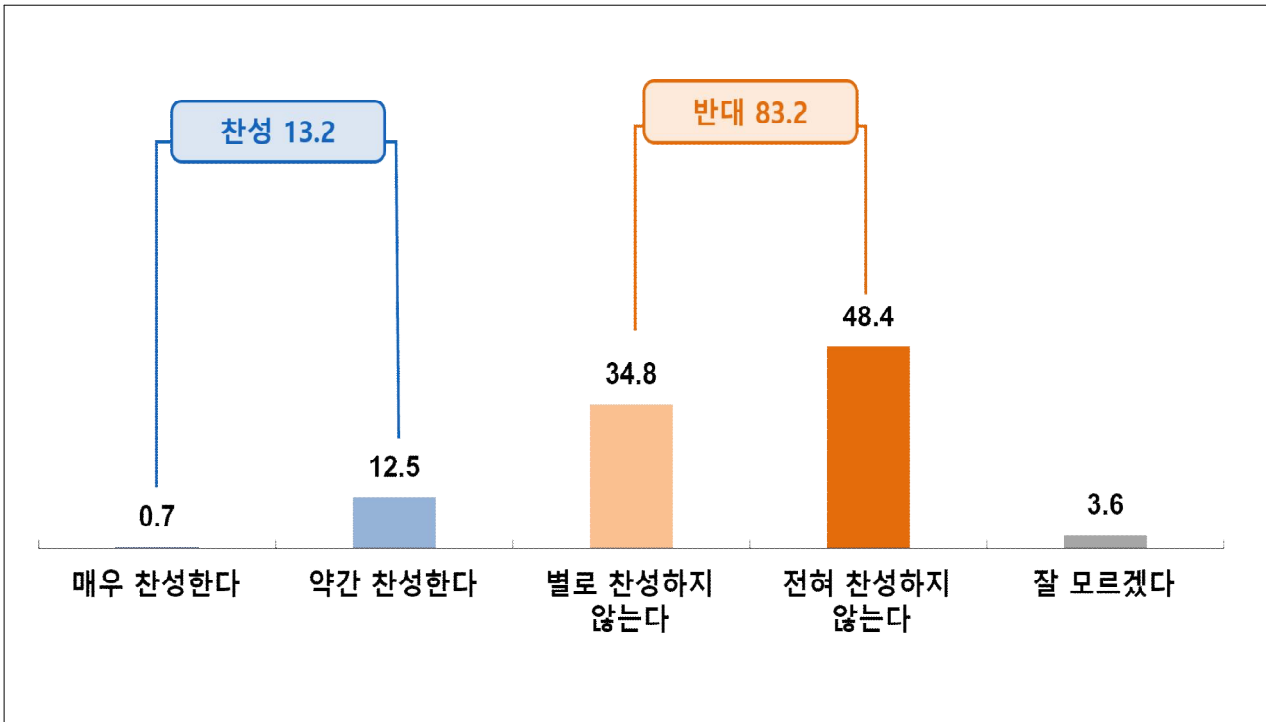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교회 혹은 목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이나 찬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한국 교회 혹은 목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 혹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회 혹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찬성 의견(약간+매우)이 13.2%, 반대 의견(별로+전혀)이 83.2%로 국민 5명 중 4명 이상은 교회 및 목사의 정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았을 때,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종교인은 70%대의 반대를 보였으나 무종교인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아서 90.2%였다.

[그림]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N=1000, %)



[표]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한다	약간 찬성 한다	별로 찬성 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 하지 않는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0.7	12.5	34.8	48.4	13.2	83.2	3.6	100.0
성별	남성	(498)	0.2	13.5	36.4	48.4	13.6	84.8	1.6	100.0
	여성	(502)	1.3	11.4	33.3	48.4	12.7	81.7	5.6	100.0
연령	20대	(159)	0.5	16.0	33.8	42.8	16.5	76.6	6.9	100.0
	30대	(149)	1.7	13.7	29.9	49.0	15.3	79.0	5.7	100.0
	40대	(186)	0.6	13.8	35.0	46.6	14.4	81.6	4.1	100.0
	50대	(197)	0.9	10.9	35.7	49.8	11.8	85.5	2.7	100.0
	60대 이상	(309)	0.3	10.2	37.1	51.1	10.6	88.2	1.2	100.0
지역	서울	(188)	0.0	17.9	37.0	42.3	17.9	79.3	2.8	100.0
	인천/경기	(319)	1.4	10.0	41.4	42.8	11.3	84.3	4.4	100.0
	대전/충청/세종	(108)	1.6	11.8	27.1	55.0	13.5	82.1	4.5	100.0
	광주/전라	(96)	0.0	16.2	30.1	51.3	16.2	81.4	2.4	100.0
	대구/경북	(150)	0.7	12.4	34.7	50.8	13.1	85.5	1.4	100.0
	부산/경남/울산	(98)	0.0	9.8	20.3	63.4	9.8	83.7	6.5	100.0
	강원/제주	(41)	0.0	6.0	41.0	49.9	6.0	90.9	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1.0	13.7	36.4	45.8	14.7	82.2	3.1	100.0
	중소도시	(321)	0.3	12.1	34.4	49.4	12.5	83.8	3.7	100.0
	읍/면	(82)	0.0	4.8	25.6	62.7	4.8	88.3	6.9	100.0
직업	자영업	(150)	0.0	19.4	43.8	36.8	19.4	80.6	.0	100.0
	블루칼라	(293)	0.0	14.5	35.0	46.3	14.5	81.3	4.2	100.0
	화이트칼라	(246)	0.7	12.2	30.9	53.6	12.8	84.5	2.7	100.0
	가정주부	(185)	2.1	6.2	34.8	53.7	8.3	88.5	3.1	100.0
	학생	(53)	0.0	14.4	30.3	47.2	14.4	77.6	8.1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3	5.4	32.7	49.9	7.8	82.5	9.7	100.0
소득수준	상	(96)	1.1	12.9	24.6	58.7	14.0	83.4	2.7	100.0
	중	(374)	1.1	16.2	37.0	42.9	17.3	79.8	2.8	100.0
	하	(507)	0.4	9.8	34.7	51.9	10.2	86.6	3.2	100.0
	무응답	(23)	0.0	8.6	46.1	15.6	8.6	61.6	29.7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1.5	16.7	34.9	46.2	18.2	81.1	.7	100.0
	중도	(469)	0.5	11.7	36.3	47.3	12.2	83.6	4.3	100.0
	진보	(233)	0.5	9.9	34.3	53.8	10.3	88.1	1.6	100.0
	잘 모르겠음	(43)	0.0	9.8	21.3	44.3	9.8	65.5	24.7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0.6	22.8	44.2	31.0	23.4	75.2	1.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8	16.8	21.8	57.7	18.6	79.5	2.0	100.0
	불교	(128)	0.0	25.1	31.2	38.8	25.1	70.0	4.9	100.0
	기타 종교	(32)	0.0	8.5	37.8	53.7	8.5	91.5	.0	100.0
	종교 없음	(547)	0.8	4.7	35.2	55.0	5.4	90.2	4.4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2.6	30.8	37.6	27.7	33.4	65.3	1.3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2	7.8	34.6	55.5	8.0	90.1	1.9	100.0
	잘 모르겠음	(51)	0.0	4.4	26.9	30.0	4.4	56.8	38.8	100.0

6-2.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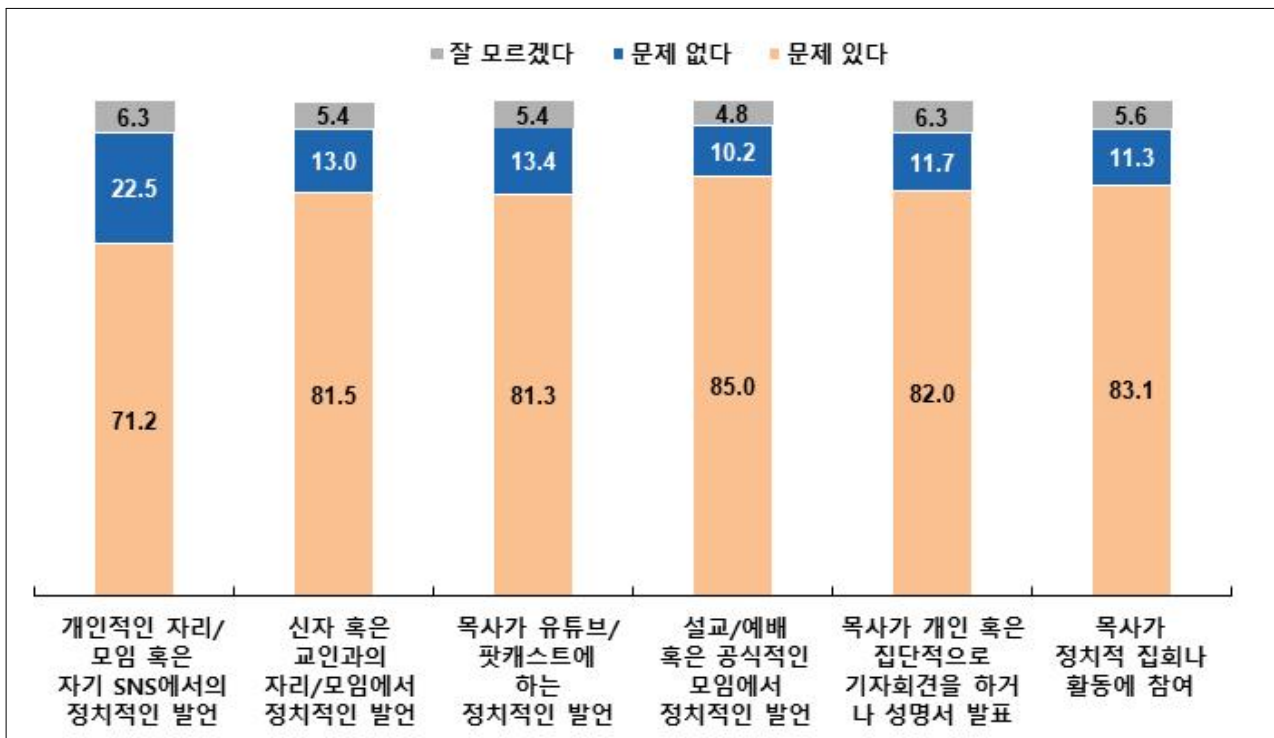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발언 혹은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기독교 목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국민들은 70% 이상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의 정치적 발언 및 참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20% 이하만이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참여가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즉,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 기독교인들은 국민 평균보다 최소 10%가량씩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응답하였다. 가톨릭은 국민 평균과 비슷했으며 불교인과 무종교인은 국민 평균보다 덜 호의적이었다.
-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들도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다른 응답자 계층보다는 호의적으로 응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N=1000, %)



[표]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전혀+별로' 문제 없다)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개인적인 자리/모임 혹은 자기 SNS에서의 정치적인 발언	신자 혹은 교인과의 자리/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	목사가 유튜브/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하는 정치적인 발언	설교/예배 혹은 공식적인 정치적인 발언	목사가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서 발표	목사가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
전체		(1000)	22.5	13.0	13.4	10.2	11.7	11.3
성별	남성	(498)	21.7	13.1	15.0	10.3	13.7	11.0
	여성	(502)	23.3	13.0	11.8	10.0	9.7	11.6
연령	20대	(159)	21.3	19.1	15.4	8.5	17.5	11.2
	30대	(149)	18.1	13.1	7.4	8.4	8.3	10.2
	40대	(186)	24.1	10.5	24.1	13.4	17.6	15.5
	50대	(197)	29.3	11.9	10.8	9.2	9.0	10.5
	60대 이상	(309)	20.0	12.1	10.4	10.6	8.5	9.9
지역	서울	(188)	20.2	9.9	13.6	11.2	10.8	12.2
	인천/경기	(319)	23.2	9.7	15.9	9.0	12.2	10.6
	대전/충청/세종	(108)	17.4	9.6	13.3	7.0	9.0	7.5
	광주/전라	(96)	18.6	22.8	13.2	13.8	12.4	14.2
	대구/경북	(150)	27.9	19.0	9.7	12.2	14.3	9.8
	부산/경남/울산	(98)	25.8	14.6	12.1	11.0	12.2	15.6
강원/제주	(41)	22.6	13.8	9.8	5.2	6.0	11.6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1.9	13.0	13.5	11.1	11.4	12.5
	중소도시	(321)	24.8	14.9	13.6	9.2	13.0	10.1
	읍/면	(82)	18.2	6.0	11.2	7.2	8.1	7.8
직업	자영업	(150)	23.1	14.6	18.7	12.1	15.4	14.5
	블루칼라	(293)	24.0	12.7	17.5	12.3	12.0	13.5
	화이트칼라	(246)	24.0	15.4	11.8	8.9	12.8	10.8
	가정주부	(185)	19.4	8.9	5.4	10.6	6.0	9.2
	학생	(53)	20.5	19.8	18.6	4.2	21.8	5.4
	무직/기타/무응답	(73)	19.9	9.2	7.8	5.3	6.4	7.6
소득수준	상	(96)	29.0	11.0	14.4	5.9	4.9	12.4
	중	(374)	25.6	16.5	15.2	12.8	16.3	12.2
	하	(507)	20.0	11.2	11.9	9.4	9.8	10.7
	무응답	(23)	0.0	6.3	11.7	2.3	6.3	6.3
이념성향	보수	(255)	34.1	18.8	20.5	21.7	15.2	15.5
	중도	(469)	18.2	12.1	10.9	6.7	10.8	10.0
	진보	(233)	19.9	9.4	11.2	6.0	10.2	11.0
	잘 모르겠음	(43)	15.4	9.3	10.6	2.2	8.9	2.1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36.8	25.1	26.6	24.8	24.1	18.2
	천주교(가톨릭)	(108)	25.9	18.1	15.2	14.1	11.7	13.6
	불교	(128)	15.5	9.0	11.8	9.5	12.3	10.0
	기타 종교	(32)	77.3	0.0	0.0	46.3	8.5	8.5
	종교 없음	(547)	18.0	9.3	9.1	4.0	7.4	8.9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47.7	26.9	32.7	28.4	25.0	26.2
	신뢰하지 않음	(740)	16.7	9.8	8.8	5.7	8.6	7.2
	잘 모르겠음	(51)	3.3	3.2	0.3	0.0	1.0	9.8

6-3.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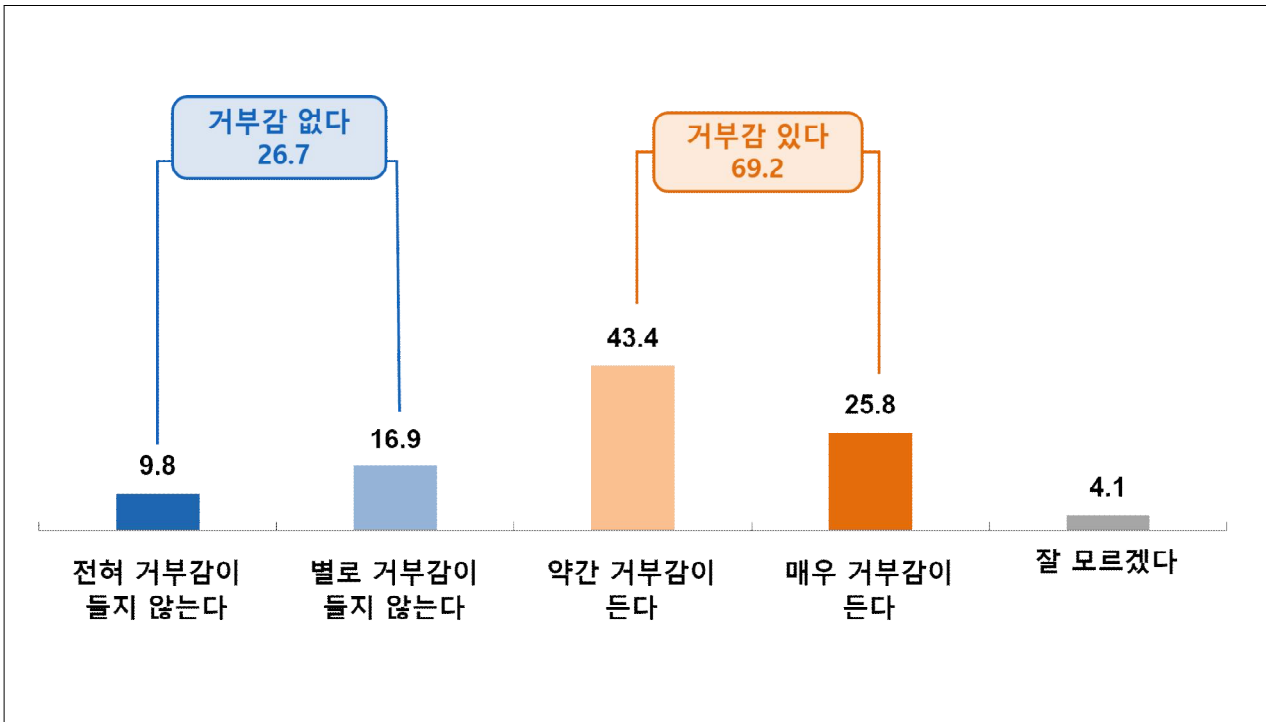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집회에 십자가 혹은 기독교 단체 이름이 적힌 팻말 등을 들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하나만)



-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떠한 감정이 들고 있는지 물었다. '거부감 있다'(약간+매우) 69.2%로 약 10중 7명은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었으며 4명 가운데 1명 꼴인 26.7%만이 '거부감 없다'고 응답했다.
-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은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은 가톨릭, 불교, 무종교인에 비해 36.2%가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개신교인 3명 중 1명 정도는 개신교인들의 집회참여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다.
- 흥미로운 것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거부감이 없어지는 경향성이 보이는 것이다. 60대 이상은 기독교인들의 집회 참여를 79.3%가 즉, 5명 중 4명은 반대하고 있지만, 20대는 약 절반 52.6%만이 집회 참여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림]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N=1000, %)



[표]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거부 감이 들지 않는다	별로 거부 감이 들지 않는다	약간 거부 감이 든다	매우 거부 감이 드다	긍정 (전혀+ 별로)	부정 (약간+ 매우)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9.8	16.9	25.8	43.4	26.7	69.2	4.1	100.0
성별	남성	(498)	11.8	19.2	26.2	41.0	31.0	67.1	1.8	100.0
	여성	(502)	7.8	14.5	25.4	45.9	22.3	71.3	6.4	100.0
연령	20대	(159)	17.1	24.4	26.5	26.1	41.4	52.6	6.0	100.0
	30대	(149)	15.3	16.2	22.2	40.8	31.6	63.0	5.5	100.0
	40대	(186)	9.9	22.7	17.9	45.7	32.5	63.6	3.8	100.0
	50대	(197)	10.3	8.2	28.3	48.5	18.5	76.9	4.7	100.0
	60대 이상	(309)	3.1	15.3	30.3	49.0	18.4	79.3	2.3	100.0
지역	서울	(188)	12.3	17.8	26.4	41.2	30.1	67.6	2.3	100.0
	인천/경기	(319)	10.5	21.1	22.4	40.9	31.6	63.4	5.0	100.0
	대전/충청/세종	(108)	13.6	14.3	26.5	40.8	27.8	67.3	4.9	100.0
	광주/전라	(96)	6.1	17.2	27.4	44.0	23.3	71.3	5.3	100.0
	대구/경북	(150)	8.2	15.6	34.6	39.4	23.8	74.1	2.2	100.0
	부산/경남/울산	(98)	6.4	11.4	12.8	65.1	17.8	77.9	4.3	100.0
	강원/제주	(41)	5.7	3.1	42.4	42.1	8.8	84.5	6.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11.4	18.1	27.1	40.0	29.4	67.1	3.4	100.0
	중소도시	(321)	6.8	13.9	26.7	47.2	20.7	73.9	5.4	100.0
	읍/면	(82)	10.1	19.6	12.3	53.9	29.7	66.3	4.0	100.0
직업	자영업	(150)	10.7	25.2	22.2	41.8	35.9	64.1	0.0	100.0
	블루칼라	(293)	13.2	18.3	26.7	36.1	31.5	62.8	5.7	100.0
	화이트칼라	(246)	9.4	12.6	26.2	50.1	22.0	76.3	1.7	100.0
	가정주부	(185)	4.6	11.4	26.8	51.6	16.1	78.4	5.6	100.0
	학생	(53)	10.4	32.6	28.0	27.2	43.0	55.2	1.9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8.4	10.7	24.3	44.8	19.1	69.1	11.8	100.0
소득수준	상	(96)	8.2	10.5	19.9	57.7	18.7	77.6	3.7	100.0
	중	(374)	11.3	19.2	28.3	39.4	30.5	67.7	1.8	100.0
	하	(507)	8.9	15.8	25.5	45.1	24.7	70.7	4.6	100.0
	무응답	(23)	12.4	29.1	15.8	10.8	41.5	26.7	31.8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9.9	12.8	31.7	43.2	22.7	74.9	2.4	100.0
	중도	(469)	7.7	18.3	26.7	43.8	26.1	70.5	3.4	100.0
	진보	(233)	15.7	17.8	19.2	45.9	33.5	65.1	1.4	100.0
	잘 모르겠음	(43)	0.0	19.7	16.9	27.5	19.7	44.5	35.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2.7	23.5	36.8	25.8	36.2	62.6	1.2	100.0
	천주교(가톨릭)	(108)	5.2	16.2	24.4	52.3	21.5	76.8	1.8	100.0
	불교	(128)	11.8	20.4	26.5	36.0	32.3	62.5	5.3	100.0
	기타 종교	(32)	53.4	0.0	0.0	38.0	53.4	38.0	8.5	100.0
	종교 없음	(547)	8.4	14.0	22.6	49.8	22.5	72.4	5.1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2.2	26.5	40.0	21.2	38.7	61.2	0.1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9.0	15.0	22.4	50.8	24.0	73.1	2.8	100.0
	잘 모르겠음	(51)	11.3	4.4	17.0	28.5	15.7	45.5	38.8	100.0

6-4. 대통령/특정 정치인 초청 기도회에 대한 생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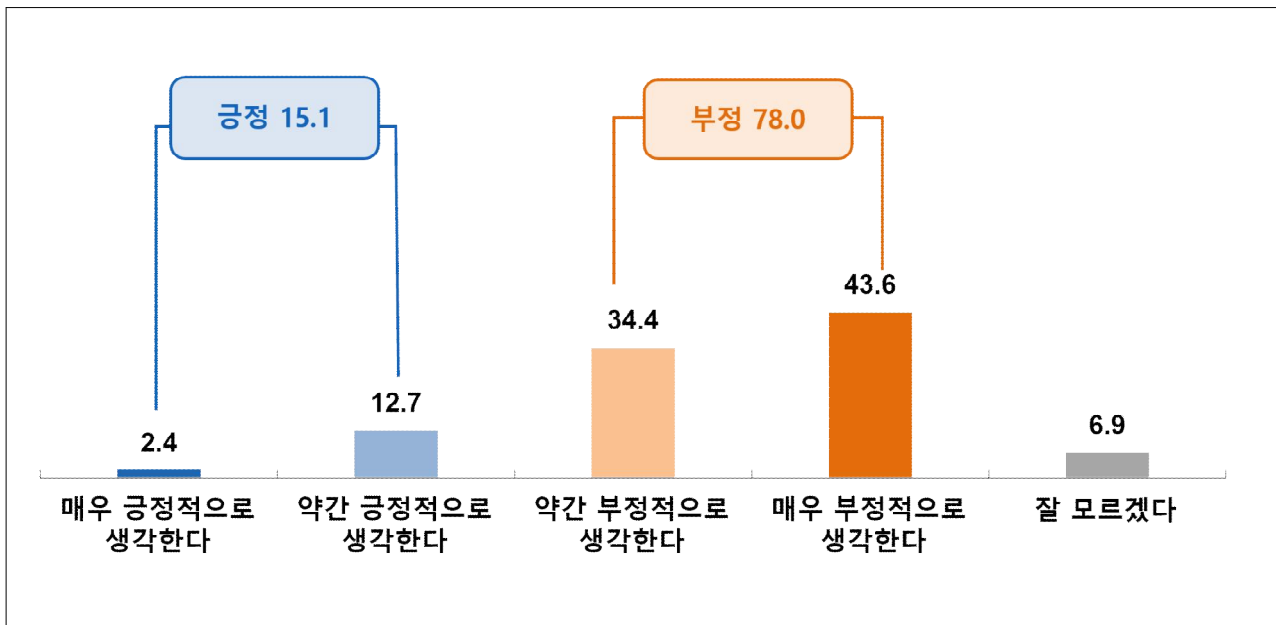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기독교 목사들이 대통령 혹은 특정 정치인을 초청하여 대통령/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기독교 목사들이 대통령 혹은 특정 정치인을 초청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모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15.1%의 국민이 '긍정'(매우+약간)의 의견을 보였고 대다수인 78.0%의 국민은 '부정'(약간+매우)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한국교회 및 목사들의 정치 참여 의견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았을 때, 개신교인들과 이념 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들에게서 긍정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타연령층과 대비하여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그림] 대통령/특정 정치인 초청 기도회에 대한 생각

(N=1000, %)



[표] 대통령/특정 정치인 초청 기도회에 대한 생각(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긍정 적으로 생 각하다	약간 긍정 적으로 생 각한다	약간 부정 적으로 생 각한다	매우 부정 적으로 생 각한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약간+ 매우)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4	12.7	34.4	43.6	15.1	78.0	6.9	100.0
성별	남성	(498)	2.5	13.0	36.1	42.6	15.5	78.7	5.8	100.0
	여성	(502)	2.3	12.4	32.6	44.7	14.7	77.3	8.0	100.0
연령	20대	(159)	0.5	10.5	37.9	35.1	11.0	73.0	16.0	100.0
	30대	(149)	0.7	11.0	34.6	45.0	11.7	79.6	8.8	100.0
	40대	(186)	3.2	12.4	38.7	41.9	15.6	80.5	3.9	100.0
	50대	(197)	3.7	7.3	29.5	54.1	11.0	83.6	5.4	100.0
	60대 이상	(309)	2.7	18.3	33.0	41.7	21.1	74.7	4.2	100.0
지역	서울	(188)	0.7	15.0	42.4	35.7	15.7	78.2	6.1	100.0
	인천/경기	(319)	3.6	10.3	36.0	44.2	13.9	80.2	5.9	100.0
	대전/충청/세종	(108)	1.8	14.1	27.5	47.9	15.9	75.5	8.7	100.0
	광주/전라	(96)	3.3	21.9	39.3	29.0	25.2	68.3	6.6	100.0
	대구/경북	(150)	2.4	10.6	36.2	44.8	12.9	81.0	6.1	100.0
	부산/경남/울산	(98)	0.0	9.7	13.7	67.8	9.7	81.5	8.9	100.0
	강원/제주	(41)	5.2	11.5	33.7	36.2	16.7	69.9	13.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5	12.6	40.8	38.7	15.1	79.5	5.4	100.0
	중소도시	(321)	2.7	12.1	26.2	50.9	14.8	77.1	8.1	100.0
	읍/면	(82)	0.0	15.9	19.8	50.6	15.9	70.4	13.6	100.0
직업	자영업	(150)	3.6	13.3	44.4	36.9	16.9	81.3	1.8	100.0
	블루칼라	(293)	3.5	9.0	38.2	42.4	12.6	80.7	6.7	100.0
	화이트칼라	(246)	1.2	13.9	31.2	48.6	15.2	79.9	4.9	100.0
	가정주부	(185)	2.5	16.8	28.0	45.2	19.3	73.1	7.6	100.0
	학생	(53)	0.0	6.0	40.1	35.1	6.0	75.3	18.7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0.4	16.6	20.5	47.6	17.0	68.2	14.8	100.0
소득수준	상	(96)	1.1	13.7	23.3	58.0	14.8	81.4	3.8	100.0
	중	(374)	2.9	16.3	36.4	37.5	19.2	73.8	7.0	100.0
	하	(507)	2.3	10.5	35.6	45.4	12.8	81.0	6.3	100.0
	무응답	(23)	0.0	0.0	21.4	44.5	0.0	65.9	34.1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6.7	23.7	32.4	34.2	30.4	66.6	2.9	100.0
	중도	(469)	1.1	9.8	36.5	44.7	10.9	81.3	7.9	100.0
	진보	(233)	0.7	8.7	32.8	53.7	9.4	86.5	4.1	100.0
	잘 모르겠음	(43)	0.0	1.1	30.9	32.6	1.1	63.5	35.3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0.0	26.7	34.2	23.5	36.6	57.7	5.6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8	18.8	31.1	43.8	20.6	75.0	4.4	100.0
	불교	(128)	0.0	7.7	41.6	43.5	7.7	85.0	7.3	100.0
	기타 종교	(32)	0.0	0.0	51.8	39.7	0.0	91.5	8.5	100.0
	종교 없음	(547)	0.6	8.4	32.8	50.5	9.0	83.3	7.7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0.0	34.9	30.5	19.2	44.8	49.7	5.4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4	6.9	35.4	51.8	7.3	87.2	5.6	100.0
	잘 모르겠음	(51)	0.0	5.9	35.4	26.0	5.9	61.4	32.7	100.0

6-5. 기독교인 국회의원 인지율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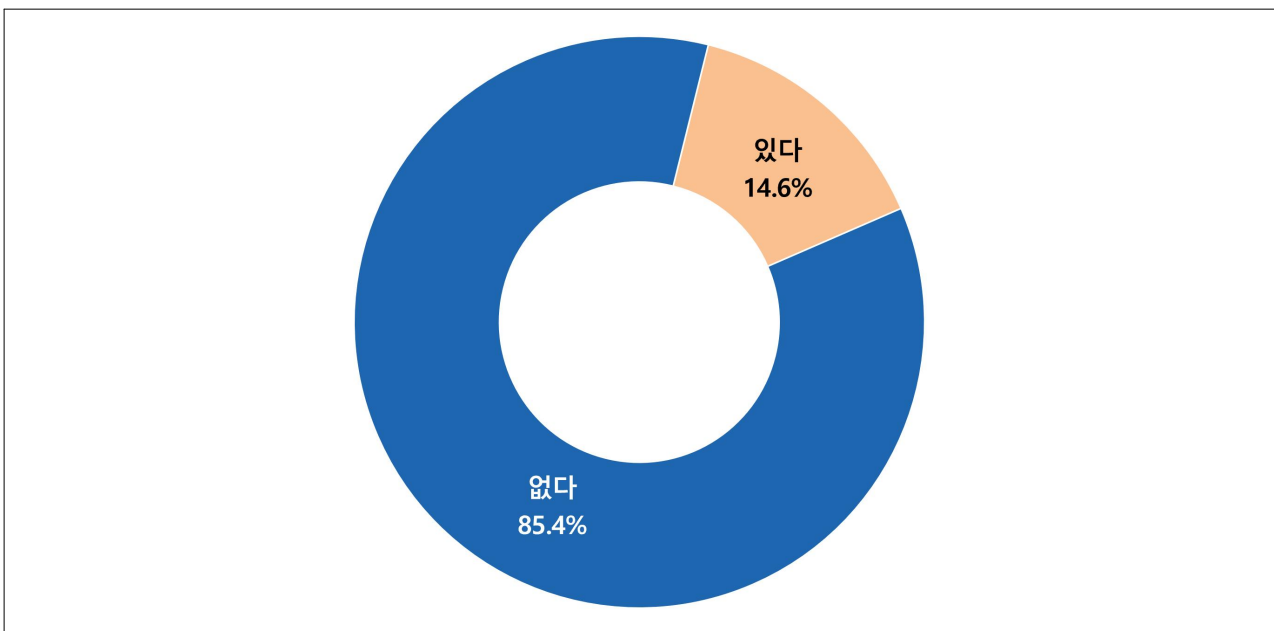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정치인 가운데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만)



- 응답자들에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14.6%, '없다'의 비율은 85.4%였다. 정치가 기독교 색채를 띠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 흥미로운 점은 종교별로 보았을 때, 기독교인보다 불교인들이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와 가톨릭과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념성향이 '진보'인 응답자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기독교인 국회의원 인지율

(N=1000, %)



[표] 기독교인 국회의원 인지도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0)	14.6	85.4	100.0
성별	남성	(498)	15.6	84.4	100.0
	여성	(502)	13.6	86.4	100.0
연령	20대	(159)	10.1	89.9	100.0
	30대	(149)	20.9	79.1	100.0
	40대	(186)	14.8	85.2	100.0
	50대	(197)	11.8	88.2	100.0
	60대 이상	(309)	15.5	84.5	100.0
지역	서울	(188)	17.2	82.8	100.0
	인천/경기	(319)	15.2	84.8	100.0
	대전/충청/세종	(108)	9.9	90.1	100.0
	광주/전라	(96)	13.6	86.4	100.0
	대구/경북	(150)	15.0	85.0	100.0
	부산/경남/울산	(98)	13.7	86.3	100.0
	강원/제주	(41)	13.4	86.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16.0	84.0	100.0
	중소도시	(321)	11.6	88.4	100.0
	읍/면	(82)	15.9	84.1	100.0
직업	자영업	(150)	15.7	84.3	100.0
	블루칼라	(293)	13.8	86.2	100.0
	화이트칼라	(246)	16.8	83.2	100.0
	가정주부	(185)	15.3	84.7	100.0
	학생	(53)	5.6	94.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12.8	87.2	100.0
소득수준	상	(96)	25.2	74.8	100.0
	중	(374)	15.5	84.5	100.0
	하	(507)	12.4	87.6	100.0
	무응답	(23)	4.8	95.2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18.1	81.9	100.0
	중도	(469)	9.7	90.3	100.0
	진보	(233)	23.4	76.6	100.0
	잘 모르겠음	(43)	0.0	100.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8.3	81.7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8.4	81.6	100.0
	불교	(128)	29.5	70.5	100.0
	기타 종교	(32)	0.0	100.0	100.0
	종교 없음	(547)	8.7	91.3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20.3	79.7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13.8	86.2	100.0
	잘 모르겠음	(51)	2.8	97.2	100.0

6-6. 기독교인 국회의원 평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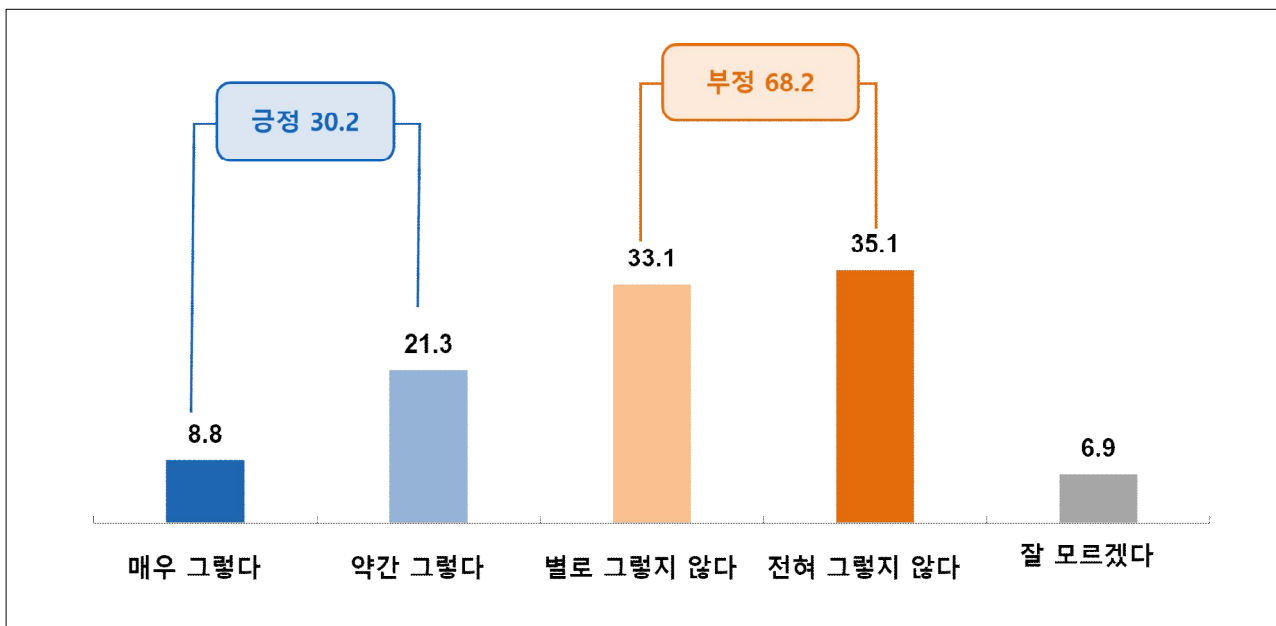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기독교 가르침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긍정 평가(약간+매우)는 30.2%, 부정 평가(별로+전혀)는 68.2%로 약 10명 중 3명만이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기독교에 가르침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응답자 특성으로 나누어볼 때, 50대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진보적인 응답자들은 기독교인 국회의원에 대해 절반은 긍정 평가를, 나머지 절반은 부정 평가를 하여 타 정치성향 응답자들보다 높은 긍정 응답을 보였다.
- 마지막으로 종교별로 나누어보면 기독교와 불교에서 기독교 국회의원에 대한 긍정 평가가 타종교인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기독교인 국회의원 평가

(N=146, 기독교인 국회의원 인지자, %)



[표] 기독교인 국회의원 평가

(N=146, 기독교인 국회의원 인지자,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별로+ 전혀)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46)	8.8	21.3	33.1	35.1	30.2	68.2	1.6	100.0
성별	남성	(78)	12.4	17.1	37.8	32.8	29.4	70.6	0.0	100.0
	여성	(69)	4.9	26.1	27.9	37.7	31.0	65.6	3.4	100.0
연령	20대	(16)	33.4	27.8	25.2	13.7	61.2	38.8	0.0	100.0
	30대	(31)	18.3	6.3	29.2	40.0	24.6	69.2	6.3	100.0
	40대	(28)	1.6	32.0	40.7	24.3	33.6	65.0	1.4	100.0
	50대	(23)	1.2	17.3	37.3	44.2	18.5	81.5	0.0	100.0
	60대 이상	(48)	2.4	24.7	32.0	40.9	27.1	72.9	0.0	100.0
지역	서울	(32)	17.0	18.8	32.3	31.9	35.8	64.2	0.0	100.0
	인천/경기	(48)	3.0	38.1	33.8	24.3	41.1	58.1	0.8	100.0
	대전/충청/세종	(11)	0.0	4.5	33.4	62.0	4.5	95.5	0.0	100.0
	광주/전라	(13)	22.7	0.0	23.7	38.6	22.7	62.3	15.0	100.0
	대구/경북	(22)	0.0	19.6	35.6	44.9	19.6	80.4	0.0	100.0
	부산/경남/울산	(13)	6.3	12.7	42.5	38.5	19.1	80.9	0.0	100.0
	강원/제주	(6)	39.0	0.0	21.5	39.6	39.0	61.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96)	10.4	23.9	36.9	28.9	34.3	65.7	0.0	100.0
	중소도시	(37)	0.0	22.1	25.1	46.5	22.1	71.6	6.3	100.0
	읍/면	(13)	23.0	0.0	28.7	48.3	23.0	77.0	0.0	100.0
직업	자영업	(24)	16.5	33.5	7.6	42.4	50.0	50.0	0.0	100.0
	블루칼라	(41)	0.0	37.2	43.9	18.9	37.2	62.8	0.0	100.0
	화이트칼라	(41)	12.6	12.7	36.4	37.3	25.4	73.7	.9	100.0
	가정주부	(28)	0.0	9.4	38.0	45.7	9.4	83.7	6.9	100.0
	학생	(3)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무직/기타/무응답	(9)	9.1	2.5	32.2	56.2	11.7	88.3	0.0	100.0
소득수준	상	(24)	8.3	25.2	42.0	24.5	33.5	66.5	0.0	100.0
	중	(58)	8.2	28.9	30.4	32.5	37.1	62.9	0.0	100.0
	하	(63)	8.5	13.2	32.8	41.8	21.7	74.6	3.7	100.0
	무응답	(1)	78.3	0.0	0.0	21.7	78.3	21.7	0.0	100.0
이념성향	보수	(46)	5.1	20.8	35.8	38.3	25.9	74.1	0.0	100.0
	중도	(45)	1.9	10.5	39.6	43.7	12.4	83.3	4.3	100.0
	진보	(54)	17.8	30.7	25.6	25.2	48.5	50.7	0.7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34)	18.0	21.8	26.6	33.6	39.8	60.2	0.0	100.0
	천주교(가톨릭)	(20)	7.0	20.9	15.4	56.7	27.9	72.1	0.0	100.0
	불교	(44)	9.3	30.0	41.1	15.2	39.3	56.3	4.4	100.0
	종교 없음	(48)	2.7	13.1	37.9	45.6	15.8	83.4	0.8	100.0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43)	13.8	36.1	22.5	27.6	49.9	50.1	0.0	100.0
	신뢰하지 않음	(102)	6.9	15.4	36.7	38.7	22.3	75.4	2.3	100.0
	잘 모르겠음	(1)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6-7. 종교별 정치적 이념 이미지 평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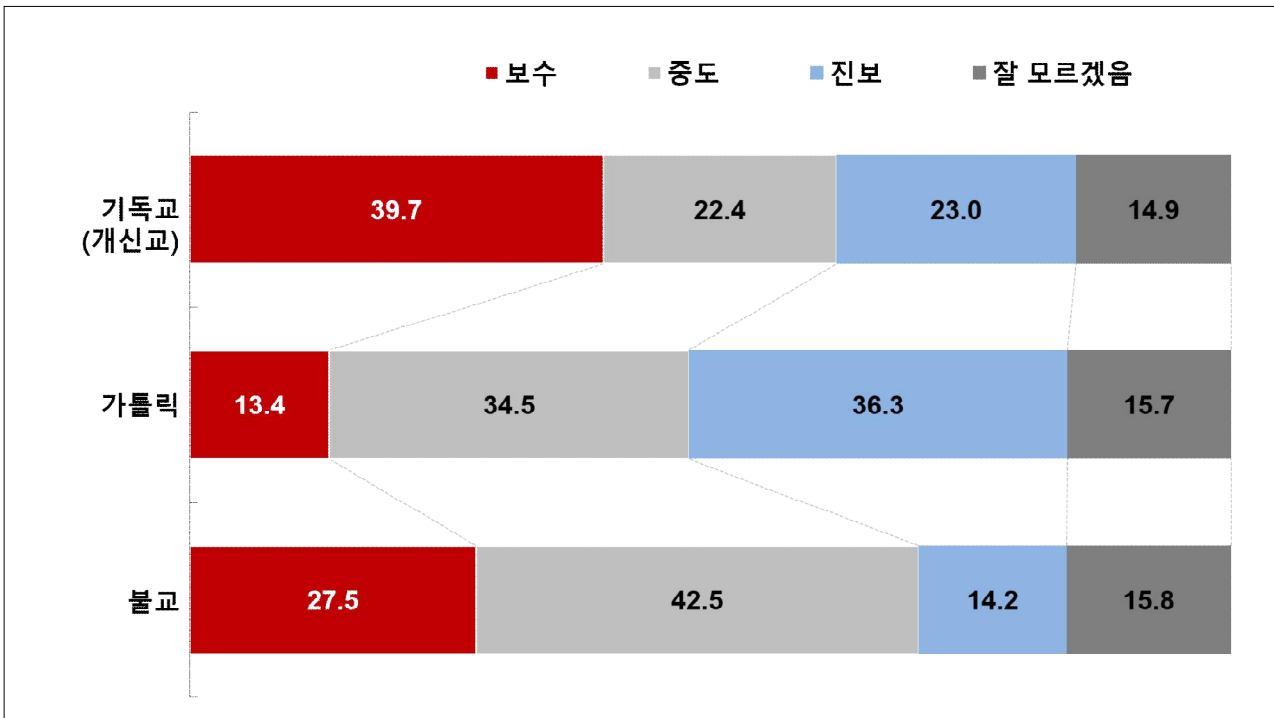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다음 종교가 정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국민들에게 각 종교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보수(매우+약간 보수적) 39.7%, 중도 22.4%, 진보(약간+매우 진보적) 23.0%로 3개 종교 가운데 가장 보수적 색채가 강했다. 가톨릭은 보수(매우+약간 보수적) 13.4%, 중도 34.5%, 진보(약간+매우 진보적) 36.3%로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종교로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보수(매우+약간 보수적) 27.5%, 중도 42.5%, 진보(약간+매우 진보적) 14.2%로 가장 중도적 이미지의 종교로 응답했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은 본인들을 스스로 보수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40~50대에서 기독교를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종교별 정치적 이념 이미지 평가

(N=1000, %)



[표] 종교별 정치적 이념 이미지 평가_1) 기독교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보수적	약간 보수적	보수도 진보도 아님	약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잘 모르겠다	보수	중도	진보	계
전체		(1000)	19.7	20.0	22.4	16.5	6.5	14.9	39.7	22.4	23.0	100.0
성별	남성	(498)	19.8	22.0	25.4	17.9	6.2	8.8	41.8	25.4	24.1	100.0
	여성	(502)	19.6	18.1	19.4	15.2	6.7	21.0	37.7	19.4	21.9	100.0
연령	20대	(159)	4.8	12.3	29.2	16.0	8.4	29.4	17.1	29.2	24.3	100.0
	30대	(149)	17.7	19.0	25.3	16.1	4.8	17.2	36.7	25.3	20.8	100.0
	40대	(186)	26.5	21.4	20.9	12.9	5.4	12.9	47.9	20.9	18.3	100.0
	50대	(197)	27.0	26.9	16.3	16.9	4.7	8.2	53.9	16.3	21.6	100.0
	60대 이상	(309)	19.6	19.2	22.3	18.9	8.2	11.8	38.8	22.3	27.1	100.0
지역	서울	(188)	15.5	22.1	22.2	19.4	9.5	11.4	37.6	22.2	28.8	100.0
	인천/경기	(319)	16.0	22.1	27.4	14.1	5.0	15.5	38.0	27.4	19.1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3.0	15.6	18.7	16.6	8.3	17.7	38.6	18.7	25.0	100.0
	광주/전라	(96)	17.6	19.5	19.3	21.4	5.3	16.9	37.1	19.3	26.7	100.0
	대구/경북	(150)	20.5	15.2	21.6	20.0	9.8	12.9	35.7	21.6	29.8	100.0
	부산/경남/울산	(98)	37.8	24.6	11.7	10.3	2.3	13.4	62.4	11.7	12.6	100.0
	강원/제주	(41)	18.1	14.0	29.8	12.3	0.5	25.4	32.1	29.8	12.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17.3	18.2	23.7	19.3	8.3	13.2	35.5	23.7	27.6	100.0
	중소도시	(321)	21.4	21.1	20.0	13.9	4.4	19.2	42.5	20.0	18.3	100.0
	읍/면	(82)	30.8	29.0	21.9	6.3	1.6	10.3	59.8	21.9	8.0	100.0
직업	자영업	(150)	18.3	20.6	17.9	23.3	10.1	9.9	38.8	17.9	33.4	100.0
	블루칼라	(293)	13.4	21.5	26.3	17.8	5.5	15.4	34.9	26.3	23.4	100.0
	화이트칼라	(246)	24.2	20.0	19.2	16.3	5.2	15.1	44.2	19.2	21.5	100.0
	가정주부	(185)	26.8	19.6	21.0	12.9	5.3	14.5	46.4	21.0	18.2	100.0
	학생	(53)	4.2	11.7	36.4	16.6	13.6	17.6	15.9	36.4	30.2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26.3	19.9	19.9	6.9	5.2	21.7	46.3	19.9	12.1	100.0
소득 수준	상	(96)	25.2	18.6	21.4	16.9	9.3	8.6	43.8	21.4	26.2	100.0
	중	(374)	15.6	21.2	27.5	18.8	6.9	10.1	36.7	27.5	25.7	100.0
	하	(507)	22.4	20.2	19.4	15.4	5.8	16.9	42.6	19.4	21.2	100.0
	무응답	(23)	4.4	2.4	10.3	2.3	3.7	76.9	6.8	10.3	6.1	100.0
이념 성향	보수	(255)	13.3	38.0	15.0	16.5	8.8	8.4	51.3	15.0	25.3	100.0
	중도	(469)	17.0	13.7	29.8	18.1	6.1	15.2	30.7	29.8	24.2	100.0
	진보	(233)	34.3	16.4	18.9	16.2	5.5	8.7	50.7	18.9	21.7	100.0
	잘 모르겠음	(43)	8.8	1.4	4.0	0.5	2.6	82.8	10.2	4.0	3.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2.4	37.6	19.8	19.1	3.0	8.1	50.1	19.8	22.1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4.7	20.3	26.6	23.7	11.1	3.6	35.0	26.6	34.8	100.0
	불교	(128)	20.2	16.4	17.1	21.4	12.6	12.4	36.6	17.1	34.0	100.0
	기타 종교	(32)	0.0	7.0	43.7	40.7	0.0	8.5	7.0	43.7	40.7	100.0
	종교 없음	(547)	23.4	15.2	23.5	12.5	5.2	20.3	38.5	23.5	17.7	100.0
한국 교회 신뢰도	신뢰	(210)	9.8	35.1	25.3	20.4	6.5	3.0	44.9	25.3	26.9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23.7	16.6	21.2	16.5	6.6	15.5	40.2	21.2	23.1	100.0
	잘 모르겠음	(51)	3.1	7.7	28.3	0.0	5.3	55.7	10.7	28.3	5.3	100.0

[표] 종교별 정치적 이념 이미지 평가_2) 가톨릭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보 수적	약간 보 수적	보수도 진보도 아님	약간 진 보적	매우 진 보적	잘 모르겠 다	보수	중도	진보	계
전체		(1000)	2.5	10.9	34.5	28.1	8.2	15.7	13.4	34.5	36.3	100.0
성별	남성	(498)	2.9	9.7	37.9	30.1	9.7	9.7	12.6	37.9	39.8	100.0
	여성	(502)	2.2	12.1	31.1	26.2	6.7	21.7	14.3	31.1	32.9	100.0
연령	20대	(159)	2.9	8.7	32.1	19.6	3.4	33.2	11.7	32.1	23.1	100.0
	30대	(149)	3.9	14.1	33.6	21.6	7.7	19.2	18.0	33.6	29.3	100.0
	40대	(186)	3.2	11.2	38.9	26.1	8.2	12.3	14.5	38.9	34.3	100.0
	50대	(197)	1.8	10.5	32.8	34.3	10.0	10.5	12.3	32.8	44.4	100.0
	60대 이상	(309)	1.7	10.6	34.6	33.0	9.7	10.4	12.3	34.6	42.6	100.0
지역	서울	(188)	1.4	13.7	35.9	31.0	6.6	11.5	15.1	35.9	37.6	100.0
	인천/경기	(319)	2.7	6.3	33.5	29.3	11.1	17.1	9.0	33.5	40.4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2	9.3	32.0	30.1	11.3	15.1	11.5	32.0	41.4	100.0
	광주/전라	(96)	3.0	14.2	43.2	19.8	3.2	16.6	17.2	43.2	23.0	100.0
	대구/경북	(150)	3.6	17.9	31.3	27.4	6.0	13.7	21.6	31.3	33.4	100.0
	부산/경남/울산	(98)	3.6	8.6	35.2	28.3	6.1	18.1	12.3	35.2	34.5	100.0
	강원/제주	(41)	0.0	10.5	32.7	22.6	8.8	25.4	10.5	32.7	31.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2.2	11.8	34.2	28.5	8.5	14.9	14.0	34.2	36.9	100.0
	중소도시	(321)	3.0	10.8	32.9	28.1	7.5	17.7	13.8	32.9	35.6	100.0
	읍/면	(82)	3.5	5.0	43.0	26.1	8.8	13.6	8.6	43.0	34.9	100.0
직업	자영업	(150)	2.5	11.4	36.4	33.4	8.4	7.8	14.0	36.4	41.8	100.0
	블루칼라	(293)	1.3	9.6	36.0	27.5	10.7	14.9	11.0	36.0	38.2	100.0
	화이트칼라	(246)	4.4	11.9	33.7	27.6	5.0	17.4	16.4	33.7	32.5	100.0
	가정주부	(185)	2.3	10.9	31.2	29.3	8.8	17.5	13.2	31.2	38.1	100.0
	학생	(53)	0.0	11.6	40.0	20.5	6.0	21.7	11.6	40.0	26.6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3.5	11.2	31.6	24.4	8.5	20.8	14.7	31.6	32.9	100.0
소득 수준	상	(96)	4.6	11.5	33.1	33.5	7.6	9.7	16.2	33.1	41.1	100.0
	중	(374)	1.3	13.1	38.2	26.8	9.3	11.4	14.4	38.2	36.1	100.0
	하	(507)	3.2	9.7	33.2	28.8	7.8	17.3	12.9	33.2	36.6	100.0
	무응답	(23)	0.0	0.0	9.6	13.6	0.0	76.9	0.0	9.6	13.6	100.0
이념 성향	보수	(255)	2.2	19.7	27.1	27.3	13.7	10.0	21.9	27.1	41.0	100.0
	중도	(469)	2.6	9.7	41.6	25.7	4.5	16.0	12.3	41.6	30.2	100.0
	진보	(233)	3.2	5.8	34.2	37.3	10.6	8.8	9.0	34.2	47.9	100.0
	잘 모르겠음	(43)	0.4	0.4	3.0	10.9	2.3	83.1	0.7	3.0	13.2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2.2	19.1	24.9	27.6	13.3	13.0	21.2	24.9	40.9	100.0
	천주교(가톨릭)	(108)	2.3	13.0	40.6	32.4	7.0	4.8	15.2	40.6	39.4	100.0
	불교	(128)	2.6	9.8	31.1	37.1	9.1	10.2	12.5	31.1	46.2	100.0
	기타 종교	(32)	0.0	0.0	12.7	75.8	11.5	0.0	0.0	12.7	87.3	100.0
	종교 없음	(547)	2.7	8.2	37.9	24.2	6.4	20.6	11.0	37.9	30.6	100.0
한국 교회 신뢰도	신뢰	(210)	0.7	16.4	38.2	28.5	9.9	6.2	17.2	38.2	38.4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3.2	10.0	33.8	29.2	8.2	15.7	13.2	33.8	37.4	100.0
	잘 모르겠음	(51)	0.7	1.7	30.0	10.7	1.3	55.7	2.3	30.0	12.0	100.0

[표] 종교별 정치적 이념 이미지 평가_3) 불교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보수적	약간 보수적	보수도 진보도 아님	약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잘 모르겠다	보수	중도	진보	계
전체		(1000)	5.1	22.4	42.5	11.6	2.6	15.8	27.4	42.5	14.2	100.0
성별	남성	(498)	5.1	23.0	47.3	11.8	2.3	10.5	28.1	47.3	14.1	100.0
	여성	(502)	5.1	21.7	37.8	11.5	2.9	21.1	26.8	37.8	14.3	100.0
연령	20대	(159)	0.8	10.4	30.1	21.2	7.7	29.8	11.2	30.1	28.8	100.0
	30대	(149)	4.1	21.1	43.3	9.8	0.6	21.1	25.2	43.3	10.3	100.0
	40대	(186)	5.4	19.7	47.4	13.8	1.8	11.8	25.1	47.4	15.6	100.0
	50대	(197)	6.4	25.9	44.7	11.0	1.5	10.6	32.3	44.7	12.5	100.0
	60대 이상	(309)	6.7	28.4	44.2	6.7	2.2	11.7	35.1	44.2	8.9	100.0
지역	서울	(188)	4.1	24.6	49.8	8.4	0.5	12.6	28.7	49.8	8.9	100.0
	인천/경기	(319)	3.3	21.6	36.8	17.3	4.0	16.9	24.9	36.8	21.3	100.0
	대전/충청/세종	(108)	2.9	23.6	44.6	10.6	3.9	14.5	26.5	44.6	14.5	100.0
	광주/전라	(96)	9.8	25.9	38.0	8.7	1.8	15.8	35.8	38.0	10.5	100.0
	대구/경북	(150)	4.8	21.0	44.2	12.8	2.3	14.8	25.8	44.2	15.1	100.0
	부산/경남/울산	(98)	11.9	19.6	45.5	3.3	2.5	17.2	31.5	45.5	5.8	100.0
	강원/제주	(41)	2.4	17.9	46.2	7.6	0.5	25.4	20.3	46.2	8.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97)	5.4	23.3	42.5	12.5	2.1	14.2	28.7	42.5	14.6	100.0
	중소도시	(321)	4.4	20.1	42.2	10.1	3.5	19.8	24.5	42.2	13.6	100.0
	읍/면	(82)	5.1	24.6	44.7	11.4	2.4	11.7	29.7	44.7	13.8	100.0
직업	자영업	(150)	4.4	24.0	44.8	14.0	1.2	11.6	28.4	44.8	15.1	100.0
	블루칼라	(293)	4.6	18.6	45.7	14.6	3.0	13.4	23.2	45.7	17.6	100.0
	화이트칼라	(246)	6.1	25.8	40.7	9.1	1.1	17.2	31.9	40.7	10.2	100.0
	가정주부	(185)	6.5	25.6	39.8	6.5	3.0	18.6	32.1	39.8	9.5	100.0
	학생	(53)	0.0	0.0	52.9	18.4	11.1	17.6	0.0	52.9	29.5	100.0
	무직/기타/무응답	(73)	4.8	30.5	30.7	11.5	1.6	20.9	35.3	30.7	13.1	100.0
소득 수준	상	(96)	5.9	32.1	35.7	17.2	1.1	7.9	38.0	35.7	18.4	100.0
	중	(374)	5.1	24.8	44.9	9.9	4.1	11.2	29.9	44.9	14.0	100.0
	하	(507)	5.1	19.3	43.2	12.2	1.7	18.5	24.4	43.2	13.9	100.0
	무응답	(23)	0.0	10.7	18.3	3.9	3.7	63.4	10.7	18.3	7.7	100.0
이념 성향	보수	(255)	5.8	28.9	44.9	6.4	1.4	12.6	34.8	44.9	7.8	100.0
	중도	(469)	5.3	21.8	48.1	7.9	1.1	15.7	27.1	48.1	9.1	100.0
	진보	(233)	4.7	19.9	36.0	24.8	7.4	7.2	24.6	36.0	32.2	100.0
	잘 모르겠음	(43)	0.4	2.7	4.0	11.3	0.0	81.6	3.1	4.0	11.3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8.0	22.2	40.3	11.2	3.3	14.9	30.2	40.3	14.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5.0	34.6	41.4	12.1	0.0	6.9	39.6	41.4	12.1	100.0
	불교	(128)	2.2	21.0	45.9	13.9	6.5	10.5	23.2	45.9	20.3	100.0
	기타 종교	(32)	0.0	31.0	57.5	8.5	3.0	0.0	31.0	57.5	11.5	100.0
	종교 없음	(547)	5.0	20.2	42.3	11.1	1.8	19.6	25.2	42.3	12.9	100.0
한국 교회 신뢰도	신뢰	(210)	7.8	27.2	44.0	12.5	1.8	6.8	35.0	44.0	14.3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4.6	22.1	42.7	11.9	3.0	15.6	26.8	42.7	14.9	100.0
	잘 모르겠음	(51)	0.0	5.9	34.2	4.2	0.0	55.6	5.9	34.2	4.2	100.0

7. 종교 중요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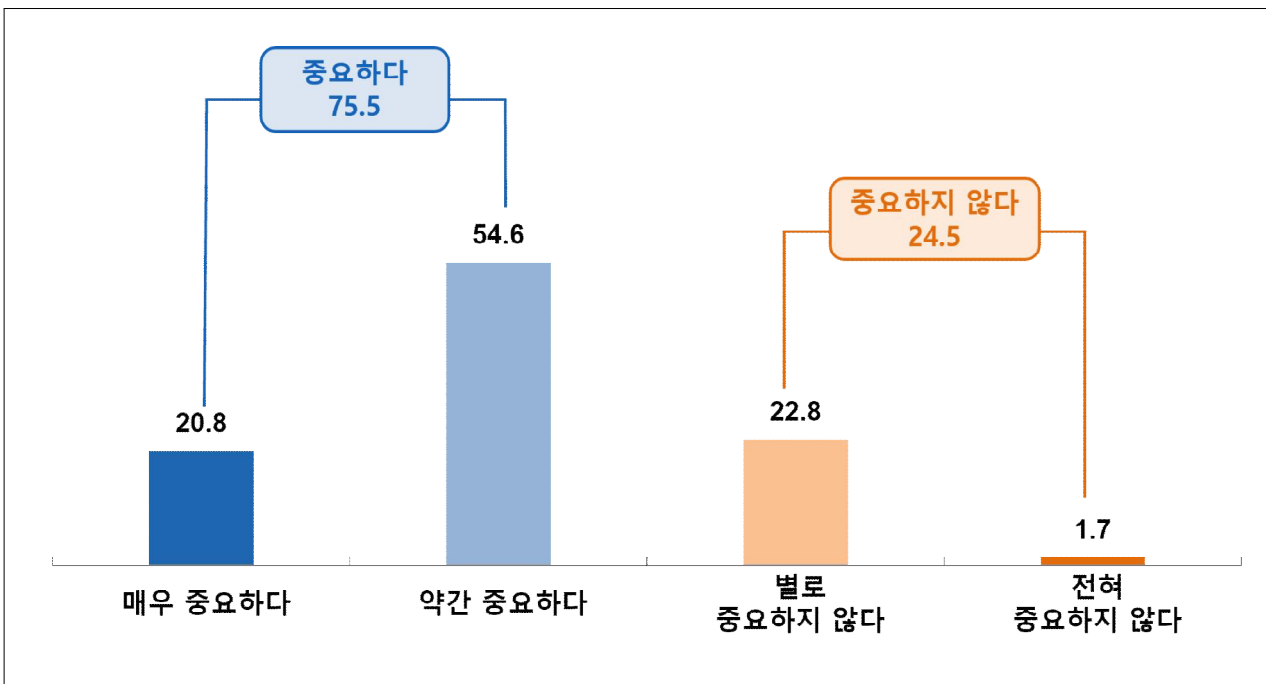
종교가 개인적으로 귀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만)



-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본인의 삶 속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물었다.
- 중요하다(약간+매우)의 응답이 75.5%로 종교인의 약 4명 중 3명은 본인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를 가진 국민들의 대다수가 종교를 중요시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종교별로 나누어서 볼 때, 천주교(87.7%)와 기독교(83.5%)는 대부분이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교인은 59.7%만이 중요하다고 해서 종교의 중요성을 덜 인정하고 있었다.
-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 속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종교를 중요시했다.

[그림] 종교 중요도 (전체)

(N=453, 종교가 있는 자, %)



[표] 종교 중요도

(N=453, 종교가 있는 자,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약간 중요하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약간+ 매우)	계
전체		(453)	20.8	54.6	22.8	1.7	75.5	24.5	100.0
성별	남성	(221)	13.1	57.3	27.1	2.5	70.4	29.6	100.0
	여성	(232)	28.2	52.1	18.8	1.0	80.3	19.7	100.0
연령	20대	(50)	11.9	54.8	32.2	1.0	66.7	33.3	100.0
	30대	(56)	3.3	47.3	45.8	3.6	50.6	49.4	100.0
	40대	(78)	29.8	41.3	28.5	0.4	71.1	28.9	100.0
	50대	(105)	21.8	58.4	16.4	3.4	80.2	19.8	100.0
	60대 이상	(164)	24.7	61.0	13.5	0.9	85.7	14.3	100.0
지역	서울	(98)	17.5	50.8	31.0	0.8	68.2	31.8	100.0
	인천/경기	(129)	21.1	51.8	24.7	2.4	72.9	27.1	100.0
	대전/충청/세종	(41)	21.1	50.7	28.1	0.0	71.9	28.1	100.0
	광주/전라	(49)	13.8	71.7	14.5	0.0	85.5	14.5	100.0
	대구/경북	(79)	25.8	55.3	15.1	3.8	81.1	18.9	100.0
	부산/경남/울산	(39)	22.1	53.5	21.8	2.6	75.6	24.4	100.0
	강원/제주	(19)	31.2	56.8	12.0	0.0	88.0	12.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289)	20.1	52.7	26.0	1.2	72.8	27.2	100.0
	중소도시	(135)	18.1	62.1	18.7	1.1	80.2	19.8	100.0
	읍/면	(29)	41.4	38.6	10.1	9.9	80.0	20.0	100.0
직업	자영업	(80)	21.2	58.7	20.2	0.0	79.8	20.2	100.0
	블루칼라	(136)	13.3	58.4	26.2	2.1	71.7	28.3	100.0
	화이트칼라	(101)	20.7	53.5	22.1	3.7	74.2	25.8	100.0
	가정주부	(95)	34.8	41.8	22.6	0.8	76.6	23.4	100.0
	학생	(18)	9.9	67.6	22.5	0.0	77.5	22.5	100.0
	무직/기타/무응답	(24)	15.9	65.7	16.2	2.2	81.6	18.4	100.0
소득수준	상	(49)	17.8	57.3	16.5	8.4	75.1	24.9	100.0
	중	(190)	20.4	55.4	24.0	0.2	75.8	24.2	100.0
	하	(208)	20.6	54.1	23.7	1.6	74.7	25.3	100.0
	무응답	(6)	70.5	25.3	4.2	0.0	95.8	4.2	100.0
이념성향	보수	(153)	26.8	49.8	20.2	3.2	76.6	23.4	100.0
	중도	(172)	15.3	58.7	24.6	1.5	73.9	26.1	100.0
	진보	(115)	17.4	59.0	23.3	0.2	76.5	23.5	100.0
	잘 모르겠음	(13)	54.9	18.5	26.6	0.0	73.4	26.6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35.6	47.9	16.5	0.0	83.5	16.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5.9	71.8	11.6	0.7	87.7	12.3	100.0
	불교	(151)	7.5	52.2	37.7	2.6	59.7	40.3	100.0
	기타 종교	(9)	0.0	28.3	37.8	34.0	28.3	71.7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152)	37.5	49.7	12.9	0.0	87.1	12.9	100.0
	신뢰하지 않음	(288)	10.9	57.3	29.0	2.7	68.2	31.8	100.0
	잘 모르겠음	(14)	44.8	52.7	2.5	0.0	97.5	2.5	100.0

첨부 : 설문지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 2) 여자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_____세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세종)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교회에 대한 인식

문1. 귀하께서는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설문 조사에서 기독교 또는 한국교회는 가톨릭 또는 가톨릭 성당이 아니라 개신교 또는 개신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만)

- 1) 매우 신뢰한다
- 2) 약간 신뢰한다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9) 잘 모르겠다

문2.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매우 신뢰하면 1번, 약간 신뢰하면 2번,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 3번,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4번 중에서 하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9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9

문3.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교회 지도자(목사)들의 삶
- 2) 타 종교에 대한 태도
- 3) 교인들의 삶
- 4) 불투명한 재정 사용
- 5) 교회 이기주의
- 6) 기타 _____
- 9) 잘 모르겠다

문4. 그럼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봉사 및 구제 활동
- 2)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 3)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 4)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 5) 기타 _____
- 9) 잘 모르겠다

문5.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교회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윤리/도덕성
- 2) 성범죄
- 3) 물질 추구 성향
- 4)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 하는 태도
- 5) 권위주의적 태도
- 6)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
- 7)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집회 참여
- 8) 기타 _____
- 9) 잘 모르겠다

문6. 그럼, 기독교인(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정직하지 못한 언행
- 2) 나만 옳다는 자세
- 3) 기복주의 신앙
- 4) 이기적 태도
- 5)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 6) 기타 _____
- 9) 잘 모르겠다

문7. 한국교회는 교회 밖의 비판 여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매우 그렇다
- 2) 약간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9) 잘 모르겠다

문8.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매우 기여한다
- 2) 약간 기여한다
- 3) 별로 기여하는게 없다
- 4) 전혀 기여하는게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9. 그러면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지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하나만)

	매우 기여한다	약간 기여한다	별로 기여한게 없다	전혀 기여한게 없다	잘 모르겠다
1) 민주주의 발전	4	3	2	1	9
2) 경제 성장	4	3	2	1	9
3) 사회 통합	4	3	2	1	9
4)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4	3	2	1	9
5) 취약 계층 구제 및 복지 증진	4	3	2	1	9
6)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	4	3	2	1	9
7) 도덕과 윤리 고취	4	3	2	1	9
8) 남북 화해	4	3	2	1	9
9) 부패 방지	4	3	2	1	9

문8.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매우 기여할 것이다
- 2) 약간 기여할 것이다
- 3) 별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 9) 잘 모르겠다

문9. 귀하께서는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할 것 같습니까? (하나만)

- 1)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 2) 교회의 교리를 추구할 것이다
- 9) 잘 모르겠다

문10. 귀하께서는 평소 종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만)

- 1) 매우 있다
- 2) 약간 있다
- 3) 별로 없다
- 4) 전혀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1.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친근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2. 다음의 종교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3.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4.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5. 다음 중 어느 종교의 사회봉사활동이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문16. 종합적으로 보아 한국사회에 가장 긍정적 기여를 하는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무속
- 7) 기타 -----
- 8) 없다
- 9) 잘 모르겠다

교회와 정치

문17. 귀하께서는 교회 혹은 목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이나 찬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매우 찬성한다
- 2) 약간 찬성한다
-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 9) 잘 모르겠다

문18. 귀하께서는 각종 선거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후보에게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투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전혀 문제될 게 없다
- 2) 별로 문제될 게 없다
- 3) 약간 문제가 있다
- 4) 매우 문제가 있다
- 9) 잘 모르겠다

문19. 귀하께서는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발언 혹은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약간 문제가 있다	매우 문제가 있다	잘 모르겠다
1) 개인적인 자리/모임 혹은 자기 SNS에서의 정치적인 발언	1	2	3	4	9
2) 신자 혹은 교인과의 자리/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	1	2	3	4	9
3) 목사가 유튜브/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하는 정치적 발언	1	2	3	4	9
4) 설교/예배 혹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	1	2	3	4	9
5) 목사가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서 발표	1	2	3	4	9
6) 목사가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	1	2	3	4	9

문20.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집회에 십자가 혹은 기독교 단체 이름이 적힌 팻말 등을 들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하나만)

- 1) 매우 거부감이 든다
- 2) 약간 거부감이 든다
- 3)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을 거 같다
- 4)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을 거 같다
- 9) 잘 모르겠다

문21. 귀하께서는 기독교 목사들이 대통령 혹은 특정 정치인을 초청하여 대통령/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2)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3)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4)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9) 잘 모르겠다

문22 귀하께서는 정치인 가운데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만)

- 1) 있다
- 2) 없다

(문22=1번 응답자에게)

문23.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기독교 가르침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별로 그렇지 않다
- 3) 약간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9) 잘 모르겠다

문24. 귀하께서는 다음 종교가 정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매우 보수적	약간 보수적	보수도 진보도 아님	약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잘 모르겠다
1) 기독교(개신교)	1	2	3	4	5	9
2) 천주교(가톨릭)	1	2	3	4	5	9
3) 불교	1	2	3	4	5	9

인구통계학적 질문

* 통계 처리를 위해 몇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 1) 농업/임업/어업
- 2) 자영업
- 3) 판매/영업/서비스직
- 4) 생산/기능/노무직
- 5) 사무/관리
- 6) 전문직
- 7) 가정주부
- 8) 학생
- 9) 무직/퇴직/기타
- 10) 모름/무응답

DQ2. 맥의 가구소득 수준은 다음의 5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만)

-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 9) 모름/응답

DQ3. 귀하의 이념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하나만)

- 1) 매우 보수적이다
- 2) 다소 보수적이다
- 3)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 4) 다소 진보적이다
- 5) 매우 진보적이다
- 9) 잘 모르겠다

DQ4.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만)

- 1) 기독교(개신교)
- 2) 천주교(가톨릭)
- 3) 불교
- 4) 원불교
- 5) 유교
- 6) 기타 -----
- 7) 종교 없음

[DQ4=1~6번 응답자만]

DQ5. 종교가 개인적으로 귀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니까?

-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 약간 중요하다
- 4) 매우 중요하다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종교사회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2019년 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한국교회는 여론의 중심의 서게 되었다. 신천지 신자 중에 확진자가 나와 엄청난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1차 대유행기가 시작되었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섰으나 정통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재확산하면서 교회가 다시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주목을 받았고 정통 교회들은 그것을 잘못된 신앙관에 기초한 탓이라고 여겼지만 그 후에는 정통 교회들을 중심으로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2020년 교회 관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독교, 교회,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회의 공공성이 다시 이슈가 되었다.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사회의 공익성과 관련이 된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기독교인은 없을 것이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라도 기독교인들끼리 예배를 잘 드리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하여 주변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면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 사실상 방역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 교회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공공성 이슈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와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상대방을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전도의 대상자와 타협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우월감으로 상대를 낮잡아보기 쉽다. 이렇게 자신의 집단 안에 매몰된 사람은 더 넓은 사회의 지평을 바라보지 못한다. 개신교 신자들과 목회자들은 나름 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왔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교회 생활에 열심일수록 사회에 대한 의식 수준은 더 떨어지는 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신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아래에서 '기윤실')은 2008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왔다. 2010년까지는 매년 조사를 하다가 2013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되었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별로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조사이고 중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설문 취지와 설문 구조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 가운데 대부분은 이전 조사의 결과와 시계열적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같은 설문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조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필요한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이전에 실시된 6차까지의 조사들은 모두 전화 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방식은 전화 통화의 시간 제약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기 어렵고 조사 비용도 많이 든다. 이번에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최근에 온라인 조사는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특히, 설문을 프로그래밍하여 응답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조사방법에 비해 훨씬 원자료가 훼손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화 응답 방식에 비해 훨씬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설문 문항은 전체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물어보았고, 다음으로 종교별 비교 인식, 종교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 한국교회 평가, 한국교회의 과제, 교회와 정치, 마지막으로 종교 중요도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의 신뢰도, 한국교회 평가, 한국교회의 과제는 이전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같은 설문을 반영한 것인데 보기 항목은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 다르게 구성한 질문도 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문항들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에 대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표1] 설문 문항 구성

한국교회의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신뢰도 • 구성원별 신뢰도
종교별 비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신뢰하는 종교 •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 가장 호감 가는 종교
종교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비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 활동 적극 수행 종교 •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 한국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
한국교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회의 교회 밖 비판 수용 준비 정도 •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속성별 평가 • 한국교회의 미래 사회 기여도 전망 • 한국교회의 이미지(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한국교회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교회와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 대통령/특정 정치인 초청 기도회에 대한 생각 • 기독교인 국회의원 인지도 • 기독교인 국회의원 평가 • 종교별 정치적 이념 이미지 평가
종교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

그동안 '기운실'에서는 6회에 걸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기본 문항들은 동일하게 구성이 되었지만, 시대의 흐름 또는 당시 이슈가 되는 상황에 따라 몇 개의 문항들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여러 분야 기독교 지도자의 언행이 교회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2010년에는 신뢰도 증감의 구체적 원인,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와 가장 도움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2013년에는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가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의 기여도, 종교기관/종교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2017년에는 한국교회 목사와 기독교인이 신뢰받기 위한 개선점, 한국교회의 소통 정도와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에 기여도, 현 시국에서 한국교회의 역할, 10년 후 가장 증가할 종교, 대선에서 기독교의 역할, 이념성향 등이 추가되었다. 2020년에는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유통 경로, 목사의 정치 참여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작년 대선 과정 이후에 정치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2023년에는 정치 관련 문항들과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위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설문 문항들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2] 연도별 신규 조사 문항

조사 연도	추가 설문 문항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계, 관계, 재계 등에서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님이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믿음이 가십니까?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신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개신교회에 대한 ○○님의 신뢰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의 후속 질문) •신뢰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개신교회에 대한 ○○님의 신뢰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의 후속 질문) •다음 중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느 종교의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부터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님께서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님께서서는 한국교회가 사회통합이나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님께서서는 종교기관 또는 종교인의 정치적 참여활동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님께서서는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독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향후 10년 후 우리나라의 어느 종교가 가장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님께서서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님께서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님께서 가짜 뉴스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님께서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발언 혹은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한국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할 것 같습니까? •귀하께서는 평소 종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친근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종교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종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귀하께서는 교회 혹은 목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이나 찬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각종 선거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후보에게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투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발언 혹은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집회에 십자가 혹은 기독교 단체 이름이 적힌 팻말 등을 들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귀하께서는 기독교 목사들이 대통령 혹은 특정 정치인을 초청하여 대통령/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정치인 가운데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이름이 있습니까?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기독교 가르침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다음 종교가 정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주요 조사 결과 및 분석

1. 한국교회의 신뢰도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하여, 신뢰한다(매우+약간) 21.0%,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74.0%로, 국민의 5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6차 조사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가 10.8%p 정도 더 낮아진 결과이다. 신뢰도는 6차 조사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20%를 넘지 못했다(2017년 5차 조사 20.2%). 그러나 6차 조사 때는 조사 방식을 5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5점 척도에는 ‘보통이다’ 또는 ‘그저 그렇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5점 척도 조사에서는 이 응답이 적어도 30%에서 50% 이상까지 나오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호/불호나 선호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결과를 얻기 위해 4점 척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응답자는 ‘보통이다’와 같은 중립적인 보기 항목이 없기 때문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분명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5차 조사까지는 5점 척도를 사용했음에도 신뢰도가 20% 수준인 것이 오히려 특징적이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대부분 30% 정도였고,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쪽 의견으로 쏠리는 조사 결과는 많지 않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20% 안팎의 수치는 한국인 중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거의 같다. 물론 개신교인들 중에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 안팎 있지만 비율만 보면 그 정도 수준밖에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그런데 6차 조사 결과에서 신뢰도가 31.8%로 나와서 신뢰도가 증가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4점 척도로 조사했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것이었다. 4점 평균을 보면 이전 조사와 차이가 없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똑같이 4점 척도로 조사했는데 그 결과 21.0%로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바닥권을 형성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더 하락한 것이다.

6차 조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0년 1월로 아직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임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 사태를 경험한 3년 사이에 한국교회 신뢰도는 더 나빠진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동안에도 교계 다른 기관에서 설문 조사를 할 때 교회 신뢰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2021년 조사 결과에서 신뢰도가 이미 21%로 나타나서 코로나 사태 초기 1년 사이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일보와 코디연구소가 실시한 2022년 조사 결과에서는 이보다 더 하락한 18.1%로 나타났다. 이 두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의 기윤실 조사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 하더라도 20년과 21년 신뢰도 차이가 10% 정도 나타난 것은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다시 21%로 나와서 작년 조사와 비교한다면 2.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실상 바닥권에 있었던 신뢰도가 조금은 반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한국교회와 관련된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데 반해 지난 1년 동안에는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건이나 이슈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의뢰하여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2022년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한국교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가 부정 기사를 앞지른 것으로 나오기도 하였다.¹⁾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최저 수준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은 한국교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그리고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전체 응답자의 54.7%로 과반을 차지하는 무종교인들에게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종교인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평균의 절반인 10.6%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 중에서조차 3분의 1이 넘는 37.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이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지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에도 개신교 안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20년 조사에서 22.4%가 나온 것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한 가지 특징은,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해 볼 때, 보수 성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진보 성향에서 신뢰도가 11.4%p가 줄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와 정치 국면에서 한국교회가 보인 우편향성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더 신뢰도가 하락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 이에 대하여는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교회 온라인 여론분석 보고서”(2023년 1월 31)를 볼 것.

[표 3] 전반적 신뢰도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7	18.3	45.3	28.7	21.0	74.0	5.1	100.0
성별	남성	(498)	3.2	19.0	45.5	29.4	22.2	74.9	2.9	100.0
	여성	(502)	2.3	17.6	45.0	28.0	19.8	73.0	7.2	100.0
연령	20대	(159)	2.0	19.8	41.3	24.3	21.8	65.5	12.7	100.0
	30대	(149)	0.5	13.8	52.6	28.7	14.4	81.3	4.4	100.0
	40대	(186)	0.8	20.3	46.8	26.8	21.0	73.5	5.4	100.0
	50대	(197)	3.4	13.4	46.3	34.2	16.8	80.5	2.7	100.0
	60대 이상	(309)	4.9	21.5	42.3	28.5	26.4	70.9	2.7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6.2	34.9	35.8	20.5	41.1	56.3	2.6	100.0
	중도	(469)	1.4	14.8	50.0	27.3	16.2	77.3	6.5	100.0
	진보	(233)	1.3	10.5	44.8	42.1	11.8	86.9	1.3	100.0
	잘 모르겠음	(43)	4.1	0.0	52.1	19.8	4.1	71.9	24.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1.6	48.6	31.0	6.0	60.2	37.0	2.8	100.0
	천주교(가톨릭)	(108)	4.4	20.0	55.4	19.9	24.4	75.3	0.3	100.0
	불교	(128)	0.0	6.9	57.1	30.5	6.9	87.7	5.4	100.0
	기타 종교	(32)	0.0	37.8	25.5	36.7	37.8	62.2	0.0	100.0
	종교 없음	(547)	0.1	10.5	45.2	37.5	10.6	82.7	6.7	100.0

다음으로,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에 대해서 '신뢰한다'(매우+약간) 20.8%,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74.0%로 전반적인 기독교 신뢰도와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동의율은 2020년 30.0%에서 10%p 가까이 하락했다. 조사 방법의 차이로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적지 않게 하락한 결과이다. 전체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37.1%는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20.7%는 목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표 4] 구성원별 신뢰도_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3	17.5	38.8	35.8	20.8	74.6	4.6	100.0
성별	남성	(498)	3.9	15.8	37.9	38.3	19.7	76.2	4.1	100.0
	여성	(502)	2.8	19.1	39.7	33.3	21.9	73.0	5.2	100.0
연령	20대	(159)	1.1	18.6	37.2	32.1	19.7	69.4	10.9	100.0
	30대	(149)	3.1	9.7	41.2	41.3	12.8	82.5	4.7	100.0
	40대	(186)	3.1	17.8	37.0	36.4	20.9	73.4	5.7	100.0
	50대	(197)	2.8	16.8	36.5	41.2	19.6	77.8	2.6	100.0
	60대 이상	(309)	5.1	20.8	41.0	31.2	25.9	72.2	2.0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8.4	27.6	36.0	26.1	36.0	62.1	1.9	100.0
	중도	(469)	1.7	15.4	42.3	35.0	17.2	77.3	5.5	100.0
	진보	(233)	0.9	12.8	36.0	47.5	13.7	83.5	2.9	100.0
	잘 모르겠음	(43)	4.1	4.8	32.3	38.9	8.9	71.2	19.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5.0	46.3	30.9	6.2	61.2	37.1	1.6	100.0
	천주교(가톨릭)	(108)	1.7	22.2	44.6	30.5	24.0	75.1	0.9	100.0
	불교	(128)	0.0	8.2	49.4	35.4	8.2	84.8	6.9	100.0
	기타 종교	(32)	0.0	46.3	1.3	52.4	46.3	53.7	0.0	100.0
	종교 없음	(547)	0.7	8.8	38.0	46.7	9.5	84.7	5.8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5.5	63.8	18.9	1.7	79.3	20.7	0.0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1	4.9	44.8	47.4	5.0	92.2	2.8	100.0
	잘 모르겠음	(51)	0.0	8.7	33.0	7.8	8.7	40.8	50.5	100.0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에 대해서 ‘신뢰한다’(매우+약간) 20.6%,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75.2%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20년의 32.9%에서 더 하락한 결과이다.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 목사 신뢰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같은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41.7%가 다른 개신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28.1%는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공동체 또는 종교단체로서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으로서 목회자나 신자들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구성원별 신뢰도 -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긍정 (약간+ 매우)	부정 (전혀+ 별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5	17.1	41.4	33.8	20.6	75.2	4.2	100.0
성별	남성	(498)	4.2	16.8	42.4	33.2	21.0	75.6	3.4	100.0
	여성	(502)	2.7	17.5	40.5	34.3	20.2	74.8	4.9	100.0
연령	20대	(159)	3.8	13.2	44.5	29.1	17.0	73.6	9.4	100.0
	30대	(149)	0.8	13.3	42.0	38.5	14.1	80.5	5.3	100.0
	40대	(186)	5.8	15.8	42.4	32.5	21.6	74.9	3.5	100.0
	50대	(197)	2.9	16.9	38.9	38.0	19.8	76.9	3.3	100.0
	60대 이상	(309)	3.6	22.0	40.6	32.0	25.5	72.6	1.9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6.5	24.6	43.3	24.2	31.2	67.5	1.3	100.0
	중도	(469)	2.4	15.9	41.7	35.1	18.3	76.8	4.9	100.0
	진보	(233)	2.2	12.5	41.8	40.3	14.7	82.1	3.2	100.0
	잘 모르겠음	(43)	4.1	11.0	25.4	41.6	15.1	67.0	17.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3.5	43.8	34.6	7.0	57.4	41.7	1.0	100.0
	천주교(가톨릭)	(108)	4.3	20.5	41.9	32.4	24.8	74.3	0.8	100.0
	불교	(128)	0.6	12.9	47.2	31.9	13.5	79.2	7.3	100.0
	기타 종교	(32)	0.0	46.3	22.7	31.0	46.3	53.7	0.0	100.0
	종교 없음	(547)	0.7	8.1	42.4	43.7	8.8	86.0	5.1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4.7	55.9	25.4	2.7	70.6	28.1	1.2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0.5	7.0	46.9	43.7	7.5	90.5	1.9	100.0
	잘 모르겠음	(51)	0.0	4.4	28.6	17.7	4.4	46.4	49.2	100.0

2. 종교별 인식 비교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하여 가톨릭이라는 응답이 2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신교(16.5%), 불교(15.7%)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개신교가 3위였는데 이번에는 불교가 3위로 나타났다. 가톨릭이 계속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톨릭이 오랫동안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온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모두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니었다. 2020년과 비교해서 중요한 차이는 가톨릭과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10%p 안팎으로 뚜렷하게 하락하였고, '없다'와 '잘 모르겠다'를 합하여 42.6%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전 조사들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곧 우리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무종교인들 중에서는 64.8%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한국 종교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는 무종교인에게서 3.2%의 신뢰도를 보였고, 보수 성향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으로는 상층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

[표 6] 가장 신뢰하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가톨릭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1.4	15.7	16.5	1.7	1.7	0.5	34.6	8.0	100.0
성별	남성	(498)	21.0	15.2	17.9	1.7	3.0	0.6	33.8	6.8	100.0
	여성	(502)	21.8	16.2	15.1	1.8	0.4	0.3	35.3	9.2	100.0
연령	20대	(159)	9.0	17.1	15.0	2.2	2.8	2.0	41.8	10.2	100.0
	30대	(149)	9.3	12.9	16.7	2.7	1.5	1.0	46.6	9.2	100.0
	40대	(186)	10.6	13.0	21.6	0.7	2.8	0.0	43.2	8.1	100.0
	50대	(197)	31.9	18.3	14.5	0.5	1.6	0.0	24.2	9.0	100.0
	60대 이상	(309)	33.4	16.3	15.3	2.5	0.5	0.0	26.4	5.5	100.0
소득수준	상	(96)	34.1	16.9	11.5	0.0	3.6	0.0	27.1	6.7	100.0
	중	(374)	26.4	17.2	17.0	3.3	0.7	1.2	28.6	5.6	100.0
	하	(507)	16.2	15.1	17.5	1.0	2.1	0.0	40.3	7.9	100.0
	무응답	(23)	1.0	1.0	6.1	0.0	0.0	0.0	36.0	55.8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4.3	15.1	26.3	0.9	1.8	0.0	24.3	7.3	100.0
	중도	(469)	21.9	14.6	12.9	2.1	0.7	0.3	39.6	7.8	100.0
	진보	(233)	19.8	20.1	14.6	2.2	3.7	1.4	32.8	5.3	100.0
	잘 모르겠음	(43)	7.2	7.5	8.0	0.0	0.0	0.0	49.1	28.2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9.0	2.9	73.8	0.0	0.0	0.5	6.5	7.3	100.0
	천주교(가톨릭)	(108)	78.8	3.3	2.0	2.5	0.0	0.0	8.2	5.1	100.0
	불교	(128)	8.3	54.0	4.5	7.0	3.5	1.9	10.9	10.0	100.0
	기타 종교	(32)	46.3	0.0	12.7	0.0	41.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547)	17.5	12.2	3.2	0.8	1.4	0.2	56.4	8.4	100.0

다음으로,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가장 신뢰하는 종교와는 다르게 불교가 23.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가톨릭(19.9%)과 개신교(19.6%)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작년에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불교의 이미지로 '친근함'이 높게 나온 것과는 비슷한 결과이다. 최근에 MZ 세대들 가운데 불교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산사의 이미지나 명상을 중시하는 태도가 오늘날의 종교성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개신교는 무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친근감 매우 적어서 가톨릭(16.6%)에 대한 친근감의 4분의 1 수준(4.2%)으로 나타났다. 다른 종교인들보다 무종교인을 일차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본다면, 전도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신교는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그리고 보수 성향에서 가장 높은 친근감을 보였다.

[표 7]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가톨릭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19.9	23.2	19.6	0.9	2.0	1.0	29.8	3.6	100.0
성별	남성	(498)	18.4	20.8	21.4	1.4	3.0	0.4	31.7	2.8	100.0
	여성	(502)	21.4	25.6	17.7	0.5	0.9	1.6	27.9	4.4	100.0
연령	20대	(159)	8.2	22.0	18.7	1.4	0.4	1.2	40.1	8.1	100.0
	30대	(149)	10.9	23.1	15.0	1.0	6.1	2.0	39.8	2.2	100.0
	40대	(186)	11.6	22.1	23.1	0.0	2.5	0.9	33.6	6.2	100.0
	50대	(197)	24.3	27.0	19.0	1.9	1.6	1.5	21.1	3.5	100.0
	60대 이상	(309)	32.5	22.2	20.4	0.7	0.7	0.2	22.7	0.5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0.9	19.4	32.7	0.8	3.4	0.2	20.7	1.8	100.0
	중도	(469)	20.6	22.0	14.6	0.0	1.8	1.0	36.8	3.2	100.0
	진보	(233)	18.8	33.0	16.0	3.1	1.1	2.2	23.3	2.5	100.0
	잘 모르겠음	(43)	12.6	6.8	14.8	0.0	0.0	0.0	41.0	24.8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3.4	0.0	89.9	1.2	0.9	0.4	1.6	2.5	100.0
	천주교(가톨릭)	(108)	89.3	3.3	3.1	0.0	0.0	0.0	3.9	0.4	100.0
	불교	(128)	3.7	75.7	1.1	4.8	6.9	0.6	3.6	3.5	100.0
	기타 종교	(32)	0.0	37.8	8.5	0.0	41.0	12.7	0.0	0.0	100.0
	종교 없음	(547)	16.6	20.4	4.2	0.0	0.7	1.3	52.1	4.7	100.0

다음으로 호감 가는 종교에 대해서는 다시 가톨릭이 가장 높은 24.7%가 나왔고, 불교(23.4%)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며 개신교(16.2%)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친근감이나 호감은 비슷한 표현일 수 있지만, 친근감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라면 호감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불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종교이고 가톨릭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종교라면 개신교는 두 가지면 모두에서 가장 거리감을 느끼는 종교라는 결과이다. 그리고 역시 무종교인들에게는 거의 호감이 없다는 점(4.0%)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없음/잘 모르겠음'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점은 모든 종교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개신교는 경제 수준이 '중'과 '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호감을 보였고, 보수 성향에서 가장 높은 호감이 있었다.

[표 8] 가장 호감 가는 종교(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가톨릭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4.7	23.4	16.2	1.2	1.5	1.3	27.3	4.3	100.0	
성별	남성	(498)	23.6	22.2	18.2	2.1	2.3	2.1	26.8	2.6	100.0
	여성	(502)	25.8	24.6	14.2	0.3	0.8	0.5	27.8	5.9	100.0
연령	20대	(159)	9.9	22.7	16.4	0.8	1.5	2.2	38.3	8.2	100.0
	30대	(149)	14.4	27.0	16.1	0.0	2.9	0.8	31.8	7.0	100.0
	40대	(186)	15.5	20.7	18.6	0.9	0.6	4.0	33.4	6.2	100.0
	50대	(197)	27.7	28.4	18.4	2.0	2.0	0.0	18.7	2.8	100.0
	60대 이상	(309)	41.0	20.6	13.3	1.6	1.2	0.2	21.3	0.7	100.0
소득수준	상	(96)	32.7	22.2	10.5	0.0	3.9	1.9	25.4	3.5	100.0
	중	(374)	29.6	21.5	16.5	1.8	1.7	0.7	24.8	3.2	100.0
	하	(507)	20.6	26.1	17.4	1.0	1.0	1.5	29.1	3.2	100.0
	무응답	(23)	3.3	2.1	7.8	0.0	0.0	2.3	36.0	48.5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25.5	23.0	28.2	0.0	2.1	1.5	18.7	1.0	100.0
	중도	(469)	25.7	22.0	11.4	1.1	1.0	0.3	33.9	4.7	100.0
	진보	(233)	25.3	28.9	14.1	2.6	2.4	3.2	20.1	3.5	100.0
	잘 모르겠음	(43)	7.1	12.8	9.7	1.8	0.0	0.0	45.1	23.6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9.9	0.0	72.3	0.0	0.1	0.4	5.6	1.8	100.0
	천주교(가톨릭)	(108)	87.0	5.8	0.6	0.0	0.0	0.5	5.3	0.8	100.0
	불교	(128)	10.4	62.1	3.6	4.5	5.6	5.9	4.1	3.8	100.0
	기타 종교	(32)	0.0	37.8	1.3	21.2	36.7	3.0	0.0	0.0	100.0
	종교 없음	(547)	18.4	24.0	4.0	0.6	0.6	0.4	45.9	6.0	100.0

3. 종교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 비교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 가톨릭을 29.4%로 가장 높게 보았고, 다음으로 개신교(20.6%), 불교(6.8%)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가톨릭은 2020년의 결과와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개신교는 35.2%에서 15.1%p가 하락하였고, 2010년, 2013년 결과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실제로 전국의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사회봉사 활동에서는 개신교가 가톨릭을 훨씬 앞서지만 국민들은 가톨릭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조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 항목에서도 '없음/모름'이 이전 조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39.8%로 나온 것은 실제로 잘 모르다기보다는 종교 활동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종교인들 중에서 이 응답이 55.7%로 과반을 차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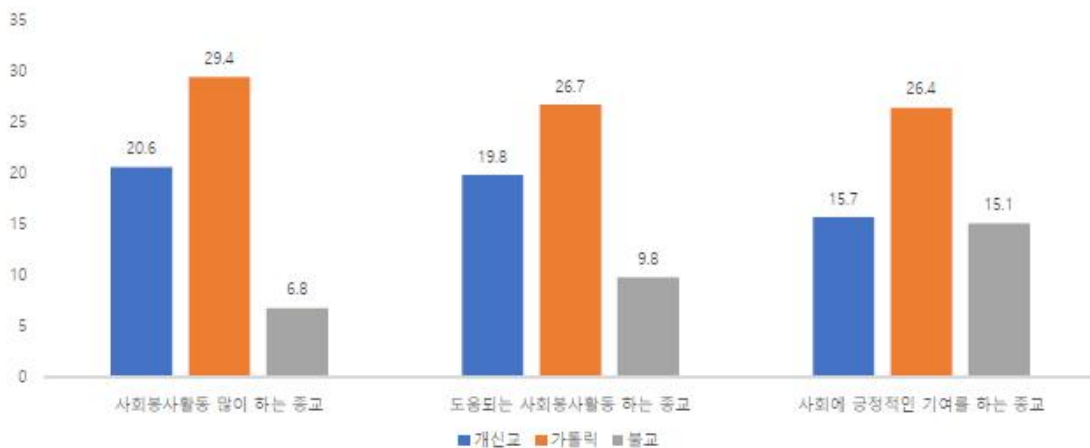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에 대해 가톨릭이 26.7%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는 이보다 낮은 19.8%였고, 불교(9.8%)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2020년 조사에서 개신교가 30.7%로 가톨릭(28.8%)을 근소하게 앞선 것과 다른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신교가 사회봉사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가톨릭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40대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개신교를 가장 높게 꼽았다.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새로 물었다. 그 결과,

가톨릭이 26.4%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15.7%)는 불교(15.1%)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가톨릭은 세 항목 모두에서 고루 높은 응답을 받았고, 개신교는 사회봉사 활동의 양과 질 면에서 20% 안팎의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 사회의 기여는 이보다 낮게 나왔다. 그런데 위의 두 질문에서 불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보다도 훨씬 낮은 응답을 받았지만, 종합적인 기여 면에서는 개신교와 차이 없는 응답을 받았다. 따라서 불교는 눈에 띄는 사회봉사 활동이 없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개신교는 비교적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회에 대한 기여는 그만 못하다는 결과이다.

[그림 1] 종교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N=1000, %)



4.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 질문들을 하였는데, 먼저 한국교회가 교회 밖의 비판 여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준비되었다(매우+약간)’는 15.4%밖에 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다’가 80.0% (별로+전혀)에 달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교회 밖의 비판에 대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특히 개신교인들조차도 과반수(55.3%)가 같은 응답을 하였고, 소득수준 ‘상’층에서 부정 평가가 91.6%로 높았다.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여하고 있다’(매우+약간)는 응답은 4분의 1(24.1%) 정도였고, ‘기여하고 있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이 70.8%로 다수였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73.3%)과 이념적 진보층(85.3%)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무종교인들도 80.4%가 부정적으로 보았고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30.5%는 교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영역별로 여러 항목들을 제시하고 한국교회가 기여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취약 계층 구제 및 복지 증진’(38.2%)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30.4%)가 전체 기여도인 24.1%보다 높은 응답을 받았다. ‘취약 계층 구제 및 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중의 29.7%와 무종교인의 27.3%가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사역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전반적인 기여도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부패 방지’(13.3%), ‘사회 통합’(15.3%), ‘남북 화해’(16.1%)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영역에서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 안팎으로 높게 나온 것은 교회가 이러한 영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9]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영역별 평가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취약 계층 구제/ 복지 증진	사회 약자의 인권 보호	도덕과 윤리 고취	민주주의 발전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	남북 화해	사회 통합	부패 방지	경제 성장
전체		(1000)	38.2	30.4	25.5	23.9	20.1	16.1	15.3	13.3	12.4
성별	남성	(498)	38.9	28.9	27.0	29.3	19.8	16.6	15.6	13.1	11.5
	여성	(502)	37.5	31.8	24.0	18.5	20.5	15.7	15.0	13.5	13.3
연령	20대	(159)	27.4	25.4	25.5	26.5	14.9	20.7	20.4	12.6	15.3
	30대	(149)	32.7	22.2	19.9	20.6	17.7	10.1	12.8	12.0	10.3
	40대	(186)	39.3	31.0	22.2	23.3	16.8	15.1	18.5	12.1	16.0
	50대	(197)	36.7	28.5	25.2	22.6	21.0	16.6	12.5	13.7	9.3
	60대 이상	(309)	46.7	37.6	30.4	25.3	25.4	17.0	13.7	14.7	11.7
이념성향	보수	(255)	47.4	39.2	37.5	39.7	32.3	21.9	31.4	19.5	19.8
	중도	(469)	38.5	29.9	23.4	19.7	17.4	15.1	10.4	10.7	10.6
	진보	(233)	31.3	23.8	19.1	18.2	14.9	14.5	9.9	13.6	8.1
	잘 모르겠음	(43)	18.6	18.9	11.7	6.8	6.8	2.6	3.3	2.6	11.2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75.0	63.1	67.5	55.2	55.7	39.4	44.7	40.2	32.9
	천주교(가톨릭)	(108)	50.2	34.9	26.9	26.8	27.8	26.9	13.3	14.5	13.7
	불교	(128)	25.5	23.2	14.0	20.0	13.8	13.9	8.5	10.9	8.3
	기타 종교	(32)	9.8	1.3	9.8	1.3	1.3	1.3	39.1	1.3	8.5
	종교 없음	(547)	27.3	20.8	14.4	14.1	8.6	7.0	7.2	4.8	6.3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72.1	68.0	74.2	55.4	59.9	46.6	53.0	39.5	32.4
	신뢰하지 않음	(740)	29.7	19.8	12.5	15.7	9.9	8.4	5.4	6.5	6.8
	잘 모르겠음	(51)	21.6	28.2	12.8	13.0	5.1	3.8	4.5	3.3	10.8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하여 4분의 1인 25.2%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69.6%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현재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와 비슷한 결과여서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사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른 종교인들 모두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보았고, 무종교인들은 14.1%만 한국교회가 미래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공성과 관련하여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 신념이 충돌할 때 한국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할지에 대하여 60.0%가 '교회의 교리를 추구할 것 같다'고 응답했고, 23.6%는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는 사회 공익이나 공공성보다 교리를 더 중시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 동안 '현장 예배의 고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큰 쟁점이 되었는데, 국민들은 한국교회가 사회 공익을 중시하지 않는 종교 단체라는 생각이 큰 것이다. 교회의 교리를 추구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으나 공익보다 교리를 중시하는 종교로 보는 것은 이기적인 종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특히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조차 과반수(55.1%)가 교리를 추구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무종교인의 19.6%만 한국교회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공공성에 관련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 한국교회의 과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교회 이기주의’가 가장 많은 34.2%를 차지한 것도 위의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전까지 조사에서는 ‘교회의 성장제일주의’가 보기 항목에 있었으나 교회 성장이 멈춘 후에 그 중요성이 줄어들어서 이것을 제외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 판단해서 ‘교회 이기주의’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이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이다. 이전 조사들에서 교회 성장제일주의는 10% 안팎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삶’ 19.6%, ‘불투명한 재정 사용’ 17.9%, ‘타 종교에 대한 태도’ 17.3%가 언급되었는데, ‘교회 이기주의’라는 응답과 차이가 컸고, 이 항목들의 응답률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종교인들이 ‘교회 이기주의’(39.0%)라고 더 많이 응답했고, 불교 신자들은 ‘타 종교에 대한 태도’(31.6%), 개신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가장 중요한 개선점으로 응답하여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20~40대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10]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1순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교회 이기 주의	교회 지도자 (목사)들의 삶	불투명한 재 정 사용	타 종교에 대한 태도	교인들의 삶	기타/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4.2	19.6	17.9	17.3	7.6	3.3	100.0
성별	남성	(498)	36.6	21.8	17.0	16.1	6.3	2.1	100.0
	여성	(502)	31.8	17.5	18.8	18.5	8.9	4.5	100.0
연령	20대	(159)	24.4	14.2	22.7	21.6	7.3	9.9	100.0
	30대	(149)	34.5	17.2	20.4	18.0	8.0	1.9	100.0
	40대	(186)	34.8	20.5	23.7	13.2	7.7	0.0	100.0
	50대	(197)	36.8	19.7	15.1	19.3	6.6	2.6	100.0
	60대 이상	(309)	37.1	23.0	12.6	16.0	8.2	3.1	100.0
소득수준	상	(96)	34.1	26.3	14.2	15.6	7.9	1.8	100.0
	중	(374)	30.9	22.1	16.2	19.7	9.7	1.4	100.0
	하	(507)	37.8	17.1	20.6	15.6	6.2	2.7	100.0
	무응답	(23)	9.6	5.1	3.4	23.9	3.7	54.4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35.6	26.4	15.3	11.0	9.4	2.4	100.0
	중도	(469)	35.8	17.3	19.0	17.5	6.6	3.7	100.0
	진보	(233)	29.4	18.3	18.8	23.2	8.7	1.6	100.0
	잘 모르겠음	(43)	34.7	10.8	16.9	21.3	2.3	14.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22.2	32.1	19.7	10.0	13.9	2.1	100.0
	천주교(가톨릭)	(108)	36.9	24.5	16.4	17.2	4.8	0.3	100.0
	불교	(128)	29.8	11.5	18.8	31.6	5.5	2.9	100.0
	기타 종교	(32)	36.7	1.3	3.0	59.0	0.0	0.0	100.0
	종교 없음	(547)	39.0	16.9	17.6	15.2	6.8	4.5	100.0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 활동으로는 과반수인 55.8%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라고 응답했다. 신뢰도 조사 초기에는 ‘봉사 및 구제활동’이 1위였으나 2013년부터 줄곧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1위로 나오고 있다. 봉사나 구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윤리와 도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보기 항목에 있었던 ‘문화 예술 활동’은 그동안 응답률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았고, 실제로 신뢰도와는 상관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는 제외하였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은 50대 이상, 이념적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은 20대와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회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윤리/도덕성’이 26.0%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20.9%, ‘물질 추구 성향’ 15.9%,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집회 참여’ 12.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전 조사에서는 ‘윤리/도덕성’이 50% 안팎의 높은 응답을 받았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교회 성장주의’와 ‘리더십’을 제외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집회 참여’, ‘성범죄’,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로 교체했는데, 여전히 ‘윤리/도덕성’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전체 보기 항목이 골고루 응답을 받았다. 어느 하나만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신교인이 신뢰받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 ‘나만 옳다는 자세’가 23.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지만, ‘이기적 태도’ 21.5%, ‘정직하지 못한 언행’ 18.8%,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18.2% 등의 순으로 여러 항목들에 골고루 응답했다. 이 질문 역시 보기 항목들을 많이 바꾸었는데 목회자의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개신교인의 신뢰도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무종교인들은 ‘나만 옳다는 자세’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종교인들보다 높아서 특별히 개신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고, 개신교인들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가장 많이 응답해서 스스로 볼 때 정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6. 교회와 정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근 교회와 정치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어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먼저 교회 혹은 목사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이나 찬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약간+매우)은 13.2%로 매우 적었고, 반대 의견(별로+전혀)이 83.2%로 압도했다. 곧 국민들 다수는 교회나 목사의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특히 무종교인은 반대 의견이 90.2%로 더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신교인들은 75.2%의 반대 의견으로 평균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다. 이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개신교인들 가운데 보수 성향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부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소신껏 정치적인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서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발언 혹은 참여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의 정치적 발언 및 참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나 자기 SNS에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71.2%가 문제 있다고 응답하였고, 교인들과의 자리에서나 유튜브 활동 등에 대해서도 80% 이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

히 설교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치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85.0%가 반대하였다. 특히 무종교인이나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목회자들의 정치 발언이나 참여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개신교인들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호의적으로 응답하였고,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들도 다소 호의적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의 정치 집회 참여와 관련해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집회에 십자가 혹은 기독교 단체 이름이 적힌 팻말 등을 들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69.2%는 '거부감 있다'(약간+매우)고 응답했고, 26.7%만이 '거부감 없다'고 응답했다. 목회자에 대해서만큼은 아니지만 개신교 신자라도 종교 색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서도 무종교인들은 더 많은 72.4%가 반대하였지만, 개신교인은 62.6%만 반대하여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목회자의 정치 참여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여성보다 남성들의 긍정 의견이 많았고, 젊을수록 긍정 의견이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진보 성향에서도 목회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에 비해 반대 의견이 더 많았는데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보다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 또는 성직자로서 목회자의 정치 참여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시민으로서 개신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된다. 정치 이슈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목회자가 아닌 일반 신자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표 11]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응답자 특성별)

(N=1000,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거부 감이 들지 않는다	별로 거부 감이 들지 않는다	약간 거부 감이 든다	매우 거부 감이 드다	긍정 (전혀+ 별로)	부정 (약간+ 매우)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9.8	16.9	25.8	43.4	26.7	69.2	4.1	100.0
성별	남성	(498)	11.8	19.2	26.2	41.0	31.0	67.1	1.8	100.0
	여성	(502)	7.8	14.5	25.4	45.9	22.3	71.3	6.4	100.0
연령	20대	(159)	17.1	24.4	26.5	26.1	41.4	52.6	6.0	100.0
	30대	(149)	15.3	16.2	22.2	40.8	31.6	63.0	5.5	100.0
	40대	(186)	9.9	22.7	17.9	45.7	32.5	63.6	3.8	100.0
	50대	(197)	10.3	8.2	28.3	48.5	18.5	76.9	4.7	100.0
	60대 이상	(309)	3.1	15.3	30.3	49.0	18.4	79.3	2.3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9.9	12.8	31.7	43.2	22.7	74.9	2.4	100.0
	중도	(469)	7.7	18.3	26.7	43.8	26.1	70.5	3.4	100.0
	진보	(233)	15.7	17.8	19.2	45.9	33.5	65.1	1.4	100.0
	잘 모르겠음	(43)	0.0	19.7	16.9	27.5	19.7	44.5	35.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2.7	23.5	36.8	25.8	36.2	62.6	1.2	100.0
	천주교(가톨릭)	(108)	5.2	16.2	24.4	52.3	21.5	76.8	1.8	100.0
	불교	(128)	11.8	20.4	26.5	36.0	32.3	62.5	5.3	100.0
	기타 종교	(32)	53.4	0.0	0.0	38.0	53.4	38.0	8.5	100.0
	종교 없음	(547)	8.4	14.0	22.6	49.8	22.5	72.4	5.1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2.2	26.5	40.0	21.2	38.7	61.2	0.1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9.0	15.0	22.4	50.8	24.0	73.1	2.8	100.0
	잘 모르겠음	(51)	11.3	4.4	17.0	28.5	15.7	45.5	3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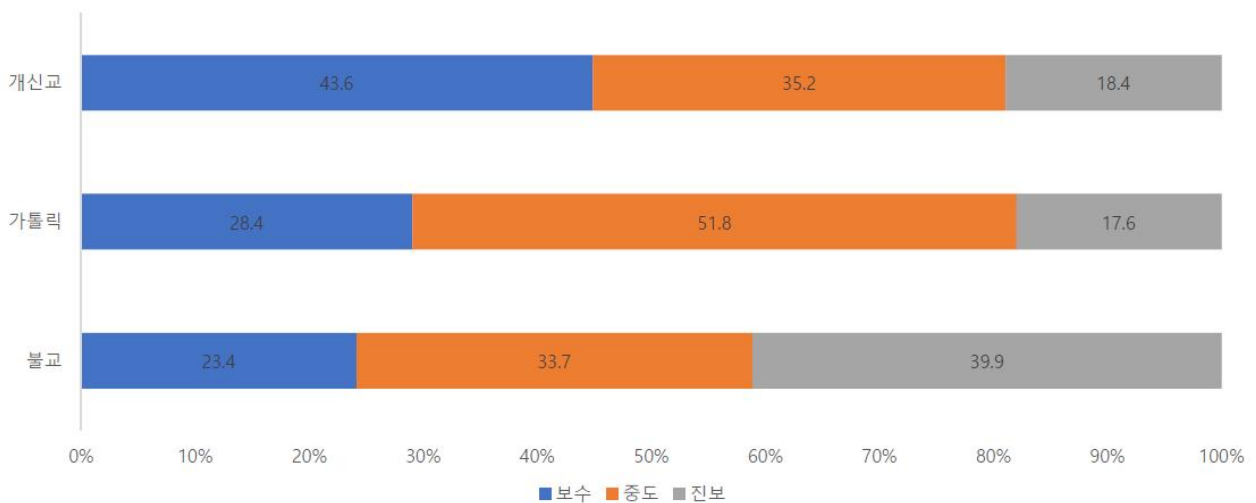
기독교 목사들이 대통령 혹은 특정 정치인을 초청하여 대통령/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15.1%의 국민이 '긍정'(매우+약간)의 의견을 보였고 대다수인 78.0%의 국민은 '부정'(약간+매우) 의견을 보였다. 종종 개신교계에서 '국가조찬기도회'를 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개신교인들과 보수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여 한국교회 및 목사들의 정치 참여 의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과반수는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체 응답자들에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6%, '없다'는 응답이 85.4%여서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를 기독교 신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기독교인 정치인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어서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긍정 평가(약간+매우)는 30.2%, 부정 평가(별로+전혀)가 68.2%로 3분의 2가 부정적으로 보았다.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그들조차 기독교인다운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별 정치적 태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기독교가 보수(매우+약간 보수적) 39.7%로 가장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응답했고, 가톨릭은 진보(약간+매우 진보적) 36.3%로 가장 진보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불교는 보수(매우+약간 보수적) 27.5%, 중도 42.5%로 가장 중도적 이미지의 종교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여겨져 온 불교보다 개신교가 더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매우 특징적인 결과이다. 개신교인들 스스로 개신교가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50.1%로 절반을 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신교인들은 자신에 대해 이념적으로 보수적(매우+약간)이라는 응답이 43.6%로 나와서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톨릭(28.4%)이나 불교(23.4%)보다 훨씬 높았고,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10.8%로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2] 종교별 이념 성향

(N = 1000, %)



7. 종교 중요도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본인의 삶 속에서 종교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중요하다(약간+매우)의 응답이 75.5%로 종교인의 약 4명 중 3명은 본인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를 가진 국민들의 대다수가 종교를 중요시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종교별로 나누어서 보면, 가톨릭(87.7%)과 개신교(83.5%)는 대부분이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교인은 59.7%만이 중요하다고 해서 종교의 중요성을 덜 인정하고 있었다.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 속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남성보다 여성이 종교를 중요시했다.

III. 결론 및 제언

1. 조사 결과 요약

이번 2023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21.0%로 지난 2020년 6차 조사에 비해 더 하락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사방법이 전화 응답 방식에서 온라인 조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10.8%p가 하락한 것은 비교적 뚜렷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올해 약간 반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여전히 최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무종교인들의 신뢰도는 10.6%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목회자와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20년보다 10%p 정도 하락하였다.

둘째, 우리 국민들의 종교별 인식에서,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서는 3위인 불교와 차이 없는 2위였고,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에서는 2위인 가톨릭과 차이 없는 3위였다. 그리고 가장 호감 가는 종교에서는 가톨릭과 불교가 거의 차이가 없는 1위, 2위인 반면에 개신교는 차이가 뚜렷한 3위였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거리감을 느끼고 호감을 갖지 않는 종교가 개신교라는 조사 결과이다.

셋째, 세 종교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가톨릭이었고, 개신교는 2위였다. 개신교는 2020년 조사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역시 가톨릭이었고, 개신교는 2위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에서는 불교와 차이 없는 2위였다. 전통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불교보다는 앞서지만, 개신교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넷째,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24.1%로 신뢰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기여하고 있는 활동은 '취약 계층 구제 및 복지 증진'(38.2%)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30.4%) 정도였다. 나머지는 전반적인 기여도인 24.1%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응답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25.2%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기대감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와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교회 밖의 비판 여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교회의 개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교회가 사회 공익

보다는 교리를 증시하는 종교라고 응답하여 공공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회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앞의 결과에 이어서 보면, 교회가 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기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신교인이 신뢰받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 ‘나만 옳다는 자세’(23.7%)와 ‘이기적 태도’(21.5%)가 가장 많이 나온 것도 이러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 활동으로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윤리와 도덕 실천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고, 목회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윤리/도덕성’이 26.0%로 가장 많이 나왔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윤리/도덕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았다. 목사의 정치 발언이나 활동에 대해 83.2%가 반대 의견이었고, 70% 이상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목사의 정치적 발언 및 참여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목사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초청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수인 78.0%의 국민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정치적 집회에 십자가 혹은 기독교 단체 이름이 적힌 팻말 등을 들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69.2%가 거부감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목회자의 정치 활동에 비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낮고 젊은 층이나 진보 성향,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따라서 목회자에 비해 시민으로서 개신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열린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

기윤실에서 사회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그 결과는 줄곧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번 6차 조사에서 4점 척도로 바뀌어서 비슷한 신뢰수준임에도 비율상으로는 신뢰도가 31.8%로 다소 높게 나왔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21.0%로 다시 하락한 것이다. 이 수치는 이전에 5점 척도로 조사했을 때 나온 20% 안팎의 결과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이다. 4점 척도로 조사했음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우리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의 기대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최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공신력이 떨어지면 교회의 선교와 대사회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종교 집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봉사와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해도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의 폐쇄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를 위해서나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 교회 공공성의 회복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사회에서의 신뢰가 떨어지고 친근감을 잃고 호감을 받지 못해도 교회는 교회의 생리대로 운영되고 있다. 종교 영역은 성스러운 영역이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교회를 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동안 한국교회가 보여 준 모습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조차 실망을 넘어 지탄을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개신교인들은 비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톨릭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불교보다는 훨씬 높게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전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개신교인들이 의례(예배) 참여나 경전 읽기, 기도 횟수 등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종교인들을 훨씬 앞서고 있어서 종교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배타성이 더 강해지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 목회자와 개신교인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사회로부터 더 외면당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이다. 그래서 전국에 7만 개가 넘는 교회당이 있는 개신교는 오히려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그보다 훨씬 적고 대부분 산속에 사찰이 있는 불교는 포용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사회 현상은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중요한 사회 현상이나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회의식이 낮아지고 공신력이 약화되는 것은 전혀 개신교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나름 순수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전도하는 것이 배타적으로 보이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가운데 전염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공동체성을 위해서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도 가능하다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원리상 문제될 것이 없는 생각이다. 그러나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개신교 신자들의 행동이 공동선에 위배되고 매우 이기적인 행위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 역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이 가져올 결과와 그 여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순수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관에 기초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의 신앙관 및 교회관을 바로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할 때 이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사회와 보다 폭넓게 소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성찰의 구조화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1위였고, 목회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윤리/도덕성’이 가장 많이 나왔다. 따라서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성은 언뜻 개인적인 영역이고 정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에게 맡기게 되면 공동체나 제도의 차원에서 점검하거나 책임을 지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오래 전에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룬 현대사회가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한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 요소도 함께 증가시킨다.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성찰의 중요성이 있다. 벡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시민 사회의 공론장을 통해서 성찰해야 하고 집합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²⁾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개신교가 이 땅이 전래된 지 130년이 지났다. 전래 초기에는 신흥 종교였던 개신교가 불과 1백 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주류 종교가 되었고 지금은 신자 수에서 1위가 되었다. 그러나 성장주의와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힌 한국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회 성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교회 본연의 역할은 부차적인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고 여기에 다른 교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개교회주의가 심화되면서 교회들 사이에 협력과 연대도 어렵게 되었고 이 결과로 공신력이 크게 하락하였다.

개교회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의 개교회주의는 ‘개교회가 교회 내의 인적,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 데에서 개별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부정적인 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교회성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에서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는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교계에서도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주변의 다른 교회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교회 중심의 활동을 한다면 교회들 사이에 협력은 불가능해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마저 나빠져서 전체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큰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신뢰도는 2012년 63.2%에서 2017년 35.5%로 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인 수가 적은 작은 교회에서는 신뢰도가 더 적었다.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조차도 교회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찰이 필요하다. 성도 개인도 성찰이 필요하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이루어온 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신앙의 모습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성찰의 또 다른 의미는 내부에 성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교회 현실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 사회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듯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정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에 대하여는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홍성태 옮김)(서울: 새물결, 2006)를 볼 것.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매우 어렵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소수이고 이들은 이제까지의 관행과 제도화된 관습에 따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의사소통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다양한 언론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스스로 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성찰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래 초기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교회 안에서 다양한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SNS는 가짜뉴스의 전달통이 아니라 건전한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운영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성찰과 개혁은 한국교회가 스스로 거듭나서 공신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진정성 있는 구제 봉사 활동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구제와 봉사 활동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1위였고, ‘봉사 및 구제활동’이 2위로 나왔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이전에는 ‘봉사 및 구제활동’이 1위였으나 최근에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으로 바뀐 것은 아무리 봉사와 구제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윤리와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사회 활동 중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취약 계층 구제 및 복지 증진’으로 나왔다. 따라서 구제와 봉사 활동은 교회가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복지관 운영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복지 시설 운영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개신교지만 이번 조사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가톨릭이 양과 질 면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신교가 하는 복지나 봉사 활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가 하는 봉사 활동은 많은 경우에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제나 봉사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로 인도되어서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개신교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순수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 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제나 봉사 활동을 할 때에는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기보다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들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에 감동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유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처럼 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 목회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을 목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을 목회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 중 79.2%는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 목회자는 다르다고 인정하거나 칭찬을 해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응답자의 65.5%는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마을목회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이해해주고 적극 협력했다’고 답한 것도 마을목회가 이미지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를 섬기려는 진정성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돌려놓은 것이다.

처음에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결국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을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장기간 지속하게 될 때 결국 그 진심이 전달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의 봉사 활동은 도덕적 우월감 위에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컸다는 점이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시혜자와 수혜자라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지역 주민들을 수혜자로 대상화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지속성이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전시성 활동이 많았다. 사회봉사는 단순한 시혜 행위도 아니고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서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민 사회에서는 교회의 지역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도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구제나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 현장에서는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진정성을 담보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교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무종교인에 대한 관심 필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주목해야 할 대상은 무종교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무종교인들의 개신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나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훨씬 낮았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평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성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별 비교 인식에서 신뢰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없음/모름이 이전 조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새로 조사한 친근감 있는 종교와 호감 가는 종교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응답보다 '없음/모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활동에 종교별 비교에 대해서도 '없음/모름'이 40% 안팎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무종교인들의 응답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무종교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도 무종교인은 54.7%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인구센서스에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국내 인구 비율은 전체의 56.1%로, 종교가 있다고 답한 비율(43.9%)보다 10%p 이상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종교 없는 사람이 종교 있는 사람을 추월한 것은 통계청이 종교 유무를 조사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최초이다. 그리고 한국 갤럽에서 2021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서는 무종교인이 60%로 집계되었다.³⁾ 이것은 현대인들의 종교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종교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종교인'이라는 것이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종교적인 속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실시하는 거의 모든 종교 관련 조사는 종교단체 가입 유무를 가지고 종교인 여부를 판단한다. 곧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은 종교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종교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종교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3) 한국갤럽 홈페이지.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종교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인 구도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전체 미국인들 중에 거의 40%가 종교단체와 연관이 없지만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무종교인들은 이전에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으나 제도 교회를 떠나 무종교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무종교인들이 모두 무신론자이거나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일종의 불가지론자일 수도 있고 제도 종교나 종교 단체에는 소속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신앙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⁴⁾

우리 사회에서 무종교인들도 종교성이 전혀 없거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기성 종교에 대한 실망으로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갤럽 조사에서는,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과거 종교가 개신교인 사람이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종교 경험자들 중에 과거 종교가 개신교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인데,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온 현상이다. 개신교가 가장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탈자도 많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계에서는 무종교인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전도의 대상이 많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이 종교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성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전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조사 결과처럼 무종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성 종교에 대해서 실망하여 관심을 돌리고 있는 무종교인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세심한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5) 교회와 정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정립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치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정치 관련 문항들을 추가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지난 대선과 코로나 사태 동안에도 교회나 목회자들의 정치색이 부각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정치 발언이나 극우 성향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⁵⁾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목회자들의 정치 참여나 정치 발언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사회의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것과 함께 역시 공공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의 39.7%가 개신교가 보수적이라고 응답해 가장 보수적인 종교로 보았고, 개신교인들 중에 이 응답은 50.1%나 되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자신에 대해 이념적으로 보수적(매우+약간)이라는 응답이 43.6%로 나와서 가톨릭(28.4%)이나 불교(23.4%)보다 훨씬 높았고,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10.8%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한 마디로 개신교는 우리 사회에서 자타공인 이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종교인 것이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회관은 현실 유지와 기독교 수호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마저도 결여되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공성이 결여된 보수적 태도는 결국 이익집단화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교회의 현실 참여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회운동이나 사회에 대한 의사표현도 단순히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4) 필 주커먼, 「종교 없는 삶」(박윤정 옮김)(서울: 판미동, 2018), 114-121.

5) 대표적으로 로버트 D 퍼트넬 외, 「아메리칸 그레이스」(정태식 외 옮김)(서울: 페이퍼로드, 2013)를 볼 것.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Robert N. Bellah)는 초월의 이상과 경험 현실 사이에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 관계일 때에야 종교가 현실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⁶⁾ 종교의 생명력은 현실에 대한 ‘초월성’에 있다. 현실 세계에 동화되어 세속 가치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종교의 본질인 초월의 이상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적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만 종교는 초월의 기준을 가지고 현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의 이상은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의 정신 또는 성경의 가르침에 다름 아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라도 성경의 정신과 그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는 교회 자체도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 반성하고 끊임없이 갱신해야만 한다. 이것이 교회가 참 교회 되게 하는 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목회자의 정치 참여와는 다르게 개신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적었다. 그러나 개신교의 정치 참여나 활동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기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활동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기독교 정신에 합당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정신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인 사이에서조차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릇된 성경 해석에 기초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특히 개신교 단체나 인사의 활동은 비개신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개신교 정신과 가치를 대변한다고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현실 정치가 매순간 절대 진리에 부합할 수는 없으므로 한국교회나 신자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도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의 정치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제도 정치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정치 대리인에 의해서 시행되는 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조사에 개신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때로는 정치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 선거철에만 정치에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는 정치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가 ‘믿는 바에 대한 도덕적 실천’이라면 모든 국민은 철저히 ‘정치적’이어야 하고 그것은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정치는 정치인에게만 맡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도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해 참여하는 생활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시민의 참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서 교회와 개신교 신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로버트 벨라, 「사회 변동의 상징 구조」(박영신 옮김)(서울: 삼영사, 1981), 174쪽.

2023년 한국교회 신뢰도 형성에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 빅데이터 분석에 나타난 요인과 관련하여 -

김진양 (주)지앤컴리서치 부대표

1.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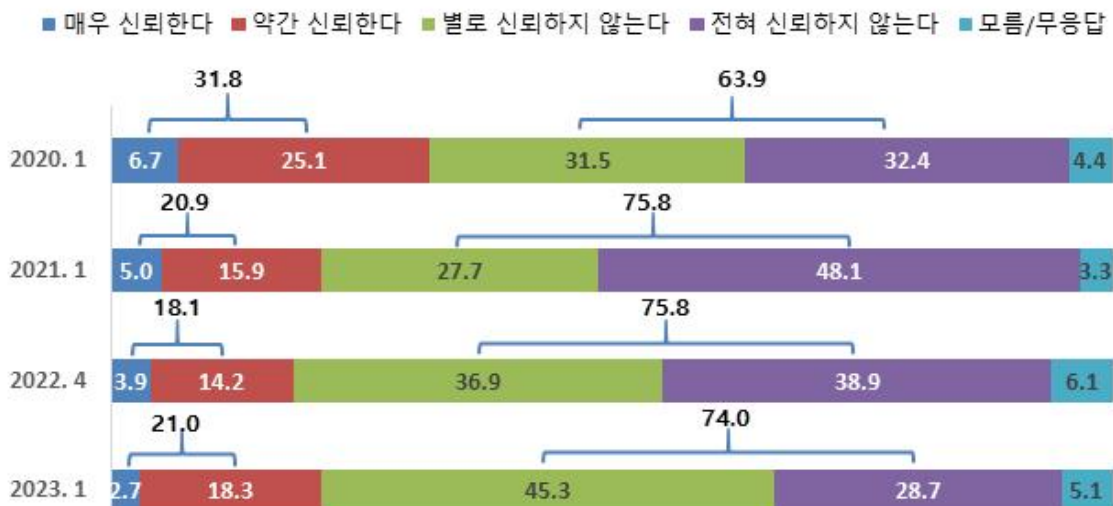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3년마다 진행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언론과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영향력 있는 조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조사에서는 3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교회 신뢰도가 약간 올랐다. 이 글에서는 2023 한국교회 신뢰도를 오르게 한 요인을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신뢰도와 이미지

한국교회 신뢰도는 기윤실이 3년마다 실시한다. 가장 최근에 한 조사는 2020년 1월에 한 조사인데 그 조사와 이번 2023년 1월에 한 조사 사이에는 한국교회 신뢰도를 측정한 2개의 조사가 더 있었다. 하나는 2021년 1월에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의뢰하여 지앤컴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이며 또 다른 하나는 2022년 4월에 목회자 모임인 '사쿰과섬김 코디연구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0년 1월 기윤실 조사에서 기록한 한국교회 신뢰도 31.8%가 1년 후인 2021년 1월에는 20.9%로 1년 만에 무려 10.8%p나 급락했다. 이 감소 추세는 그치지 않고 계속 되어서 2022년 4월에는 감소세가 둔화되었기는 하지만 18.1%라는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에는 한국교회 신뢰도가 21.0%로 2.9%p 올랐다. 약간의 비율이지만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림] 한국교회 신뢰도 : 국민 전체_시계열 추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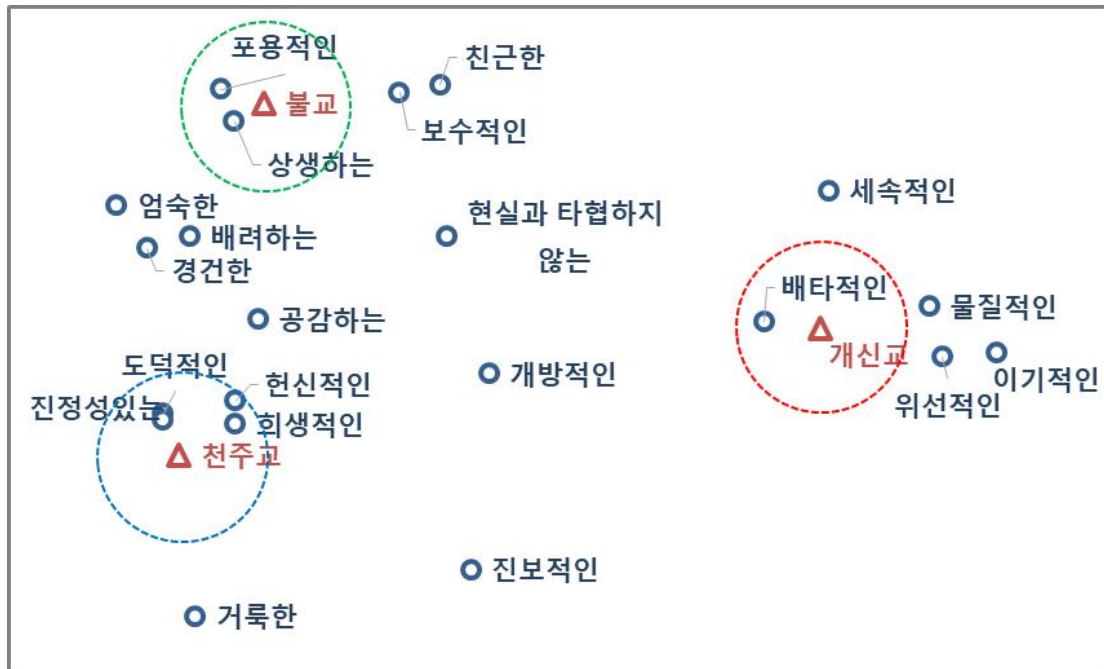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20.01 조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2020. 1(일반국민 1,000명, 전화면접조사, 조사기간 2020.1.9.~11)
- 2021.01 조사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조사', 2021.1(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21.1.12.~15)
- 2022.04 조사 : 사림과섬김 코디연구소·국민일보,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2022.4(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22.3.31.~4.04)
- 2023.01 조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2023. 2(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23.1.11.~15)

정성적 측면에서 한국교회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21개 이미지 항목을 주고 국민들에게 각각의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종교를 응답하게 한 후에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는 다변량 분석 기법인 MCA(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상응분석)를 했을 때, 개신교는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위선적인' 이미지로 특징지어진다. 반면에 불교는 '포용, 상생'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개신교의 배타적 이미지와 대립하고 있다. 천주교는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개신교의 '세속적인, 이기적인, 위선적인' 이미지와 정반대의 이미지이다.

천주교와 불교 이미지를 종합하면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개신교 이미지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는 사회의 그 어떤 기관보다 순수해야 하고 이타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개신교가 이기적 욕망에 충실한 종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개신교는 사람으로부터 종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림] 종교별 이미지 Map



*자료 출처 : 사림과섬김 코디연구소·국민일보,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2022.4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22.3.3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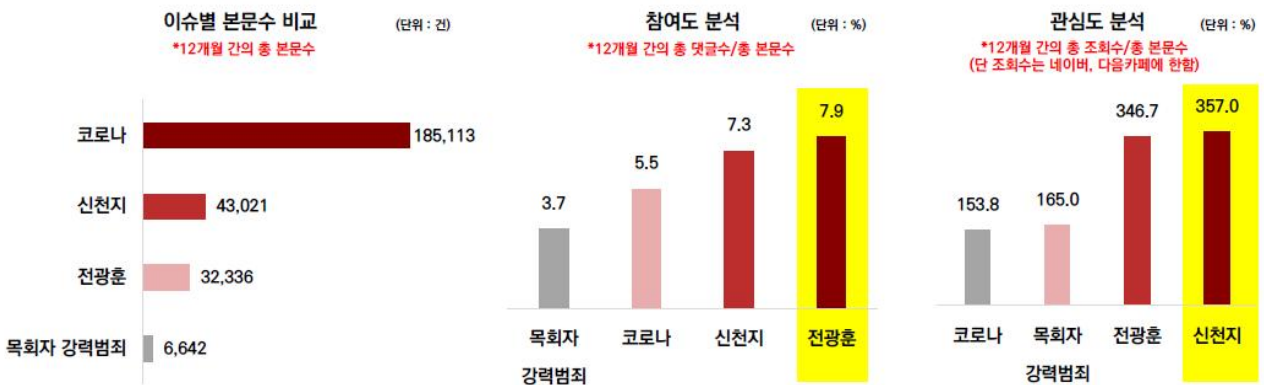
3. 한국교회 온라인 여론 이슈7)

(1) 2020년 이슈

2020년 한국교회 온라인 4대 이슈는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였다. 다음 이슈는 ‘신천지’, ‘전광훈’, ‘목회자 강력범죄’였다. 이 중에서 단순 버즈량만 보면 ‘코로나’가 가장 많았으나, 관심도는 ‘신천지’가, 참여도는 ‘전광훈’이 가장 높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진 것이 코로나 확산이 계기였다는 점에서 ‘신천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훈’ 이슈가 참여도가 높았다는 것은 반대자와 옹호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폭발성 있는 이슈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 4가지 이슈 가운데 ‘목회자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였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2~3월 사이에 신천지가 확산의 주요 통로가 되면서 신천지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신천지를 교회의 일부로 여겼다. 또한 초기에 일부 지역교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했다. ‘전광훈’ 이슈는 2019년에도 주요 이슈였는데 그때는 정치적 발언과 광화문 집회가 주요 내용이었다면 2020년에는 코로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면서 공익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러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2020년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실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2020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2) 2021년 이슈

2021년에 온라인 여론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4대 이슈는 ‘입양아 학대’, ‘목회자 강력 범죄’, ‘방역수칙 위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지역 교회에서 밀접 접촉을 통해 코로나19의 단순 전파를 지칭한다. ‘코로나 집단 감염’은 단순 버즈량은 높았지만 관심도와 참여도는 매우 낮았는데, 이는 코로나 집단감염이 뉴스성은 강하지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슈여서 새로운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은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달리 의도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한국교회 온라인 이슈 빅데이터 분석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해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연초 혹은 연말에 기독교, 교회, 목사’의 3개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 1년간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의 게시된 본문과 댓글을 분석하여 ‘빅데이터로 본 한국교회 온라인 주요 4대 이슈’를 발표한다. 원문은 한국교회탐구센터 홈페이지 ‘자료집’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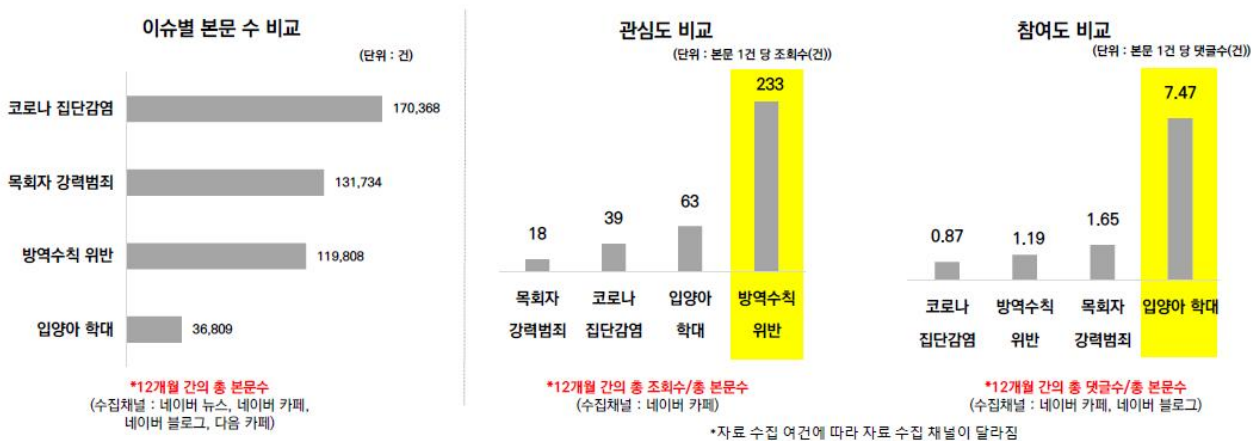
사랑제일교회, 상주 BTJ열방센터, 지역 교회 등이 방역위법행위를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방역수칙 위반’은 확진 사실, 확진자 동선 등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부터 예배와 관련된 당국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점차 단순 집단감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반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생긴 집단 감염에는 더 큰 비난을 가했다.

‘입양아 학대’는 정인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말한다. 2021년에 입양아 문제가 2건 터졌는데 모두 크리스천 가정이었다. 2021년 1월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으며 7월에는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허민영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건 모두 입양아를 엽기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로서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덩달아 교회도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양부모의 가족과 교회 관련자들이 성도들과 기독교 단체를 규합하여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마지막 이슈는 ‘목회자 강력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이슈로서 목회자 성범죄, 교회 헌금 횡령 등의 사건이었다. 그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사건인데 2021년에는 안산에서 사이비 교회를 운영하던 목사가 20년 가까이 수십 명의 아동을 감금하고 성 착취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정통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회 전체에 오명을 씌운 사건이다.

2021년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가운데 3가지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2020년 이슈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폭발적 이슈가 아니므로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18.1%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2020년의 20.9%에서 약간 떨어진 정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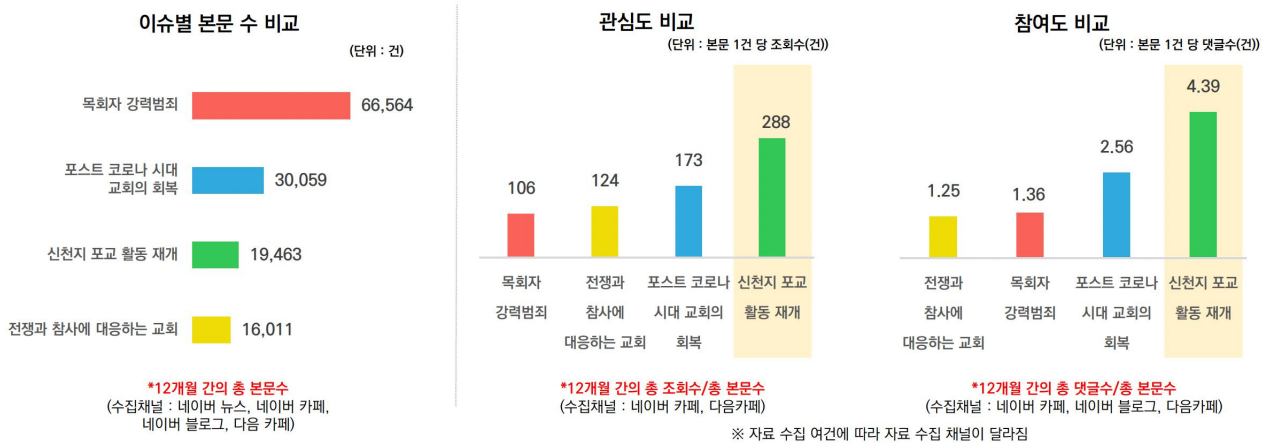
[그림] 2021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3) 2022년 이슈

2022년 한국교회의 온라인 여론 주요 4대 이슈에서 나타난 특징은 교회탐구센터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이래 처음으로 긍정적 이슈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2022년 4대 이슈는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목회자 강력 범죄’,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회복’이었다. 이 가운데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는 교회가 사회적, 세계적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활동 이슈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그림]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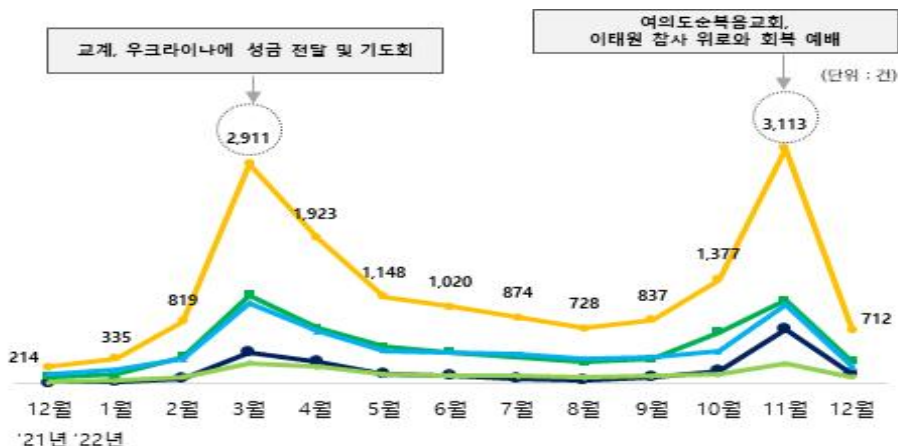
①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로부터 피침략자로서 동정을 받았으며, 언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쟁 난민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도움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에 동참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금을 모아서 전달함으로써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었다.

교회는 이태원 참사를 맞이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태원 참사는 약 한달 반 정도라는 짧은 기간(사건 발생 10월 29일이었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12월 16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적극적 활동(추모, 기도회, 예배 등)으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교회는 세계적 전쟁에 무관심하거나 사회적 재난에서 도리어 희생자를 비난하여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태원 참사의 경우 희생자와 유가족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잘 보여주었고,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이슈는 본문 수, 조회 수, 댓글 수 등의 객관적인 지표는 4대 이슈 중 가장 낮지만 사회적 파장, 단기간에 관심을 끈 점, 교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림]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①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덧글]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①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교회는 성경의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자 우리의 할 바를 다할 것... 피난 나온 사역자가족들을 돌보고 그들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 무엇인가를 해볼까 하고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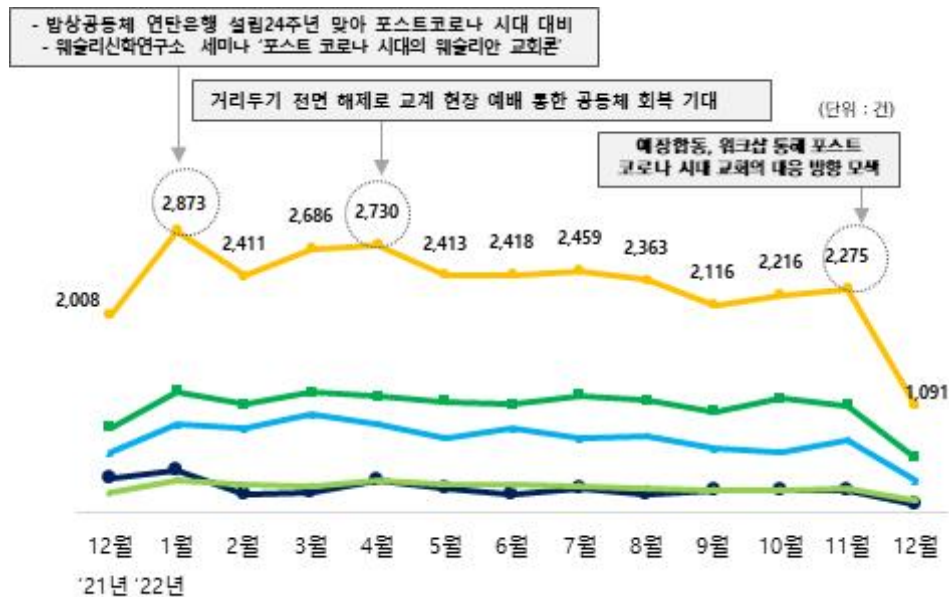
“여의도순복음교회,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가족에 10억 전달”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었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대면 예배가 코로나19 이전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또 실제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는 성도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환경 변화에 맞춰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대면 예배 강화 방안, 온라인 예배 활용 방안, 교인들의 교회 소속감 고취 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본문 수 2위, 관심도 2위, 참여도 2위로 일상 회복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의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옮겨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덧글]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한국 교회에 던진 교훈과 도전을 환기하며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의 ‘현장성’을 대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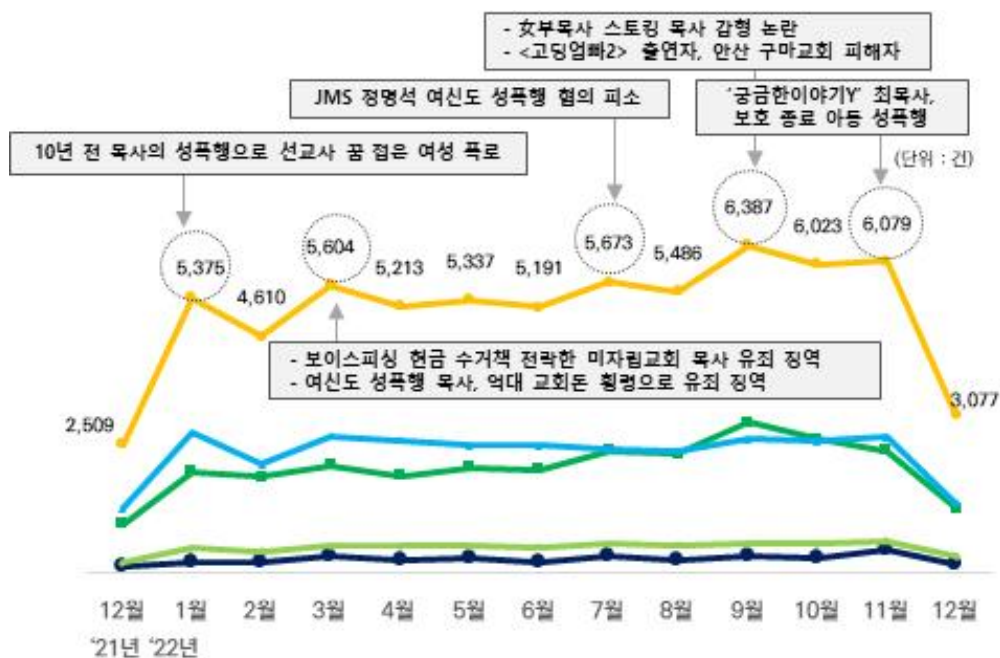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③ ‘목회자 강력범죄’

목회자 강력범죄 이슈로는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외에도 목회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횡령하는 범죄 사건들도 보도되었다⁸⁾. MBN 예능 방송 <고딩엄빠2> 출연자가 안산 사이버 종교단체인 구마교회 피해자로 밝혀졌으며⁹⁾, SBS 방송 <궁금한이야기Y>는 보호 종료 아동을 성폭행한 최 목사에 대해 방영했다¹⁰⁾. 미디어를 통해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목회자 강력범죄는 해마다 빠지지 않는 이슈인데, 안산구마교회처럼 사이버 종교 등에서 벌어진 일도 기성 정통 교회의 이슈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이슈이다.

이 이슈는 본문 수는 1위이나 참여도는 3위, 관심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슈라서 새로운 관심을 모으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③ ‘목회자 강력범죄’



[덧글]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③ ‘목회자 강력범죄’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 피해자 증언 유치원생도...”

“고딩엄빠에 또 한번 역대급 사연이 공개되었어요. 혹시 안산 구마교회사건 아시는지... 안산에 있는 교회와 대안학교에서 지난 20여년 간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행위와 성인을 대상으로도 육체적, 성적인 학대와 감금, 종교 강요, 노동착취가 벌어진 사건인데요..”

8) 국민일보, “돈 필요해서”...보이스피싱 가담한 목사, 정역2년, 2022. 3. 19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6884221>)

9) 스포츠조선, ‘19살’ 김다정, ‘안산구마교회’ 사건 피해자, 2022. 9. 14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9150100089520005283&servicedate=20220914>)

10) SBS, ‘궁금한 이야기 Y’, 2022. 12. 9(<https://programs.sbs.co.kr/culture/cube/vod/54887/22000483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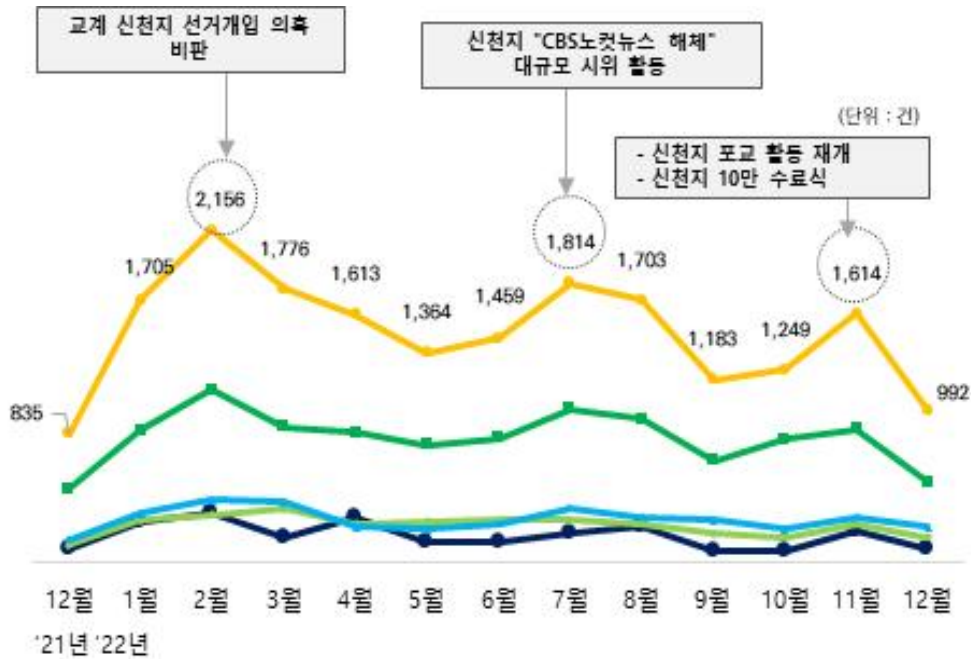
④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가 초기에 확산되는데 주된 통로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신천지가 사회로부터 큰 질타를 받으면서 신천지 특유의 공격적 포교활동을 자제하였다. 하지만 2022년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되면서 ‘아카데미’ 등으로 위장해 대학 커뮤니티 등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포교 활동을 재개하였다. 신천지 신도 10만 수료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신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주목을 끌었다.

2020년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고자 현혈 캠페인, 유튜브 온라인 세미나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은 사회봉사 활동과 병행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 수 대비 관심도와 참여도 모두 1위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신천지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에 기인한다.

[그림]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④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덧글]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④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자신들의 규모를 알리고 교단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매해 대규모 행사를 벌이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신천지 집단이 코로나 이후 주춤해진 틈을 타 서서히 움직이더니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펼쳐지자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을 종용하고 있다.”

4. 맺는 말

2023년 한국교회 신뢰도는 추락을 멈춰 약간 반등했다. 이 반등은 내용이 있는 결과일까 아니면 우연한 현상일까?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이 반등은 충분히 근거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4대 이슈 가운데 새로운 부정 이슈가 등장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 그리고 명성교회 세습이 그해 교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입힌 사건이었고, 2020년에는 교회발 코로나19 발발이라는 대형 사건이 터져서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 여파로 교회 신뢰도가 10.8%p나 떨어지는 참담함을 보았다. 2021년에는 방역수칙에 대한 의도적 위반, 정인이 사건 등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고 그 결과 교회 신뢰도가 2.8%p나 더 떨어졌다. 그러나 2022년에는 부정적 이슈 가운데 크게 새롭거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이슈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뢰도 추가 하락을 멈추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 이슈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태원 참사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호감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슈가 더 크게 확산되거나 임팩트있게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회 신뢰도가 2.9%p 상승하는데 일정 부분 정도만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교회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새로운 부정적 이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회의 공적 사역은 교회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회는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문제에서 약자 편에 서야 한다. 정부나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 교회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과 공감하고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넷째, 국민들이 부도덕적,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단과 그렇지 않은 정통 교회를 구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2023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노력들이 더해져 3년 후에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 우리를 향한 믿음으로

신 하 영 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1. 들어가며 - 운동에 조사는 왜 필요할까

기윤실 운동은 기독교 시민단체 중에서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많다. 그래서 교계에서 우리는 자주 외롭다. 하지만 한국사회 전체로 보면 우리의 좌표는 어디로 찍힐까. 사안별로 다를 것이나, 심지어 특정 주제에서 기윤실이 취하는 입장은 매우 '우향우'라고 생각한다. 운동을 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다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석하는 교인, 목회자 혹은 신앙인인데, 그만큼 표본(샘플)의 편향성이 크고,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실천하게 바꾸고자 하는 무대는 다름 아닌 그 '한국사회'이기 때문이다. 박제된 상태로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 혹은 '(보통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를 뜻하는)지금 교인들'이라고 대상화하는 집단이 아니라, 살아 숨 쉬며 교회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기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연구자로서는 새삼스럽지만 이 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그나마 낯 것 그대로의 사회의 목소리를 듣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늘 편향성에 경계해야 한다. 모집단이 전체 사회라고 한다면, 설문조사에서 추출하는 표본은 대표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조사의 표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곧 "한국사회 보통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조사는 샘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으로 개인의 성향과 경향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성/연령/지역에 대한 인구비례할당을 수행했다. 강제적으로 이 샘플들이 한국사회의 축소판으로 보일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운동(movement)에는 조사(survey)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의에 취해서, 우리 주변인들의 기대와 지지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낯 것의 현실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특히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가 된 이런 조사는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들을 꺼내어 주고, 이를 통해서 그간 미진했던 기독교 사회운동, 기윤실 운동의 영역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물론 수년 동안 그야말로 씨 뿌리는 마음으로 울며 버텨오던 어떤 운동의 영역에서 미약하게, 혹은 급작스럽게 나타난 변화의 불씨를 알아차리는 소중한 기회도 되리라는 희망 또한 가져본다.

2.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이 발제문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독교인이 믿는 것, 기독교인의 신념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각을 앞서 언급한 성/연령/지역/소득수준/이념성향/종교/신앙심 정도/교회신뢰도 등으로 나눈 집단별 응답수준에 주목해서 보았다. 선거철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한국 한정으로 가장 크게 나뉘는 '기준'이 영호남 지역별 차이다. 하지만 사안별로 여성과 남

성 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안전이 있고 세대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바가 있듯이, 한국교회에 대한 열렬한/신랄한 반응을 보이는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주목했다.

우리의 믿음은 조작적으로 우리가 신념대로 행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으로 정의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 교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는지 긍정/부정으로 답한 이 결과는, 달리 해석하면 당신은 취약계층 구제 및 복지 증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기여했다고 여긴다면 긍정적 응답이 나올 것이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 응답을 했을 것이다. 간혹 부정적 응답을 한 이들 중에서는 한국교회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도가 비교적 높다고 여겨지는 분야, 즉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분야는 ‘취약계층 구제 및 복지증진’(38.2%)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분야는 ‘경제성장’(부정적 응답 80.6%)이었다. 하지만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하는 역할이 경제 부흥은 아닐 것이다. 교회를 향한, 교회에만 요구되는 역할과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이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에 요구되는 역할은 개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뉜다. 개인적 기능은 1)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 곧 신념을 제공하며 2)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능은 1)사회 통합에 도움을 주어 갈등보다 유대를 추구하게 하는 것, 2)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고, 3) 봉사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¹⁾ 이러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고 현재 한국기독교의 사회적 기여 정도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면 조금 다른 답이 도출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신념을 제공하는, ‘도덕과 윤리를 고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70.0%가 부정적 응답을 했고, 개인적 차원의 청렴함을 위한 ‘부패 방지’를 하고 있는가는 부정적 응답이 80.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개인이 종교를 가졌을 때 본인/타인이 기대하는 효과가 아주 희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사회운동 때로는 기운실이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사회적 흐름, 거대 담론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개인적 차원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 더 가열차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나는 그동안 우리가 성숙한 개인이 타인에게 비폭력과 포용을 의사소통의 제일 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 금융자본주의와 기회주의에 뒤덮인 세상에서 부정부패와 무임승차를 지양하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간과해 왔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 사회운동이 가지는 변별적 특징,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점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믿음, 곧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모습이 더 나아지기 위한 세상의 기대는 이어지는 질문, “기독교인(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과 연결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이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나만 옳다는 자세’(23.%)와 ‘이기적인 태도’(21.5%)를 가장 큰 개선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좀 더 들여다보면, 남성들은 ‘나만 옳다는 자세’(28.2%)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과 달리 여성들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21.2%)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30대는 ‘이기적 태도’(25.4%)를 꼽았지만 60대 이상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23.9%)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독교인에게 기대하는 부분도, 실망하는 부분도 집단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흥미롭게 이 결과는 한국사회가 교사를 향해 가지는 인식에 대한 최근의 보고 결과와 매우 닮아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사는 교수학습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적, 법적 책무를 가진다. 특히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그리고 소중한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무가 성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교사를 성직자로 보는 시각, 한 종류의 노동자로 보아야

11) 출처: <중교사회학> Mcguire, Meredith B 지음. 김기대, 최종렬 번역. 서울: 민족사, 1994.

한다는 시각, 전문가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얽혀있는 기대와 이해가 교사의 정치적활동, 단체활동을 둘러싼 논란을 가져온다.

이러한 측면은 기독교인이 청빈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종교인’ 혹은 ‘구도자’의 역할을 기대 받거나, 사회에 참여하여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이웃’으로 역할을 기대 받거나와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두 가지 큰 계명, 곧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27)와 함께 주어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8)를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것인가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하던 시기, 그리고 차별금지법 입법화와 관련 논란이 극에 달하던 시기, 일부 교회 목회자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만을 외치며 ‘밖에서 뭐라고 하든 그건 우리를 향한 핍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철옹성을 쌓았다. 그렇게 고립되는 것은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나만을 좇고 하나를 놓치는 것이었다. 내 몸이 사랑할 이웃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했고, 그게 두 번째 계명이고, 기독교인에게 교회에게 사회가 바라는 바였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 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국교회가 기여했느냐는 질문 모두 과반 이상이 ‘기여하지 않는다’(각각 56.5%, 64.5%)고 응답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3. 우리를 향한 믿음에 대하여

다음으로 다룰 것은 “우리를 향한 믿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한국기독교/한국교회’와 보다 구체적인 ‘한국교회의 구성원’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응답자가 신뢰도가 높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은 한국교회가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교회에 기대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누구지를 시사한다. 이 조사결과는 얼핏 한국교회가 보수적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볼 때 소득수준에서도 긍정 응답이 높은 집단은 상/중/하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었다. 소득수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평균의 차이분석을 수행했을 때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합하면 ‘보수층이면서 계급적 우위에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종교’라고 같음하기 딱 좋은 신호들이다.

하지만 신뢰와 동조는 다르다. 반대의 명제도 성립한다. 주장/입장에 대한 불신이 곧 그에 대한 반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조금 더 희망적 관점으로 이 조사를 들여다보고 싶다.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들 중에는 분명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¹²⁾ 그만큼 “이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일수록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이 적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20대에서 기독교 전반적 신뢰에 대해서 긍정 응답이 20% 수준으로 나왔고 이것은 30대와 50대 보다 높은 비율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응답에서도 20대는 긍정적 응답 비율(19.7%)이 가장 낮은 연령집단인 30대(12.8%)보다 높고, 심지어 50대(19.6%)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01).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연령대별 정치적 성향도 20대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높고(44.2%), 60대에서 보수 성향이 짙다는(44.3%) 점에서 이 표본은 매우 보통의 한국사회를 반영하고 있다(표 1).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교회를 향한, 교회 구성원을 향한 청년들의 시각을 지금처럼 절망 일색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12) 추가적으로 본 조사에서 계급(가구소득)을 묻는 것 역시 가처분소득에 대한 증빙 없이 본인이 느끼는 자신의 상대적 가구소득의 고하 정도였다.

표1. 연령대별 정치적 성향

		연령					전체	
		19~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념 성향	보수	빈도	21	38	37	46	113	255
		이념성향 중 %	8.2%	14.9%	14.5%	18.0%	44.3%	100.0%
		연령 중 %	13.2%	25.3%	19.9%	23.4%	36.6%	25.5%
	중도	빈도	82	73	96	83	136	470
		이념성향 중 %	17.4%	15.5%	20.4%	17.7%	28.9%	100.0%
		연령 중 %	51.6%	48.7%	51.6%	42.1%	44.0%	47.0%
	진보	빈도	37	30	46	64	56	233
		이념성향 중 %	15.9%	12.9%	19.7%	27.5%	24.0%	100.0%
		연령 중 %	23.3%	20.0%	24.7%	32.5%	18.1%	23.3%
	잘 모르겠음	빈도	19	9	7	4	4	43
		이념성향 중 %	44.2%	20.9%	16.3%	9.3%	9.3%	100.0%
		연령 중 %	11.9%	6.0%	3.8%	2.0%	1.3%	4.3%
전체	빈도	159	150	186	197	309	1001	
	이념성향 중 %	15.9%	15.0%	18.6%	19.7%	30.9%	100.0%	
	연령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로 선택지를 주고 묻는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믿음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73.8%만이 '기독교'를 꼽았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문항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집단 중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 결과는 달랐다. 여성만을 두고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응답을 확인한 결과는 기독교인 여성 88명 중 89.8%(79명)가 자신의 종교인 기독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지만, 기독교인 남성 97명 중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는 72.2%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기독교인*남성 중 12.4%가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는 천주교(가톨릭)를 꼽았다는 점이다(12.4%). 이 문항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00).

표2. 남성 내 종교별*신뢰하는 종교

		가장 신뢰하는 종교								전체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없다	잘 모르겠다		
종교	기독교 (개신교)	빈도	70	12	5	0	0	0	3	7	97
		본인종교	72.2%	12.4%	5.2%	0.0%	0.0%	0.0%	3.1%	7.2%	100.0%
		신뢰종교	78.7%	11.4%	6.7%	0.0%	0.0%	0.0%	1.8%	21.2%	19.6%
	천주교 (가톨릭)	빈도	1	34	1	0	0	0	2	2	40
		본인종교	2.5%	85.0%	2.5%	0.0%	0.0%	0.0%	5.0%	5.0%	100.0%
		신뢰종교	1.1%	32.4%	1.3%	0.0%	0.0%	0.0%	1.2%	6.1%	8.1%
	불교	빈도	6	7	35	5	4	3	6	9	75
		본인종교	8.0%	9.3%	46.7%	6.7%	5.3%	4.0%	8.0%	12.0%	100.0%
		신뢰종교	6.7%	6.7%	46.7%	62.5%	26.7%	100.0%	3.6%	27.3%	15.2%
	기타 종교	빈도	1	1	0	0	4	0	0	0	6
		본인종교	16.7%	16.7%	0.0%	0.0%	66.7%	0.0%	0.0%	0.0%	100.0%
		신뢰종교	1.1%	1.0%	0.0%	0.0%	26.7%	0.0%	0.0%	0.0%	1.2%
	종교 없음	빈도	11	51	34	3	7	0	156	15	277
		본인종교	4.0%	18.4%	12.3%	1.1%	2.5%	0.0%	56.3%	5.4%	100.0%
		신뢰종교	12.4%	48.6%	45.3%	37.5%	46.7%	0.0%	93.4%	45.5%	56.0%
	전체	빈도	89	105	75	8	15	3	167	33	495
		본인종교	18.0%	21.2%	15.2%	1.6%	3.0%	0.6%	33.7%	6.7%	100.0%
		신뢰종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여성이 교회를 떠난다, 라는 우리의 위기의식도 지금보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될 필요가 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응답을 연령대별로 교차해서 다시 살펴본 결과 20대*여성은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기독교라고 응답한 비율(13.5%)이 30대(8.2%), 50대(12.4%)보다 높았다. 그리고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 이런 작지만 분명한 시그널을 통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국교회 내 성범죄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교회 내 성차별적 관행과 고정된 성역할에 따른 직분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다보니 우리도 모르게 ‘교회 내 젊은/청년여성들은 교회에 불만이 원래 많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청년여성’을 관성적으로 20-30대를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닐지도 전적으로 묻고 싶다. 본 조사에서는 교회 내 청소년, 10대가 응답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20대까지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여성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0대에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치는 이유가 무엇일지 깊이 있는 논의와 추가적인 질적 인터뷰 등을 통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나는 교회 내 비(미)혼 여성에 대한 결혼 권면 혹은 압박과, 기혼여성에 대한 출산 혹은 육아에 대한 권면 혹은 비난들이 30대 여성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으리라 선형적으로 제시하고 싶다. 미시적 차원에서 파악된 양상들인데, 이번 조사에서 이와 연결되는 수치가 발견되어 좋은 꼭짓점을 찾은 듯하다.

4. 나가며: 외면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자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2020년 조사 결과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 대조해 보았다. 뼈아픈 현실도 있고, 그때보다는 그나마 차악이라고 여겨야 하나 싶을 정도로 근소하게 개선된 응답 결과도 있었다. 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에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외면하고 싶은 부정적 응답,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만 볼까 싶은 억울함이 들 수 있다. 이런 성격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결과를 마주하면, 교계에서는 침소봉대다, 일부분을 과대 해석한 것이다, 라고 깊이 들여다보고 분석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치 않았다고 해도 외면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진실이 가지는 속성이다. 외면할 수 없다면, 아파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뼈아픈 진실 뒤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번 조사결과에서 몇 가지 변인을 가지고 기술통계와 차이분석, 교차분석 밖에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풍부한 시사점에 쏟아져 나왔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데, 연구자라서 그런지 흥미로운 ‘특이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뼈아픈 진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손발 걷어붙이고 ‘운동’할 지점이 더 눈에 들어오리라 기대해 본다. **진실**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Ⅰ 여론조사 검토위원회

- ◇ 책임연구원 : 정재영(실천신대 교수)
- ◇ 검토위원 : 신동식(검토위원장,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구자창(국민일보 기자, 기윤실 청년위원)
신하영(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김진양((주)지앤컴리서치 부대표)
- ◇ 활동가 : 김현아(기윤실 사무국장)
윤동혁(기윤실 간사)
- ◇ 여론조사 수행기관 : 지앤컴리서치 - 지용근 대표, 김진양 부대표

Ⅰ 여론조사 진행일정

- ◇ 검토위원회 : 1차 2022년 10월 28일(금)
2차 2022년 11월 16일(수)
3차 2022년 12월 11일(일)
4차 2022년 12월 23일(금)
- ◇ 여론조사 : 2023년 1월 11일(수) ~ 15일(일) - 5일간
- ◇ 결과발표 : 2023년 2월 16일(목) 오전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1연수실

- Ⅰ 주 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Ⅰ 수행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Ⅰ 후 원 분당샘물교회, 삼일교회, 우리들교회

